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

(2017년 기준)

MARKET SURVEY OF TIMBER PRODUCTS

2018. 12.

산 림 청

일러두기

□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 책자의 통계 기준연도는 2017년임

□ 일반적으로 1년 주기 조사의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를 시행한 연도 말 또는 그 다음 연도 초에 공표함에 따라 통계의 최신 시점은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통계는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표에 제시된 전체 업체 수는 각각의 해당 표에 해당하는 업체 수 기준임

□ 통계표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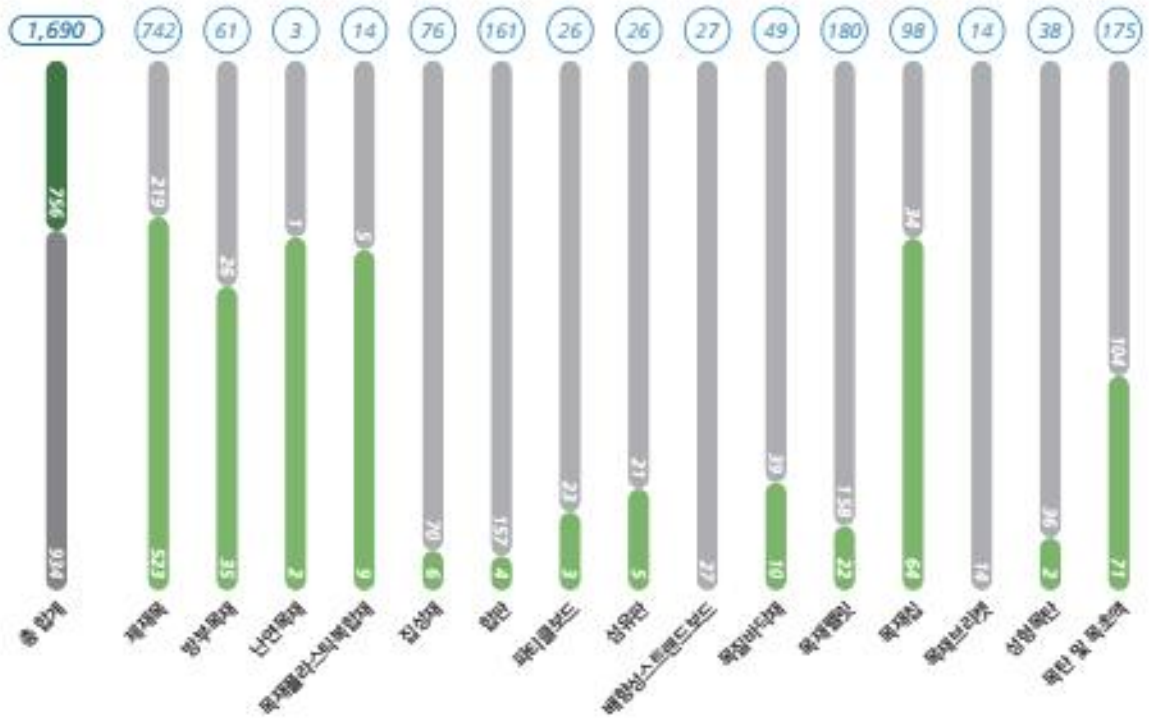
· '-' : 조사했으나 정보가 없는 경우

· '0' : 조사 결과치가 0이거나 0에 근사한 경우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현황_ 품목 기준

생산업체 수입업체 합계(개)

* 업체간 중복 포함(1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품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로 각각 카운트 함
* 생산과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 생산 및 수입업체로 각각 카운트 함



목재제품 생산업체 현황

전체 종사자 매출액 평균(억 원) 종사자 평균(명)

* 설문에 응답한 회사만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임, 전체산업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재브리켓은 국내 생산업이 없어 제외함



2017년 원자재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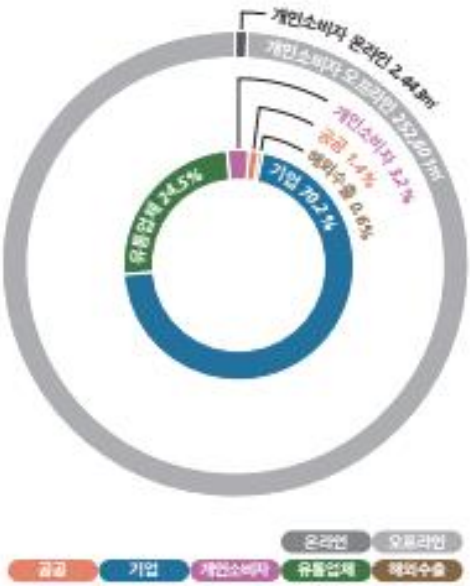
*배합심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은 국내 생산량이 없어 제외함



목재제품 생산량 현황



목재제품 소비처 및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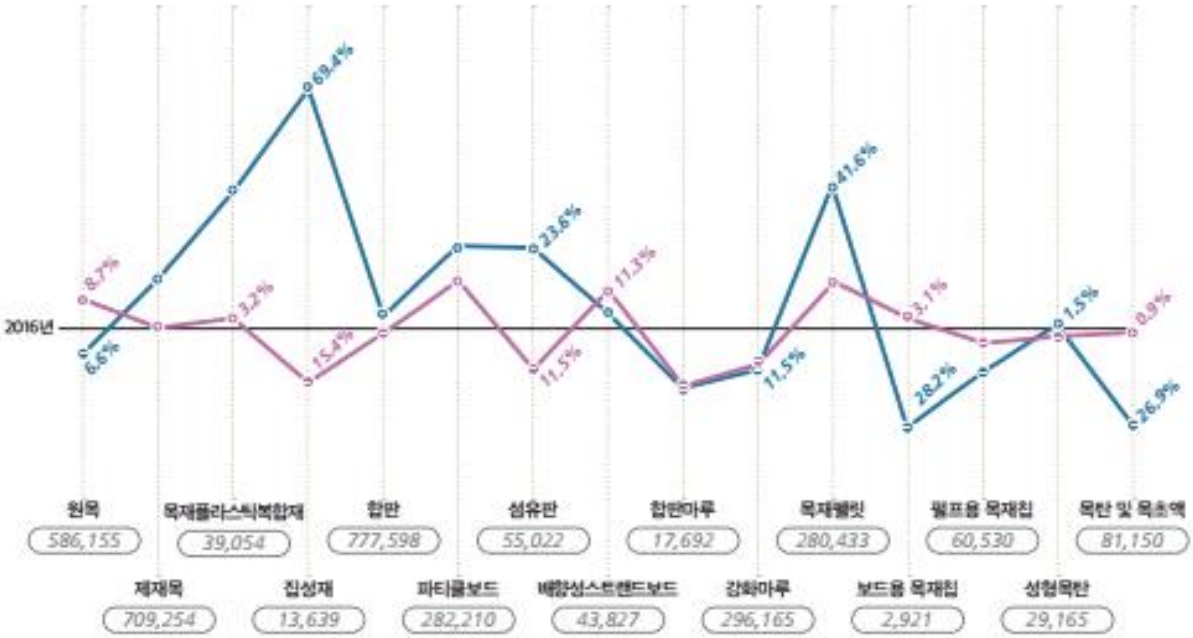


* 배합성스트랜드보드(OSB), 목재브리켓은 국내 생산량이 없어 제외함

목재제품 수입금액 추이

2017년 수입금액 (천톤) ●-●- 수입단가 2016년 대비 증감 ●-●- 수입물량 2016년 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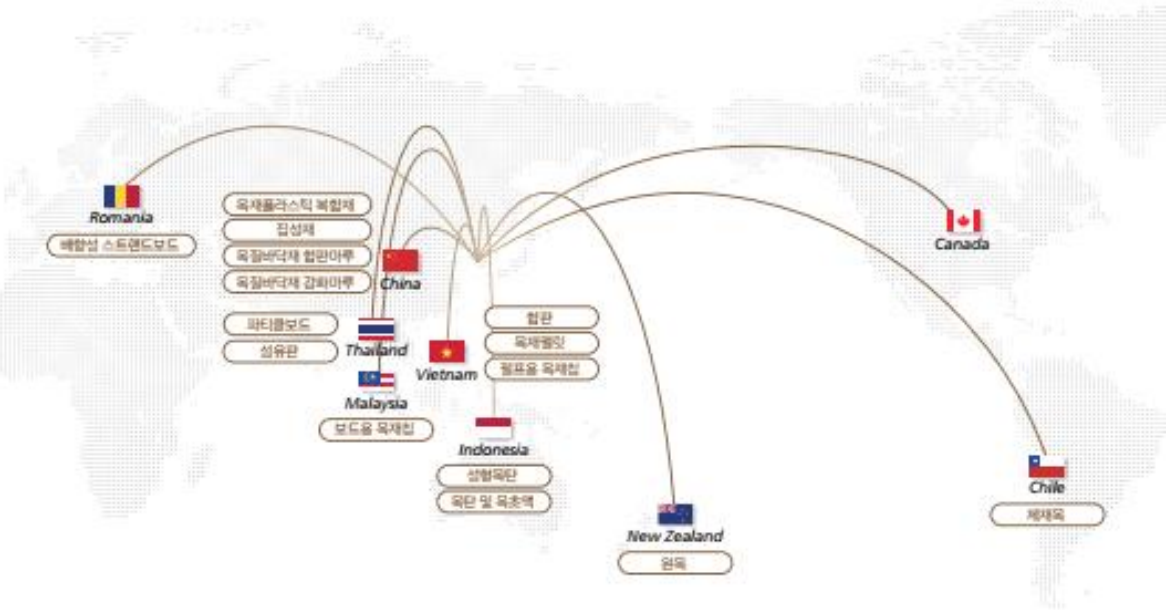
* 수입현황은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 합판보드협회 통계 및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에서 발췌



목재제품 국가별 수입물량_ 2017년 기준

* 수입현황은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 합판보드협회 통계 및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에서 발췌함
* 합판목재의 난연목재는 HS코드 분류가 불명확함. 목재브리핑의 경우 수입물량 없었음

국가별 1순위 품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수입물량



【목 차】

제1장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 개요 ····· 3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조사설계 ····· 4

1. 조사대상 ····· 4

2. 조사방법 ····· 6

제3절 목재제품 시장조사 개요 ····· 12

1. 목재제품 정의 및 종류 ····· 12

2. 목재제품 분류 코드 ····· 15

3. 목재제품 관련 제도 ····· 17

제2장 목재제품 생산 현황 ····· 21

제1절 목재제품 생산업체 현황 ····· 21

1. 목재제품 생산업체 분포 ····· 21

2. 목재제품 생산업체 일반현황 ····· 22

3. 목재제품 생산업체 종사자 현황 ····· 25

제2절 목재제품 생산업체 매출 및 생산 현황 ····· 27

1. 목재제품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27

2. 목재제품 생산업체 생산현황 ····· 36

3. 목재제품 생산형태 ····· 53

4. 목재제품 생산업체 설비 및 생산능력 ····· 62

5. 주요 목재제품 판매가격 ····· 81

제3절 목재제품 생산업체 원재료 이용 현황 ····· 84

제3장 목재제품의 유통 및 수출입 현황 ····· 97

제1절 목재제품 유통구조 ····· 97

1. 목재제품 유통경로 ····· 97

2. 목재제품 유통채널별 판매현황 ····· 112

제2절 목재제품 수출 현황 ····· 114

제3절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 현황 ····· 119

1.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 분포 및 일반현황 ····· 119

2.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 종사자 현황 ····· 123

제4절 목재제품 수입업체 매출 및 수입현황 ····· 125

1.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 매출액 현황 ····· 125
2. 목재제품별 수입량 및 수입액 ····· 126
3. 목재제품 용도별 수입 유통량 ····· 156

제4장 목재분야 지원제도 및 품질관리 현황 ····· 177
제1절 목재분야 장비현대화 지원 효과 분석 ····· 177
제2절 목재산업육성 방안 ····· 181
제3절 목재분야 규격품질표시 현황 ····· 187
1. 생산업체 규격·품질표시 인지 및 품질표시량 ····· 187
2. 수입업체 규격·품질표시 인지 및 품질표시량 ····· 188
3. 품질표시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 ····· 189
제4절 목재분야 인증 취득 현황 분석 ····· 191
1. 목재제품 인증제품 보유 현황 ····· 191
2. 목재제품 수입 시 확인 서류 ····· 196
제5절 목재생산업 등록 및 법정교육 이수 현황 ····· 197
제6절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 198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지도 ····· 198
2.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의한 영향력 인식 ····· 199
3.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관련 제안사항 ····· 201
4.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로 인한 수입 형태 변화 ····· 202

제5장 제지산업 현황 ····· 207
제1절 제지산업 현황 ····· 207
제2절 제지산업 생산량 및 소비량 ····· 208
제3절 제지산업 원재료 사용 현황 ····· 210

제6장 업체 의견 및 제언 ····· 213
제1절 조사의 한계점 및 제언사항 ····· 213
제2절 목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 214
1. 생산업체 ····· 214
2. 수입업체 ····· 218

【표 목차】

<표 1> 조사대상 선별 원칙 ····· 5
<표 1> 목재제품 업체 모집단 현황(업체 기준) ····· 7
<표 2> 목재제품 업체 현황(품목 기준) ····· 8
<표 3> 공통 조사 내용 ····· 9
<표 4> 조사 응답률 ····· 11
<표 5> 제품별 수입가격 및 물량 조사 분류 기준(HS코드) ····· 16
<표 6> 목재제품 분류 코드 ····· 17
<표 7> 목재제품 생산업체 지역별 현황(사업체 기준) ····· 21
<표 8> 목재제품 품목별 생산업체 현황(품목 기준) ····· 22
<표 9> 품목별 대표자 성별 및 연령 분포 ····· 23
<표 10> 생산업체 회사형태 ····· 23
<표 11> 품목별 회사 설립현황 ····· 24
<표 12> 목재제품 품목별 종사자 수 ····· 25
<표 13> 목재제품 생산업체 종사자 현황 ····· 26
<표 14> 목재제품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27
<표 15> 목재제품 생산업체 매출액 분포 ····· 28
<표 16> 제재목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29
<표 17> 방부목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29
<표 18> 난연목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0
<표 19>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0
<표 20> 집성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1
<표 21> 합판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1
<표 22>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2
<표 23> 섬유판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2
<표 24>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3
<표 25> 목재펠릿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3
<표 26> 목재칩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4
<표 27> 성형목탄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4
<표 28>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35
<표 29> 목재제품 생산량 현황 ····· 36
<표 30> 용도별 제재목 생산량 ····· 37
<표 31> 제재목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 37

<표 32> 용도별 방부목재 생산량 ····· 38
<표 33> 방부목재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 38
<표 34> 방부약제별 방부목 생산비중 ····· 39
<표 35> 환경 등급별 방부목 생산량 ····· 39
<표 36> 용도별 난연목재 생산량 ····· 40
<표 37> 용도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량 ····· 40
<표 38> 용도별 집성재 생산량 ····· 41
<표 39> 용도별 합판 생산량 ····· 42
<표 40> 합판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 42
<표 4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합판 생산량 ····· 43
<표 42> 접착성 등급별 합판 생산량 ····· 43
<표 43> 용도별 파티클보드 생산량 ····· 44
<표 44> 파티클보드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 44
<표 45>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파티클보드 생산량 ····· 45
<표 46> 휨강도 등급별 파티클보드 생산량 ····· 45
<표 47> 용도별 섬유판 생산량 ····· 46
<표 48> 섬유판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 46
<표 49>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섬유판 생산량 ····· 47
<표 50> 밀도 및 휨강도 등급별 섬유판 생산량 ····· 47
<표 51> 용도별 목질바닥재 생산량 ····· 48
<표 52> 목질바닥재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 48
<표 53> 용도별 목재펠릿 생산량 ····· 49
<표 54> 목재펠릿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 49
<표 55> 용도별 목재칩 생산량 ····· 50
<표 56> 목재칩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 50
<표 57> 용도별 성형목탄 생산량 ····· 51
<표 58> 용도별 목탄 및 목초액 생산량 ····· 52
<표 59> 제재목 생산업체 사업유형 ····· 53
<표 60> 방부목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 54
<표 61> 난연목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 55
<표 62>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 55
<표 63> 집성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 56
<표 64> 합판 생산업체 사업유형 ····· 57
<표 65>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사업유형 ····· 57

<표 66> 섬유판 생산업체 사업유형 ····· 58
<표 67>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 59
<표 68> 목재펠릿 생산업체 사업유형 ····· 60
<표 69> 목재칩 생산업체 사업유형 ····· 60
<표 70> 성형목탄 생산업체 사업유형 ····· 61
<표 71>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사업유형 ····· 61
<표 72> 목재제품 생산업체 생산능력 ····· 62
<표 73> 제재목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3
<표 74> 방부목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3
<표 75> 난연목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4
<표 76>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4
<표 77> 집성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5
<표 78> 합판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5
<표 79>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6
<표 80> 섬유판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6
<표 81>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7
<표 82> 목재펠릿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8
<표 83> 목재칩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9
<표 84> 성형목탄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69
<표 85>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 70
<표 86> 제재목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1
<표 87> 건조기 보유 현황(제재목) ····· 71
<표 88> 방부목재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2
<표 89> 방부목재 건조기 건조방식 ····· 72
<표 90> 난연목재 생산업체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3
<표 91> 난연목재 생산업체 건조기 건조방식 ····· 73
<표 92>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4
<표 93>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건조기 건조방식 ····· 74
<표 94> 집성재 생산업체의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5
<표 95> 집성재 건조기 건조방식 ····· 75
<표 96> 합판 생산업체의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6
<표 97>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의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6
<표 98> 섬유판 보유설비 현황 ····· 77
<표 99> 목질바닥재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7

<표 100> 목재펠릿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8
<표 101> 목재펠릿 건조기 건조방식 ····· 78
<표 102> 목재칩 주요 보유설비 현황 ····· 79
<표 103> 목재칩 건조기 연료 형태 ····· 79
<표 104> 성형목탄 주요 보유설비 현황 ····· 80
<표 105> 성형목탄 건조기 연료 형태 ····· 80
<표 106> 목탄 및 목초액 주요 보유설비 현황 ····· 80
<표 107> 제재목 판매가격 추이 ····· 81
<표 108> 방부목재 판매가격 추이 ····· 81
<표 109> 합판 판매가격 추이 ····· 82
<표 110> 파티클보드 판매가격 추이 ····· 82
<표 111> 섬유판 판매가격 추이 ····· 83
<표 112> 목재제품 원자재 사용량(원목비중) ····· 84
<표 113> 목재제품 주요 원자재 사용 현황 ····· 85
<표 114> 제재목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86
<표 115> 방부목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86
<표 116> 난연목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87
<표 117>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87
<표 118> 집성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88
<표 119> 합판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88
<표 120>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89
<표 121> 섬유판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89
<표 122>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1/2) ····· 90
<표 123>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2/2) ····· 91
<표 124> 목재펠릿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92
<표 125> 목재칩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93
<표 126> 성형목탄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94
<표 127>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 94
<표 128>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제재목 ····· 98
<표 129>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방부목재 ····· 99
<표 130>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난연목재 ····· 100
<표 131>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재플라스틱복합재 ····· 101
<표 132>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집성재 ····· 102
<표 133>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합판 ····· 103

<표 134>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파티클보드 ····· 104
<표 135>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섬유판 ····· 105
<표 136>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질바닥재 ····· 106
<표 137>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재펠릿 ····· 107
<표 138>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재칩 ····· 108
<표 139>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성형목탄 ····· 109
<표 140>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탄 및 목초액 ····· 111
<표 141>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채널별 판매 현황 ····· 112
<표 142> 수입 목재제품 유통 채널별 판매현황 ····· 113
<표 143> 제재목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4
<표 14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4
<표 145> 집성재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5
<표 146> 합판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5
<표 147> 파티클보드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6
<표 148> 섬유판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6
<표 149> 목질바닥재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7
<표 150> 목재칩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7
<표 151> 성형목탄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8
<표 152> 목탄 및 목초액 수출국가 및 수출량 ····· 118
<표 153> 수입·유통 업체 지역별 분포(사업체 기준) ····· 119
<표 154> 수입·유통 업체 지역별 분포(품목 기준) ····· 119
<표 155> 품목별 수입업체 수 ····· 120
<표 156> 수입·유통 업체 일반 현황 ····· 121
<표 157> 수입·유통업체 가공시설 설치 여부 ····· 122
<표 158> 수입 품목별 수입·유통업 종사자 현황 ····· 123
<표 159> 수입·유통 업체 대표자 일반 현황 ····· 124
<표 160> 수입·유통 업체 매출액 현황 ····· 125
<표 161> 목재제품 수입물량 및 금액 추이(2017년) ····· 126
<표 162> 목재제품 수입물량 및 금액 추이 ····· 127
<표 163> 품목별 주요 수입국(2017년 기준) ····· 129
<표 164> 제재목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30
<표 165> 국가별 제재목 수입물량 ····· 130
<표 166>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32
<표 167> 국가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물량 ····· 133

<표 168> 집성재(집성판 포함)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34
<표 169> 국가별 집성재 수입물량 ····· 135
<표 170> 합판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36
<표 171> 국가별 합판 수입물량 ····· 137
<표 172> 파티클보드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38
<표 173> 국가별 파티클보드 수입물량 ····· 139
<표 174> 섬유판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40
<표 175> 국가별 섬유판 수입물량 ····· 141
<표 176>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42
<표 177> 국가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물량 ····· 142
<표 178> 목질바닥재(합판마루)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43
<표 179> 국가별 목질바닥재(합판마루) 수입물량 ····· 144
<표 180> 목질바닥재(강화마루)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45
<표 181> 국가별 목질바닥재(강화마루) 수입물량 ····· 145
<표 182> 목재펠릿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46
<표 183> 국가별 목재펠릿 수입물량 ····· 147
<표 184> 목재칩(펄프용)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48
<표 185> 국가별 목재칩(펄프용) 수입물량 ····· 148
<표 186> 목재칩(보드용)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49
<표 187> 국가별 목재칩(보드용) 수입물량 ····· 150
<표 188> 목재브리켓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51
<표 189> 국가별 목재브리켓 수입물량 ····· 151
<표 190> 성형목탄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52
<표 191> 국가별 성형목탄 수입물량 ····· 153
<표 192> 목탄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 154
<표 193> 국가별 목탄 수입물량 ····· 154
<표 194> 용도별 제재목 수입유통량(1/2) ····· 156
<표 195> 용도별 제재목 수입유통량(2/2) ····· 157
<표 196> 용도별 방부목재 수입유통량(1/2) ····· 158
<표 197> 용도별 방부목재 수입유통량(2/2) ····· 158
<표 198> 방부목재의 등급별 판매 비중 ····· 159
<표 199> 용도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유통량(1/2) ····· 160
<표 200> 용도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유통량(2/2) ····· 160
<표 201> 용도별 집성재 수입유통량(1/2) ····· 161

<표 202> 용도별 집성재 수입유통량(2/2) ····· 161
<표 203> 용도별 합판 수입유통량(1/2) ····· 162
<표 204> 용도별 합판 수입유통량(2/2) ····· 163
<표 205>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합판 판매 비중 ····· 163
<표 206> 용도별 파티클보드 수입유통량(1/2) ····· 164
<표 207> 용도별 파티클보드 수입유통량(2/2) ····· 164
<표 208>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파티클보드 판매 비중 ····· 164
<표 209> 용도별 섬유판 수입유통량(1/2) ····· 165
<표 210> 용도별 섬유판 수입유통량(2/2) ····· 165
<표 21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섬유판 판매 비중 ····· 166
<표 212> 용도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유통량(1/2) ····· 166
<표 213> 용도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유통량(2/2) ····· 167
<표 214> 용도별 목질바닥재 수입유통량(1/2) ····· 168
<표 215> 용도별 목질바닥재 수입유통량(2/2) ····· 168
<표 216> 용도별 목재펠릿 수입유통량(1/2) ····· 169
<표 217> 용도별 목재펠릿 수입유통량(2/2) ····· 169
<표 218> 등급별 목재펠릿 판매 비중 ····· 170
<표 219> 용도별 목재칩 수입유통량(1/2) ····· 170
<표 220> 용도별 목재칩 수입유통량(2/2) ····· 171
<표 221> 용도별 목재브리켓 수입유통량(1/2) ····· 171
<표 222> 용도별 목재브리켓 수입유통량(2/2) ····· 172
<표 223> 등급별 목재브리켓 판매 비중 ····· 172
<표 224> 용도별 성형목탄 수입유통량(1/2) ····· 173
<표 225> 용도별 성형목탄 수입유통량(2/2) ····· 173
<표 226> 용도별 목탄 수입유통량(1/2) ····· 174
<표 227> 용도별 목탄 수입유통량(2/2) ····· 174
<표 228> 현대화 사업으로 도입 희망 장비_제재목 ····· 178
<표 229> 현대화 사업으로 도입 희망 장비_방부목재 ····· 179
<표 230> 시설 증설 의향 여부 ····· 181
<표 231>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1 ····· 182
<표 232>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2 ····· 182
<표 233>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3 ····· 183
<표 234>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4 ····· 183
<표 235> 산림청 정책자금 이용 경험 여부 ····· 184

<표 236> 산림청 정책자금 제도 만족도 ····· 185
<표 237> 산림청 정책자금 이용 경험 여부(1/2) ····· 186
<표 238> 산림청 정책자금 이용 경험 여부(2/2) ····· 186
<표 239> 생산업체 규격·품질표시 인지 및 품질표시량 ····· 187
<표 240> 수입업체 규격·품질표시 인지 및 품질표시량 ····· 188
<표 241> 품질표시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생산업체 의견) ····· 189
<표 242> 품질 표시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수입업체 의견) ····· 190
<표 243>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제재목 ····· 191
<표 244>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방부목재 ····· 191
<표 245>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난연목재 ····· 192
<표 246>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목재플라스틱복합재 ····· 192
<표 247>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집성재 ····· 192
<표 248>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합판 ····· 193
<표 249>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파티클보드 ····· 193
<표 250>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섬유판 ····· 193
<표 251>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목질바닥재 ····· 194
<표 252>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목재펠릿 ····· 194
<표 253>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목탄 ····· 194
<표 254> 해외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 및 수입형태 ····· 195
<표 255> 목재제품 수입 시 확인 서류 ····· 196
<표 256> 법정교육 이수 현황 ····· 197
<표 257>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지도 ····· 198
<표 258>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의한 영향력 인식 ····· 200
<표 259>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대한 제안사항 ····· 201
<표 260>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인한 수입형태 변화 ····· 203
<표 261> 제지업 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업체 현황(2017년) ····· 207
<표 262> 제지업 분류에 따른 생산량 ····· 208
<표 263> 제지업 분류에 따른 소비량 ····· 208
<표 264> 제지업 분류에 따른 수출량 ····· 209
<표 265> 제지업 분류에 따른 수출비중 ····· 209
<표 266> 제지업 분류에 따른 수입량 ····· 209
<표 267> 제지 원재료 사용량 ····· 210
<표 268> 제지 원재료 사용 비중 ····· 210
<표 269>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1/2)-제재목 ····· 214

<표 270>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2/2)-제재목 ····· 215
<표 271>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방부목재 ····· 215
<표 272>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재펠릿 ····· 216
<표 273>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재칩 ····· 216
<표 274>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탄 및 목초액 ····· 217
<표 275>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제재목 ····· 218
<표 276>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집성재 ····· 219
<표 277>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합판 ····· 219
<표 278>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재펠릿 ····· 220
<표 279>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성형목탄 ····· 221
<표 280>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탄 및 목초액 ····· 221

【그림 목차】

[그림 1] 제재목 유통경로 ····· 97
[그림 2] 방부목재 유통경로 ····· 99
[그림 3] 난연목재 유통경로 ····· 100
[그림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유통경로 ····· 101
[그림 5] 집성재 유통경로 ····· 102
[그림 6] 합판 유통경로 ····· 103
[그림 7] 파티클보드 유통경로 ····· 104
[그림 8] 섬유판 유통경로 ····· 105
[그림 9] 목질바닥재 유통경로 ····· 106
[그림 10] 목재펠릿 유통경로 ····· 107
[그림 11] 목재칩 유통경로 ····· 108
[그림 12] 성형목탄 유통경로 ····· 109
[그림 13] 목탄 및 목초액 유통경로 ····· 110
[그림 14] 국가별 목재제품 수입량(2017년 기준) ····· 128
[그림 15] 제재목 현대화사업 지원 성과 ····· 177
[그림 16]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제재목) ····· 178
[그림 17] 방부목재 현대화사업 지원 성과 ····· 179
[그림 18]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방부목재) ····· 180
[그림 19]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지도 ····· 198
[그림 20]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의한 영향력 인식 ····· 199
[그림 2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인한 수입형태 변화 ····· 202

제1장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 개요

제1장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 개요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이 주목받고 있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과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기존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국산 원목의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목재제품에 대한 생산 및 수입·유통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목재라는 천연재료에 기반을 둔 목재산업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주변 환경 변화가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원재료 공급, 제품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목재시장의 전반적인 기초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생산 및 유통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 2012년 5월 23일 제정된 (법률 제11429호) 이후 2013년 5월 24일부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및 품질인증이 시행됨.

□ 이에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목재제품 생산량 및 유통량,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각 업체들의 품질표시 및 인증제도,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산업체 의견과 업계 동향 등을 조사하고, 목재이용 종합계획 및 목재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목재이용 현황 조사를 2014년부터 실시함.

□ 2018년에는 5년차 조사로써, 2014년부터 구축한 목재제품의 수입·생산·유통의 자료를 시계열로 구축하고,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목재분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적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목재산업체의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재이용 종합계획 수립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및 제도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제2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

□ 본 조사는 「목재이용법」 8조에 의한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한 통계 및 실태조사로 2014년부터 5년차 조사에 해당됨.

□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집성판 포함),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목질바닥재는 합판마루, 강화마루 등으로, 목재칩은 연료용 목재칩, 펄프용 목재칩, 보드용 목재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는 대부분 목탄을 탄화하면서 발생되는 증기로 목초액이 생산되기 때문에 목탄 및 목초액을 동시에 조사였으며, 생산량 등 구분이 명확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목탄과 목초액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조사대상 업체는 15개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직접 수입업체로 제한함.

- 도소매 유통업체는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통물량이 중복되는 등 현실적인 조사한계를 가지고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생산은 제조시설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하였으며.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직접수입 또는 오퍼를 통해 수입하는 회사로 한정함
- 한 회사가 2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는 경우 생산 및 수입량 등 수치에 관한 문항을 제품별로 각각 조사하였으며, 의견 등에 관한 문항은 취급하는 물량이 많은 제품 기준으로 분석함.
- 한편, 생산과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는 생산 및 수입량을 함께 조사함.

<표 1> 조사대상 선별 원칙

구 분	생산업체	수입업체
제재목	■ 제조업체는 제재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건조제재목을 수입한 업체에 한함
방부목재	■ 제조업체는 방부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임가공 업체는 방부용 제재목을 수입해 제조업체에 임가공하거나 오퍼를 통해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난연목재	■ 제조업체는 난연목재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난연목재를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목재플라스틱복합재 (WPC)	■ 제조업체는 WPC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WPC를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집성재(집성판 포함)	■ 제조업체는 집성재(집성판 포함)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집성재(집성판 포함)를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합판	■ 제조업체는 합판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합판을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파티클보드(PB)	■ 제조업체는 파티클보드(PB)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파티클보드(PB)를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섬유판(MDF)	■ 제조업체는 섬유판(MDF)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섬유판(MDF)을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배향성스트랜드보드 (OSB)	■ 제조업체는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를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목질바닥재(마루판)	■ 제조업체는 마루판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마루판을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목재펠릿	■ 제조업체는 목재펠릿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 함	■ 수입업체는 목재펠릿을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 함
목재칩	■ 제조업체는 목재칩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목재칩을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목재브리켓	■ 제조업체는 목재브리켓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목재브리켓을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성형목탄	■ 제조업체는 성형목탄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성형목탄을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목탄 및 목초액	■ 제조업체는 목탄 및 목초액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함	■ 수입업체는 목탄 및 목초액을 직접 수입한 업체에 한함

2. 조사방법

가. 조사 모집단

□ 모집단은 「목재이용법」에 의해, 각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신고)한 목재 생산 및 수입 업체 중 앞에서 정의한 15개 제품에 해당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하지만, 지자체 등록 목재제품 업체는 본 조사에서 구분하는 15개 제품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1종(제재목), 2종(합판·보드류), 3종(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집성판 포함), WPC), 4종A(목재펠릿, 목재칩), 4종B(목탄)으로 구분되어 있음.
- 또한, 등록(신고)한 업체 모두가 생산 및 수입을 영위하지 않고, 지자체에 등록 및 신고 처리만 해둔 업체들이 존재
- 따라서 본 조사의 모집단은 등록 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15개 제품을 수입 및 생산하는 업체 중 2017년 말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조사 모집단을 정확히 구축하기 위해서 2017년에 수행한 「생산·수입·유통 목재제품의 시장분석(2016년 기준)」 리스트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지난 5년간 누적된 업체와 협회 회원사를 포함하여 전체 모집단을 구성함.

- 전체 모집단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15개 목재제품 중 어떤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모집단을 보다 정교화하고 모집단 확인 과정에서 휴폐업 업체는 제외하였고 신규[1] 설립된 업체는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최종 모집단은 2017년 기준 생산 및 수입량이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비수신 한 업체의 경우는 모집단에 포함시켜 향후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였음.

- 2017년 기준 실적이 없거나 휴폐업 업체, 2차 가공 및 단순 유통 업체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수입유통업에 등록하여 2017년 단순 원목만 수입한 업체 160개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조사 시점 당시 폐업정리 중이거나 휴폐업한 업체는 192개였음.

1) 2017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한 업체 기준 신규로 설립된 업체는 총 10개(수입업체 7개, 생산업체 3개)로 실제 2017년 기준 목재생산업 및 수입유통업에 등록한 업체보다 적을 수 있음. 이는 2017년 이전 등록을 하였다가 2017년 재등록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변경됨으로써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임. (2017년 12월 목재생산업에 등록한 사업체는 1,460개, 수입유통업에 등록한 사업체는 1,315개였으며, 이 중 2017년 목재생산업에 등록한 업체는 각각 166개, 290개였음)

<표 1> 목재제품 업체 모집단 현황(업체 기준)

단위 : 개

구 분	사전조사 결과 최초 모집단(가)	제외(나)			2017년 모집단 (가)-(나)
		휴폐업	대상아님	장기부재	
제재목	787	84	180	0	523
방부목재	76	9	32	0	35
난연목재	6	0	4	0	2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19	1	8	1	9
집성재	21	4	11	0	6
합판	5	0	1	0	4
파티클보드	3	0	0	0	3
섬유판	6	1	0	0	5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1	0	1	0	0
목질바닥재	27	1	15	1	10
목재펠릿	45	3	20	0	22
목재칩	106	8	34	0	64
목재브리켓	2	0	2	0	0
성형목탄	10	0	8	0	2
목탄 및 목초액	115	9	35	0	71
수입·유통업체	1,405	72	492	140	701
합 계	2,634	192	843	142	1,457

※ 휴폐업 : 휴업 및 폐업 업체

※ 대상아님 : 목재생산업·수입유통업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목재 사업을 안해 실적이 없는 업체, 단순 2차 가공 및 유통 업체 등

※ 장기부재 : 결번 및 장기부재로 조사가 어려워 존속 여부 확인이 어려운 업체

<표 2> 목재제품 업체 현황(품목 기준)

단위 : 개

구 분	합계	생산업체	수입업체
제재목	742	523	219
방부목재	61	35	26
난연목재	3	2	1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14	9	5
집성재	76	6	70
합판	161	4	157
파티클보드	26	3	23
섬유판	26	5	21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27	-	27
목질바닥재	49	10	39
목재펠릿	180	22	158
목재칩	98	64	34
목재브리켓	14	-	14
성형목탄	38	2	36
목탄 및 목초액	175	71	104
합 계	1,690	756	934

나. 조사내용

□ 생산업체 대상 조사는 시설 및 원자재 종류가 상이하여 품목별로 별도의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수입업체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향이 있어 통합 설문을 구성하여 설계

- 설문 문항은 일반현황, 생산 및 수입, 유통경로 및 판매가격(생산업체), 수입현황(수입업체), 규격 및 품질표시 현황, 인증 및 교육, 고용 및 업계현황, 목재산업육성방안, 현대화사업 현황 등으로 구성
- 수입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부분은 HS코드 기준으로 임산물 수출입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격동향 부분은 물가협회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달물품 현황은 조달청 계약현황 자료를 활용

<표 3> 공통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1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본사, 사업장), 홈페이지, 회사 형태, 총매출액(16년, 17년), 품목 매출액(16년, 17년)	
2	생산 및 수입	생산업체	주요설비, 생산량 및 가동일 수, 수출국가 및 수출량, 원자재 사용량, 임목부산물 사용량, 수종별 사용량, 용도별 생산량, 주 용도별 규격·수종·판매가격, 유통경로 비중, 합판보드류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방부목재 : 방부약제, 등급	
		수입업체	원목 및 목재제품 용도별 수입량·국내조달 물량(수입재, 국산재)·판매량, 품질표시량, 수출국가 및 수출량, 품목별 수입규격·수종·판매가격·등급, 유통경로 비중, 합판보드류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주요 수입국가	
3	유통경로 및 판매가격(생산업체)		주요 규격별 판매가격	2차 자료 활용
4	수입현황(수입업체)		원목 및 목재제품 수입국가, 수입량, 수입금액	2차 자료 활용
5	규격 및 품질표시 현황		「목재이용법」에 따른 품질표시량	
6	인증 및 교육	생산업체	취득한 인증 및 생산량, 목재생산업 등록 및 교육이수 현황	
		수입업체	수입할 때 확인하는 서류, 해외인증 현황, 해외인증 받은 품목·제품형태·수입형태·수입국가·판매량, 국내 목재제품 품질인증 취급여부, 취급 의향	
7	고용 및 업계 현황		2017년 말 기준/현재 기준 직원수, 제품 기준 직원수, 부족 인원 고용계획, 업계별 경기 현황 및 전망	
8	목재산업육성방안		목재생산시설 증설 의향,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 산림청 현대화 자금 이용 경험, 산림청 지원 자금 제도 만족도, 불만족 이유, 산림청 지원 자금 미이용 이유	
9	현대화사업 현황		지원 유무, 도입 장비, 생산 및 매출 증가, 지원 희망, 도입하고 싶은 장비, 현대화사업 미희망 이유	
10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제도 인지 여부, 제도 시행 시 영향력, 제도 관련 제안사항, 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입 불가 시 대응방안	

다. 조사수행 및 응답률

□ 모집단 구축 단계에서 조사 대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때, 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방문 일정을 확인하여 전문 조사요원이 방문조사를 실시

- 업체 요청 시 전화 및 팩스 조사를 병행
- 업체 일반현황, 생산 및 수입 현황, 유통경로 및 판매가격, 품질표시 및 인증, 시장동향 및 건의사항에 등에 대해 업체에 직접 확인
- 수입량 및 수입금액, 주요 규격별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별 결과를 보완
-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조사 데이터는 연구원이 직접 데이터를 검증함으로써 오류를 발견하고, 발견된 오류 및 누락 부분에 대해 전화조사로 내용을 보완 실시

□ 본 조사 설문 응답률은 종합 77.5%로 2016년 실시한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 응답률(94.6%)보다 감소하였지만, 이는 전년도 수입업체에 대한 모집단 정비 시 실적이 없거나 장기 부재/결번인 업체의 경우 조사 모집단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임. 2018년의 경우 해당 업체들도 전체 모집단 내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외시키지 않고 회수율을 집계하였기에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로 보이나, 전체 응답 업체 회수 부수는 전년 대비 증가함.

- 생산업체 응답률은 94.0%로 방부목재 및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목재펠릿과 목재칩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목별 대표업체를 모두 조사함으로 전체 생산물량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음.
- 수입·유통 업체는 품목별 대표업체가 뚜렷하지 않아 전체 물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HS코드 기준으로 수입물량을 수집·가공함.

<표 4> 조사 응답률

단위 : 개, %

구 분		모집단	응답	응답률
생산	제재목	523	502	96.0
	방부목재	35	26	74.3
	난연목재	2	2	100.0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9	6	66.7
	집성재	6	6	100.0
	합판	4	4	100.0
	파티클보드	3	3	100.0
	섬유판	5	5	100.0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	-	-
	목질바닥재	10	10	100.0
	목재펠릿	22	19	86.4
	목재칩	64	55	85.9
	목재브리켓	-	-	-
	성형목탄	2	2	100.0
	목탄·목초액	71	71	100.0
	생산 업체 소계(품목기준)	**756**	**711**	**94.0**
수입	수입 업체 소계(업체기준)	**701**	**418**	**59.6**
합 계(생산+수입)		**1,457**	**1,129**	**77.5**

라. 조사 및 공표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조사 기간은 2018년 7월 1일 ~ 9월 30일로 3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자료, 합판보드협회 통계 자료 및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 조달청 거래 자료 등 2차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매 해마다 결과를 공표함

제3절 목재제품 시장조사 개요

1. 목재제품 정의 및 종류

□ 본 조사는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집성판 포함),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을 대상으로 함.

– 다만, 목질바닥재는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목재칩은 연료용 목재칩, 펄프용 목재칩, 보드용 목재칩으로 구분함.

(1) 제재목(製材木)

: 원주재를 포함하여 길이를 따라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한 목재

• 제재목은 형태에 따라 판재, 각재, 원주재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수장용재, 구조용재(규격구조재, 보구조재, 기둥구조재), 일반용재로 구분

(2) 방부목재(防腐木材)

: 생물열화인자에 의한 목재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보존제로 처리한 목재

(3) 난연목재(難燃木材)

: 연소율을 감소시키거나 착화를 늦추기 위한 물질로 처리한 목재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Wood Plastic Composite)

: 열가소성 수지에 목분(중량기준으로 50% 이상)을 혼합하고, 첨가제를 첨가, 압출성형하여 가공한 제품

(5) 집성재(集成材)

: 층재를 섬유방향으로 평행하게 접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 용도에 따라 구조용집성재, 수장용집성재, 집성판으로 구분

(6) 합판

: 로터리레이스 또는 슬라이서에 의해 절삭된 단판(중판에는 소각재를 포함)으로 3매 이상 구성되고,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접착한 판상제품

• 보통합판, 콘크리트거푸집용합판, 구조용합판, 표면가공합판으로 구분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목재의 작은 조각을 주원료로 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형·열압한 밀도 0.5 g/㎤ 이상 0.8 g/㎤ 이하의 판상제품

- 표면·이면상태, 휨강도, 접착제,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난연성에 따라 구분

(8) 섬유판(纖維板, Fiberboard)

: 목재원료를 섬유상으로 해섬하여 접착제를 사용한 후, 건식방법으로 성형·열압한 판상 제품

- 밀도, 용도, 표면 상태, 난연성, 휨강도, 접착제,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및 난연성에 따라 구분

(9)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 얇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 층으로 구성된 목질판상제품

(10) 목질바닥재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표면에 천연무늬목,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및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기재의 표면을 천연 무늬목으로 치장한 마루판으로 주로 합판을 소판으로 하고 그 위에 천연 무늬목으로 접착시킨 '온돌마루', '원목마루' 제품군이 천연 무늬목 마루판에 해당됨.
- 치장 목질 마루판,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및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기재의 표면을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
  - 치장 목질 마루판은 합판을 소판으로 하고 그 위에 HPL(High Pressure Laminate, 고압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붙인 제품 또는 합판 소판 위에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을 붙인 제품 등이 있으며 '강마루' 제품군에 해당됨.[2)]
  -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은 주로 섬유판을 소판으로 하고 그 위에 LPL(Low Pressure Laminate, 저압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를 붙인 '강화마루' 제품군에 해당

(11) 목재펠릿(wood pellet)

: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2) 치장 목질 마루판은 강마루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 있을 수 있음

(12) 목재칩(wood chip)

: 연료로 사용되는 칩으로서, 연소 및 가스화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 고안된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의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함으로써 제조된 생산물을 그 형상에 따라 목재연료칩과 호그로 구분

- 목재연료칩 : 산림 사업 및 임산업에서 생산된 원목 및 산림부산물을 이용하여 디스크와 드럼식 칩퍼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일정한 형상으로 생산한 연료이며 수피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호그 : 롤러, 해머 등과 같이 분쇄면이 무딘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부정형의 목재칩으로써 목재연료칩에 비하여 너비, 길이 및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연료 형상을 취함

(1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14) 성형목탄(成型木炭)

: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 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고 성형한 것

- 톱밥성형탄 :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에 탄화한 것으로 결합제 및 착화제 등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숯가루성형탄 : 톱밥숯을 결합제와 착화제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성형한 것
- 구멍탄착화용 성형탄 : 톱밥숯을 결합제나 착화제를 혼합, 구멍탄형으로 성형하여 구멍탄 착화용으로 제조한 것
- 톱밥숯 : 목재나 대나무의 삭편, 종실, 톱밥, 대팻밥, 수피 등을 탄재로 하여 평가마 또는 기계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물 등을 사용하여 소화하거나 냉각한 것

(15.1) 목탄

: 침엽수, 활엽수 원목을 원료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임목탄, 대나무숯, 톱밥숯, 흑탄, 백탄이 있음

- 임목탄 : 침엽수, 활엽수 원목을 탄재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
- 대나무숯 : 대나무를 탄재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이나 기계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대나무 원형을 유지한 통대나무 숯이나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조각 대나무 숯 모두를 포함
- 흑탄 : 정련 후, 가마내 소화법으로 소화하여 얻은 목탄
- 백탄 : 정련 후 가마외 소화법으로 얻은 목탄

(15.2) 목초액

: 목재를 열분해하여 얻은 수성 액체. 목탄 제조 시에 발생한 연기를 식혀 나온 액체를 장기간 방치해 두면 중간층에 뜨는 황갈색의 투명액체이고, 수종과 열분해의 방법에 따라 성분이 다름

* 출처 : 목재사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 목재제품 분류 코드

□ 목재제품의 분류는 「목재이용법」과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HS)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적용범위 및 정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참고하였음

□ 목재제품별 수입가격 및 물량 추이 조사를 위해 관세청의 무역월보와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 통계를 통한 조사 및 분석

- 방부목재, 집성재(집성판 포함) 등 일부 품목은 명확한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상호비교하였음
-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4자리 코드 기준으로 일부 다른 품목이 포함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목질바닥재(마루판)의 경우 독립적인 코드가 없어 수입가격 및 물량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존재
- 본 조사 과정에서 제품별 수입가격 및 물량 자료를 획득한 출처 및 HS코드는 다음 표를 참조

<표 5> 제품별 수입가격 및 물량 조사 분류 기준(HS코드)

구 분	HS코드		비고
제재목	4407		-
방부목재	-		HS코드 없음
난연목재	-		HS코드 없음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3925.9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
집성재(집성판 포함)[3]	집성목	4418.60.0000 4418.99.9000	관세청 분류사례(집성목재판) 참고
	집성판	4412.99.4991(9)	
합판	4412		합판마루판 포함
파티클보드	4410.11		OSB 포함
섬유판	4411		강화마루판 포함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4410.12		-
목질바닥재(마루판)	합판 마루판	4412.10.2000 4412.99.1041 4412.99.4911(9) 4412.99.9911(9)	-
	강화 마루판	4411.14.4010 4411.14.9090 4411.92.9010(90) 4411.93.9010(90)	
목재펠릿	4401.31		
목재칩	펄프용	4401.22.1000	-
	보드용	4401.22.9000	
목재브리켓	4401.30.9000		브리켓 외 포함
성형목탄	4402.10.1000, 4402.90.1000		-
목탄 및 목초액	4402.10.9000, 4402.90.9000		목탄만 해당

3) 집성판의 HS코드가 과거에는 합판의 기타코드로 수입이 되었지만 관세율의 차이로 현재는 제재목 코드로 수입이 되고 있음. 품목의 다양화를 HS코드체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성재(집성판 포함) 집성판의 경우 4409 기타 HS코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수입량이 과소 계산됨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하면 목재제품 생산업체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에 해당되며 코드에 따라 색인어를 통해 산업(업종) 활동별로 분류됨

- 산업(업종) 분류시 임업은 '육림→벌목→제재→판매'까지가 해당되며, 목재제품 제조업은 '벌목→제조·가공→판매' 또는 '목재구입→제조·가공→판매'로 분류됨[4)]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는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통계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사업체 단위로 조사 실시
- 이 조사는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조사되기 때문에 목재제품 단위로 조사되는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 보고서와 통계상 수치의 차이가 있음

<표 6> 목재제품 분류 코드

코드	소분류	포함업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61	제재 및 목재 가공	■일반 제재(판재, 각재, 소할재),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인발재)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
162	나무제품	■박판, 합판, 유사 적층판, 강화 및 재생목재(파티클보드, 칩보드) ■목재문 및 관련제품,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목재 도구 및 기구,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장식용 목제품(보석상자), 기타나무제품(부채)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코르크제품,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밀짚모자, 새끼줄)

3. 목재제품 관련 제도

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서 해당 제조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 지원가능(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4) 업체활동 조사용 산업(업종) 및 국가분류표, 통계청, 2010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제도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5개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하는 제도

□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

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국가 간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교역하는 제도

□ 수입신고 변경사항 : 관세청에 세금만 납부하던 기존 절차와 달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HS code : 4401-31, 4403, 4407, 4412

□ 수입신고 시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를 검사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통관 가능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시 제출

①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ex) 인도네시아-Autorization Permit(명칭)-HPH and IUPHHK-HA(서식)

②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ex) FSC, PEFC

③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ex) 인도네시아 SVLK, V-Legal, 미국/캐나다 SFI

④ 그 외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인도네시아 FLEGT License

제2장 목재제품 생산 현황

제2장 목재제품 생산 현황

제1절 목재제품 생산업체 현황

1. 목재제품 생산업체 분포

□ 목재제품의 생산 및 수입 업체 수는 「목재이용법」에 의해, 각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신고)한 목재 생산 및 수입 업체 중 앞에서 정의한 15개 제품에 해당하는 업체와 조사과정에서 누적된 업체와 협회 회원사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 국내 목재제품 생산업체는 전국 718개로 17개 시도별로는 경기에 103개(14.3%)로 가장 많은 생산업체가 있었고, 다음으로 인천 91개(12.7%), 경남 75개(10.4%), 경북, 강원 각각 73개(10.2%), 전남 66개(9.2%) 순임.

<표 7> 목재제품 생산업체 지역별 현황(사업체 기준)

단위 : 개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1,175	7	55	15	213	7	13	24	3	178	103	77	44	103	89	101	126	17
2014	1,086	5	54	12	177	10	12	23	2	173	93	75	40	86	82	101	126	15
2015	1,045	7	50	9	164	8	10	23	1	164	90	69	44	88	83	100	118	17
2016	710	4	25	7	100	6	7	8	1	88	71	50	37	70	69	72	78	17
2017	718	3	31	7	91	6	6	8	2	103	73	56	38	64	66	73	75	16

□ 목재제품 생산업체가 718개, 수입업체가 701개이나 이 중 61개 업체는 생산과 수입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2가지 이상의 제품 취급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품목 기준으로 정리하면 생산업체는 756개, 수입업체는 934개로 합계는 1,690개임.

□ 15개 품목 중 제재목이 742개(생산 523개, 수입 219개)로 가장 많았으며, 목재펠릿 180개(생산 22개, 수입 158개)순으로 조사되었음. 2013년부터 업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년 대비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목재이용법 시행에 의한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 등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등록 이후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확인됨. 생산, 수입 모두 건설 등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되면서 영세업체의 존속이 어려워지고, 규모가 큰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와 목재브리켓은 현재 국내 생산업체 없이 수입 업체만 각각 28개, 14개임.

<표 8> 목재제품 품목별 생산업체 현황(품목 기준)

단위 : 개

구분		합계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및 목초액
2013	생산업체	1,175	790	60	1	13	15	5	3	6	–	34	19	105	–	5	119
	수입업체	722	246	33	1	4	57	129	23	27	22	61	76	15	13	12	3
	합계	1,897	1,036	93	2	17	72	134	26	33	22	95	95	120	13	17	122
2014	생산업체	1,151	809	43	–	14	13	5	3	6	–	34	22	100	–	5	97
	수입업체	697	253	10	–	4	55	126	19	18	18	42	112	12	12	8	8
	합계	1,848	1,062	53	–	18	68	131	22	24	18	76	134	112	12	13	105
2015	생산업체	1,079	781	38	2	12	8	6	3	6	–	22	21	85	–	4	91
	수입업체	513	216	9	–	3	45	107	16	14	18	34	34	1	3	7	6
	합계	1,592	997	47	2	15	53	113	19	20	18	56	55	86	3	11	97
2016	생산업체	729	512	29	2	6	8	4	3	6	–	14	18	58	–	2	67
	수입업체	602	217	16	–	2	53	125	13	17	28	28	69	1	1	12	20
	합계	1,331	729	45	2	8	61	129	16	23	28	42	87	59	1	14	87
2017	생산업체	756	523	35	2	9	6	4	3	5	–	10	22	64	–	2	71
	수입업체	925	219	26	1	5	70	157	23	21	28	39	158	24	14	36	104
	합계	1,681	742	61	3	14	76	161	26	26	28	49	180	88	14	38	175

※ 업체간 중복 포함(1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품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로 각각 카운트 함)

※ 생산과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 생산 및 수입품목으로 각각 카운트

※ 집성재는 집성판을 포함

2. 목재제품 생산업체 일반현황

□ 국내 생산업체는 대부분 남성 대표자(84.5%)로, 여성 대표자는 15.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목재펠릿(78.9%), 목재칩(78.2%)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남성 대표자 비율이 80% 이상이었음.

□ 국내 생산업체의 대표자 연령은 평균 59.0세로, 50대(35.0%)가 가장 많았음.

– 세부 연령별로는 50대(35.0%), 60대(34.8%), 70대 이상(14.6%), 40대(11.1%) 순이었으며, 20–30대 연령 층은 4% 내외로 젊은 대표자 비율이 낮았음.

<표 9> 품목별 대표자 성별 및 연령 분포

단위 : 개, 무응답 제외

품목별	전체 업체수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무응답	평균
합 계	711	601	110	3	29	78	247	245	103	6	59.0
제재목	502	425	77	3	25	54	158	181	81	–	60.7
방부목재	26	24	2	–	–	3	11	10	2	–	59.5
난연목재	2	2	–	–	–	–	1	1	–	–	61.5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5	1	–	–	1	3	–	–	2	52.8
집성재	6	6	–	–	–	–	1	2	–	3	63.7
합판	4	4	–	–	–	–	1	3	–	–	61.0
파티클보드	3	3	–	–	–	–	3	–	–	–	54.7
섬유판	5	5	–	–	–	–	2	3	–	–	59.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	–	–	–	–
목질바닥재	10	10	–	–	1	1	4	2	1	1	55.0
목재펠릿	19	15	4	–	–	2	12	4	1	–	56.1
목재칩	55	43	12	–	–	9	25	17	4	–	56.8
목재브리켓	–	–	–	–	–	–	–	–	–	–	–
성형목탄	2	2	–	–	–	–	1	1	–	–	58.5
목탄	71	57	14	–	3	8	25	21	14	–	59.1

□ 국내 생산업체의 회사 형태는 개인 사업체가 5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회사법인(41.8%), 기타(3.1%)임.

– 기타 응답으로는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 등이 있었음.

<표 10> 생산업체 회사형태

단위 : 개

품목별	전체 업체수	회사형태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기타
합 계	711	297	392	22
제재목	502	185	307	10
방부목재	26	20	3	3
난연목재	2	2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5	1	–
집성재	6	4	1	1
합판	4	4	–	–
파티클보드	3	3	–	–
섬유판	5	5	–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목질바닥재	10	10	–	–
목재펠릿	19	12	2	5
목재칩	55	39	14	2
목재브리켓	–	–	–	–
성형목탄	2	2	–	–
목탄	71	6	64	1

□ 국내 생산업체의 설립현황은 2000년~2009년에 설립한 업체가 34.6%로 가장 많았음.

– 설립 연도별로는 2000년~2009년(34.6%), 1990~1999년(27.4%), 2010년 이후(19.0%), 1980~1989년(11.7%) 순임.

<표 11> 품목별 회사 설립현황

단위 : 개, 년, 무응답 제외

품목별	전체 업체수	회사 설립년도						회사업력
		1979 이전	1980~ 1989	1990~ 1999	2000~ 2009	2010 이후	무응답	평균 (년)
합 계	**711**	**52**	**83**	**195**	**246**	**135**	**–**	**19.7**
제재목	502	33	73	151	164	81	–	20.2
방부목재	26	–	3	9	11	3	–	17.7
난연목재	2	–	–	1	1	–	–	16.5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	–	–	4	2	–	8.7
집성재	6	1	1	1	1	2	–	20.5
합판	4	3	1	–	–	–	–	59.3
파티클보드	3	2	–	–	1	–	–	54.0
섬유판	5	3	1	1	–	–	–	47.2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	–
목질바닥재	10	2	–	4	3	1	–	31.3
목재펠릿	19	2	1	3	4	9	–	3.5
목재칩	55	3	2	10	19	21	–	4.8
목재브리켓	–	–	–	–	–	–	–	–
성형목탄	2	–	–	1	1	–	–	18.5
목탄	71	3	1	14	37	16	–	15.5

3. 목재제품 생산업체 종사자 현황

□ 목재제품 생산업체의 종사자 수는 대부분의 업체가 2016년(전체 8,556명)대비 2017년(전체 8,410명)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제재목 업체의 종사자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조사 대상 업체 감소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조사됨.
- 제재 산업의 경우 대기업 보다는 주로 영세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 조선업 경기부진 및 수입 제재목 유통 증가 등의 사회 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대표자 건강 문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2017년 실적이 없거나 휴폐업 업체, 단순 유통업체로 전환하는 업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서, 제재생산업체 규모 역시 감소하게 되었음.

<표 12> 목재제품 품목별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전체 업체수	종사자 수	평균	전체 업체수	종사자 수	평균	전체 업체수	종사자 수	평균	전체 업체수	종사자 수	평균
합 계		**818**	**8,487**	**10.4**	**881**	**10,461**	**11.9**	**725**	**8,556**	**11.8**	**711**	**8,410**	**11.8**
제재목		574	4,497	7.8	650	5,751	8.8	512	4,426	8.6	502	4,409	8.8
방부목재[5)]		26	186	7.2	27	456	16.9	29	354	12.2	26	322	12.4
난연목재		–	–	–	2	46	23.0	2	28	14.0	2	30	15.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9	105	11.7	7	82	11.7	6	29	4.8	6	33	5.5
집성재		6	108	18.0	6	96	16.0	6	78	13.0	6	83	13.8
합판		5	506	101.2	6	897	149.5	4	861	215.3	4	839	209.8
파티클보드		3	233	77.7	3	356	118.7	3	256	85.3	3	257	85.7
섬유판		6	770	128.3	6	751	125.2	6	917	152.8	5	800	160.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	–	–	–	–	–
목질바닥재		14	987	70.5	12	756	63.0	12	638	53.2	10	563	56.3
목재펠릿		18	135	7.5	18	127	7.1	18	112	6.2	19	233	12.3
목재칩		84	658	7.8	75	798	10.6	58	545	9.4	55	534	9.7
	펄프용	12	–	–	14	–	–	12	–	–	12	–	–
	보드용	41	–	–	33	–	–	26	–	–	19	–	–
	연료용	51	–	–	43	–	–	32	–	–	36	–	–
목재브리켓		–	–	–	–	–	–	–	–	–	–	–	–
성형목탄		2	6	3.0	2	48	24.0	2	37	18.5	2	42	21.0
목탄 및 목초액		71	296	4.2	67	297	4.4	67	275	4.1	71	265	3.7
	목탄	69	–	–	67	–	–	67	–	–	70	–	–
	목초액	30	–	–	25	–	–	23	–	–	19	–	–

*목재칩과 목탄·목초액의 경우 한 업체가 여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합계와 세부 품목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종사자 수는 업체 전체 종사자 기준이 아닌 품목별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며, 2가지 품목 이상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각각의 품목별 생산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함.

5) 방부목재 생산업체의 경우 원목을 직접 방부처리하여 방부목재를 생산하지 않고, 제재목을 방부처리하여 방부목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함. 조사 진행 단계에서 제재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제재목 조사에서, 제재목을 방부처리하여 방부목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방부목재 조사에 포함 시켜 조사를 진행함

□ 목재제품 생산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8,410명(업체당 평균 11.8명)으로 제재목 생산업체의 종사자 수가 4,409명(전체 목재제품 생산업체의 목재제품 생산 업체의 52.4%)으로 가장 많음.

□ 합판, 파티클보드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가 100명이 넘는 반면, 목탄 및 목초액의 평균 종사자수는 3.7명으로 대부분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중심이었음.

□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제재업체 생산인력의 연령대가 4~60대로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인력의 고령화 문제와 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13> 목재제품 생산업체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 명

구 분	응답 업체수	종사자 분포(%)			종사자 수(명)	
		5명 이하	5~10명 이하	10명 이상	합계	평균
합 계	**711**	**36.7**	**33.5**	**29.8**	**8,410**	**11.8**
제재목	502	36.9	33.7	29.5	4,409	8.8
방부목재	26	30.8	19.2	50.0	322	12.4
난연목재	2	-	-	100.0	30	15.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16.7	83.3	-	33	5.5
집성재	6	16.7	16.7	66.7	83	13.8
합판	4	-	-	100.0	839	209.8
파티클보드	3	-	-	100.0	257	85.7
섬유판	5	-	-	100.0	800	160.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목질바닥재	10	-	10.0	90.0	563	56.3
목재펠릿	19	42.1	42.1	15.8	233	12.3
목재칩	55	10.9	58.2	30.9	534	9.7
펄프용	12	-	-	-	-	-
보드용	19	-	-	-	-	-
연료용	36	-	-	-	-	-
목재브리켓	-	-	-	-	-	-
성형목탄	2	-	-	100.0	42	21.0
목탄 및 목초액	71	73.2	23.9	2.8	265	3.7
목탄	70	-	-	-	-	-
목초액	19	-	-	-	-	-

제2절 목재제품 생산업체 매출 및 생산 현황

1. 목재제품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 본 조사에 응답한 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목재제품의 매출액 합계는 2016년 2조 8,006억 원에서 2017년 2조 6,092억 원으로 6.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제재목(2017년 기준 1조 184억 원), 섬유판(6,349억 원)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서 매출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목재분야 생산업체의 전체 매출 규모는 12조 5,024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차지하는 품목은 제재목, 섬유판, 목질바닥재 순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방부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소폭 상승된 것으로 조사됨.

<표 14> 목재제품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전체 업체수	해당 품목	전체 업체수	해당 품목	전체 업체수	해당 품목	전체 업체수	해당 품목
합 계		**818**	**30,184**	**881**	**30,901**	**725**	**28,006**	**711**	**26,092**
제재목		574	14,063	650	14,264	512	10,496	502	10,184
방부목재		26	500	27	669	29	656	26	676
난연목재		–	–	2	55	2	40	2	22
목재플라스틱복합재		9	370	7	244	6	165	6	142
집성재		6	26	6	55	6	47	6	63
합판		5	2,490	6	2,788	4	2,850	4	2,288
파티클보드		3	1,735	3	1,683	3	1,714	3	1,830
섬유판		6	6,549	6	5,756	6	6,057	5	6,349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	–
목질바닥재[6)]		14	1,698	12	2,892	12	3,650	10	2,521
목재펠릿		18	436	18	441	18	623	19	424
목재칩[7)]		84	2087	75	1,825	58	1,490	55	1,375
	펄프용	(12)	856	(14)	889	(12)	977	(12)	933
	보드용	(41)	595	(33)	347	(26)	258	(19)	165
	연료용	(51)	636	(43)	589	(32)	255	(36)	277
목재브리켓		–	–	–	–	–	–	–	–
성형목탄		2	69	2	66	2	49	2	58
목탄 및 목초액[8)]		71	161	67	163	67	169	71	160
	목탄	(69)	148	(67)	158	(67)	165	(70)	155
	목초액	(30)	13	(25)	5	(23)	4	(19)	5

6) 2016년 대비 조사 미참여 업체의 매출 규모가 빠지면서 전체 매출 규모 감소에 영향을 끼침. 해당 업체 매출 규모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목질바닥재 사업 매출 규모는 3,504억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예측

7) 목재칩 생산업체의 매출액은 사업체 기준 전체 매출액과 각 용도별(펄프용/보드용/연료용 칩) 매출액을 구분하여 계산

8) 목탄 및 목초액의 매출액은 사업체 기준 전체 매출액과 각각의 목탄 매출액, 목초액 매출액을 구분하여 계산

□ 목재제품별 매출액 분포는 10억 미만 업체가 355개(49.9%)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10~50억 원 미만 업체는 214개(30.1%), 50억 이상 142개(20.0%)였음. 2017년 목재제품별 매출액은 2조 6,092억 원으로 평균 36.7억 원 규모였음.

– 평균 매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합판·보드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제재목 업체 평균 매출액은 20.3억 원이었음.

<표 15> 목재제품 생산업체 매출액 분포

단위 : 개, 억 원

구 분	응답 업체수	매출액 분포			매출액 합계	매출액 평균
		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억 이상	해당품목	해당품목
합 계	**711**	**355**	**214**	**142**	**26,092**	**36.7**
제재목	502	260	162	80	10,184	20.3
방부목재	26	1	13	12	676	26.0
난연목재	2	0	1	1	22	11.2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2	2	2	142	23.6
집성재	6	2	2	2	63	10.5
합판	4	0	1	3	2,288	572.1
파티클보드	3	0	0	3	1,830	610.1
섬유판	5	0	0	5	6,349	1,269.8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목질바닥재	10	0	1	9	2,521	252.1
목재펠릿	19	8	2	9	424	22.3
목재칩[9]	55	14	26	15	1,375	–
펄프용	(12)	1	3	8	933	77.8
보드용	(19)	12	7	0	165	8.7
연료용	(36)	30	5	1	277	7.7
목재브리켓	–	–	–	–	–	–
성형목탄	2	0	1	1	58	28.9
목탄 및 목초액[10]	71	68	3	0	160	–
목탄	(70)	68	2	0	165	2.2
목초액	(19)	19	0	0	4	0.3

9) 목재칩 생산업체의 매출액 분포는 사업체 기준 목재칩 매출액 분포와 각각의 용도별(펄프용/보드용/연료용 칩) 매출액 분포를 구분하여 계산
10) 목탄 및 목초액의 매출액 분포는 사업체 기준 목탄 및 목초액 매출액 분포와 각각의 목탄, 목초액 매출액 분포를 구분하여 계산

1) 제재목

□ 2017년 제재목 생산 관련한 매출액 실적은 1조 184억 원 규모로 2014년 이후 국내 제재목 생산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완제품 형태의 수입 제재목 유통량 증가 및 건설 및 조선업 내수 경기 부진 등이 국내 제재목 생산 규모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표 16> 제재목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487	10,148	20.9
2014	574	14,063	24.5
2015	650	14,264	22.1
2016	512	10,496	20.5
2017	502	10,184	20.3

2) 방부목재

□ 2017년 방부목재 생산 관련 매출액은 676억 원으로 방부목재 생산업체 수 감소와 전체 생산량 감소에도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13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방부목재의 환경 등급 제한(2015년 7월)으로 방부목재 수요 감소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업체 평균 매출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방부목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33	589	17.8
2014	26	500	19.2
2015	27	669	24.8
2016	29	656	22.6
2017	26	676	26.0

3) 난연목재

□ 2017년 난연목재 생산 관련 매출액은 22억 원으로, 문화재 등 건축 분야에 난연목재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표 18> 난연목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5	2	55	27.4
2016	2	40	20.2
2017	2	22	11.2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2017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 관련 매출액은 142억 원으로 조사되었음.

– 2014년 관급공사 급증에 따른 생산 및 매출 증가를 보였었으나, 이후 관련 사업의 확장이 부진하고, 시장 경제가 악화되면서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의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표 19>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7	339	48.4
2014	9	370	41.1
2015	7	244	34.8
2016	6	165	27.6
2017	6	142	23.6

5) 집성재

□ 2017년 집성재 생산 관련 매출액은 63억 원으로 조사되었음.

– 집성재의 경우 일반 제재목에 비해 견고하며 품질이 균일하고 모양 크기 등 용도에 따른 대량생산이 가능해 각종 건축물에 이용되고 있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 집성재 의존율이 높은 편임.

<표 20> 집성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6	25	4.2
2014	6	26	4.3
2015	6	55	9.2
2016	6	47	7.8
2017	6	63	10.5

6) 합판

□ 2017년 합판 생산 관련 매출액은 2,2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함.

– 합판 시장의 경우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으로 국내 업계 간의 시장지배력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입산 합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합판 시장의 80%를 수입산 합판이 차지함.

– 2014년 이후 건자재 업체들의 채널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 해외 매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합판 생산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 합판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

<표 21> 합판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4	2,372	593.0
2014	5	2,490	498.0
2015	6	2,788	464.7
2016	4	2,850	712.6
2017	4	2,288	572.1

7) 파티클보드

□ 2017년 파티클보드 생산 관련 매출액은 1,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건설현장과 더불어 주택의 붙박이장, 부엌가구 등 마감재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PB의 경우 분양물량이 많을수록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분양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구업체 및 부엌가구업체 등의 건설사 특판 물량이 증가하였고 가구들의 원료로 사용되는 PB 시장가격도 상승하여, 국내 PB 업체들의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목질바닥재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인증을 받은 국내 PB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22>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3	1,557	519.0
2014	3	1,735	578.4
2015	3	1,683	561.1
2016	3	1,714	571.3
2017	3	1,830	610.1

8) 섬유판

□ 2017년 섬유판 생산 관련 매출은 6,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함.

- 작년 A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이 있었으나, 국내 시장 전체 생산 및 매출 합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 한편, 친환경 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고급 인테리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닥재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표 23> 섬유판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5	3,805	761.0
2014	6	6,549	1,091.5
2015	6	5,756	959.4
2016	6	6,057	1,009.6
2017	5	6,349	1,269.8

9) 목질바닥재

□ 2017년 목질바닥재 생산 관련 매출액은 2,5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음.

– 목질바닥재 시장은 신축되는 주택 및 상업용 건설시장에 공급되는 신규수요와 이사 및 리모델링에 의해 교체되는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작년 한해 신규 아파트 공급호수가 감소하면서 바닥재 시장의 성장폭도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 24>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8	1,090	136.3
2014	14	1,698	121.3
2015	12	2,892	241.0
2016	12	3,650	304.2
2017[11]	10	2,521	252.1

10) 목재펠릿

□ 2017년 목재 펠릿 생산 관련 매출액은 4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음.

– 저가의 수입펠릿으로 인해 국산재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업체간 경쟁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음.

– 한편, A사의 공장이 2018년부터 본격 가동되고, REC 가중치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확대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25> 목재펠릿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14	209	14.9
2014	18	436	24.2
2015	18	441	24.5
2016	18	623	34.6
2017	19	424	22.3

11) 2016년 대비 조사 미참여 업체의 매출 규모가 빠지면서 전체 매출 규모 감소에 영향을 끼침. 해당 업체 매출 규모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목질바닥재 사업 매출 규모는 3,504억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예측

11) 목재칩

□ 2017년 펄프용칩 생산 관련 매출액은 933억 원, 보드용칩 생산 관련 매출액은 165억 원, 연료용칩 생산 관련 매출액은 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펄프용칩과 보드용칩의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고, 연료용칩의 매출액은 증가하였음.

<표 26> 목재칩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품목 구분		업체 수	품목별 매출액	
				품목별 합계	품목별 평균
2014	목재칩		84		
		펄프용칩	(12)	856	71.4
		보드용칩	(41)	595	14.5
		연료용칩	(51)	636	12.5
2015	목재칩		75		
		펄프용칩	(14)	889	63.5
		보드용칩	(33)	347	10.5
		연료용칩	(43)	589	13.7
2016	목재칩		58		
		펄프용칩	(12)	977	81.4
		보드용칩	(26)	258	9.9
		연료용칩	(32)	255	8.0
2017	목재칩		55		
		펄프용칩	(12)	933	77.8
		보드용칩	(19)	165	8.7
		연료용칩	(36)	277	7.7

12) 성형목탄

□ 2017년 성형목탄 생산 관련 매출액은 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4년 이후 성형목탄 평균 매출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7년 제품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음.

<표 27> 성형목탄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업체 수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1	43	43.0
2014	2	69	34.4
2015	2	66	33.2
2016	2	49	24.4
2017	2	58	28.9

13)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의 2017년 목탄 생산 관련 매출액은 155억 원, 목초액 생산 관련 매출액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4년 이후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7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목초액 생산 관련 매출액 또한 2015년 이후 4~5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음.

<표 28>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매출액 현황

N=전체, 단위 : 개, 억 원, 무응답 제외

구분	품목 구분		업체 수	품목별 매출액	
				합계	평균
2013	목탄목초액		68		
		목탄	(64)	154	2.4
		목초액	(42)	21	0.5
2014	목탄목초액		71		
		목탄	(69)	148	2.1
		목초액	(30)	13	0.4
2015	목탄목초액		67		
		목탄	(67)	158	2.4
		목초액	(25)	5	0.2
2016	목탄목초액		67		
		목탄	(67)	165	2.5
		목초액	(23)	4	0.2
2017	목탄목초액		71		
		목탄	(70)	155	2.2
		목초액	(19)	5	0.3

2. 목재제품 생산업체 생산현황

□ 2017년 전체 목재제품 생산량은 2016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국내 건설, 조선업 경기의 악화와 합판·보드류를 비롯한 목재시장 전반적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체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표 29> 목재제품 생산량 현황

구 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제재목		㎥	574	2,455,938	650	2,784,234	512	2,292,902	502	2,188,187
방부목재		㎥	26	336,459	27	379,793	29	207,511	26	160,746
난연목재		㎥	–	–	2	3,850	2	13,180	2	26,160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톤	9	32,151	7	6,991	6	2,510	6	4,110
집성재(집성판 포함)		톤	6	4,250	6	7,419	6	4,049	6	3,046
합판		㎥	5	447,452	6	492,390	4	472,157	4	425,279
파티클보드		㎥	3	837,548	3	834,129	3	830,585	3	865,241
섬유판		㎥	6	1,987,517	6	2,060,888	6	2,093,536	5	1,835,251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	–	–	–	–	–	–	–	–
목질바닥재(마루판)		㎥	14	151,656	12	207,233	12	204,445	10	179,632
	합판마루	㎥	(11)	64,311	(7)	73,082	(6)	65,945	(5)	58,310
	강화마루	㎥	(5)	73,289	(5)	112,928	(5)	104,653	(5)	78,362
	강마루	㎥	(3)	14,056	(2)	21,223	(3)	33,847	(2)	42,960
목재펠릿		톤	18	81,014	18	89,203	18	59,150	19	118,126
목재칩		톤	84	1,907,850	75	1,921,674	58	1,851,914	55	1,988,387
	펄프용	톤	(12)	823,943	(14)	852,455	(12)	900,529	(12)	861,587
	보드용	톤	(41)	490,662	(33)	451,144	(26)	308,538	(19)	277,901
	연료용	톤	(51)	565,605	(43)	604,493	(32)	636,614	(36)	834,499
	기타	톤	(9)	27,640	(4)	13,582	(4)	6,233	(1)	14,400
목재브리켓		–	–	–	–	–	–	–	–	–
성형목탄		톤	2	5,000	2	4,866	2	3,870	2	4,977
목탄 및 목초액		–	71	9,967	67	15,973	67	10,705	71	10,009
	목탄	톤	(69)	8,731	(67)	8,534	(67)	9,156	(70)	8,789
	목초액	kl	(30)	1,236	(25)	7,439	(23)	1,549	(19)	1,220

1) 제재목

□ 제재목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2,188,187㎥이며, 용도별로는 가설재 생산량이 713,917㎥로 전체 생산량의 32.6%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컸음.

- 건축구조재 512,234㎥(23.4%), 포장재 376,449㎥(17.2%) 등의 용도로 생산되고 있으며, 기타 생산품으로 고임목, 전선드럼 제조용, 선박 받침목, 목기, 받침목, 어상자, 인삼지주목, 철강 받침목, 무늬목 등이 있었음.
- 2014년 이후 건축구조재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가설재 및 포장재, 가구재, 데크재 등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30> 용도별 제재목 생산량

단위 : ㎥, %

용도	생산량			
	2014 (N=574)	2015 (N=650)	2016 (N=512)	2017 (N=502)
건축구조재(기둥, 보, 샛기둥, 장선, 서까래 등)	376,092 (15.3)	345,925 (12.4)	432,347 (18.9)	512,234 (23.4)
가설재(토류판, 건설비계 등)	745,111 (30.3)	899,570 (32.3)	793,554 (34.6)	713,917 (32.6)
포장재(파렛트, 포장재수출상자)	628,438 (25.6)	638,168 (22.9)	459,170 (20.0)	376,449 (17.2)
가구재(가구회사 납품 등)	89,705 (3.7)	22,508 (0.8)	20,019 (0.9)	25,261 (1.2)
데크재, 원목마루용	30,712 (1.3)	41,625 (1.5)	36,465 (1.6)	27,899 (1.3)
건축 내장재(루바, 다루끼 등)	286,660 (11.7)	428,380 (15.4)	294,403 (12.8)	297,513 (13.6)
조경재 / 방부목, 난연재 제외	82,917 (3.4)	136,646 (4.9)	50,994 (2.2)	48,796 (2.2)
목공산업용	–	–	–	2,887 (0.1)
기타	216,303 (8.8)	271,412 (9.7)	205,950 (9.0)	183,231 (8.4)
합 계	**2,455,938 (100.0)**	**2,784,234 (100.0)**	**2,292,902 (100.0)**	**2,188,187 (100.0)**

□ 제재목 생산업체 중 제재목 생산 이외 방부목재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가 2.4%로 가장 많았음.

- 목재칩 생산을 병행(0.6%)하거나 목재펠릿(0.6%), 집성재(0.4%), 섬유판(0.4%)등 다양한 목재제품 생산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병행하는 품목으로는 무늬목, 톱밥, 목기, 목분 등이 있음.

<표 31> 제재목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단위 : 개, %

업체 수 (개)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502	2.4	0.2	–	0.4	0.2	–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기타**
0.4	0.2	0.6	0.6	–	–	4.8

2) 방부목재

□ 방부목재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160,746㎥이었고, 용도별로는 데크용으로의 생산량이 67,680㎥으로 전체 생산량의 42.1%로 가장 비중이 컸음.

- 조경용으로는 30,674㎥(19.1%), 건축용 13,000㎥(8.1%), 기타용도로 49,392㎥(30.7%)이 생산됨.
- 기타 용도로는 구조재, 말목, 지주목, 동바리(바닥용), 군도화장비류 등이 생산됨.
- 2014년 이후 방부목재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32> 용도별 방부목재 생산량

단위 : ㎥, %

용도	생산량			
	2014 (N=26)	2015 (N=27)	2016 (N=29)	2017 (N=26)
조경용 (정자용, 난간/울타리,야외의자/벤치용)	102,726 (30.5)	96,232 (25.3)	40,458 (19.5)	30,674 (19.1)
데크용	202,605 (60.2)	250,307 (65.9)	107,484 (51.8)	67,680 (42.1)
건축용	27,195 (8.1)	13,622 (3.6)	22,838 (11.0)	13,000 (8.1)
기타	3,933 (1.2)	19,632 (5.2)	36,731 (17.7)	49,392 (30.7)
합 계	**336,459 (100.0)**	**379,793 (100.0)**	**207,511 (100.0)**	**160,746 (100.0)**

□ 방부목재 생산업체 중 방부목재 생산 이외 제재목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가 46.2%로 가장 많았음.

- 목재펠릿 생산을 병행(3.8%)하거나 난연목재(3.8%) 등 다양한 목재제품생산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병행하는 품목으로는 톱밥, 목분 등이 있음.

<표 33> 방부목재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단위 : 개, %

업체 수 (개)	제재목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26	46.2	3.8	-	-	-	-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기타**
-	-	3.8	-	-	-	3.8

□ 방부약제별 방부목 생산 비중을 보면 ACQ를 사용한 방부목의 생산량이 125,941㎥(78.3%)로 가장 많았음.

- CuAz-2의 경우 18,600㎥(11.6%), CuAz-3 16,205㎥(10.1%)등의 순으로 조사됨.
- 2014년 이후 ACQ를 사용하는 방부목재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CuAz-2, CuAz-3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34> 방부약제별 방부목 생산비중

단위 : ㎥, %

분류	생산량			
	2014 (N=26)	2015 (N=27)	2016 (N=29)	2017 (N=26)
ACQ	142,278 (42.3)	365,886 (96.3)	192,641 (92.8)	125,941 (78.3)
MCQ	277 (0.1)	600 (0.2)	201 (0.1)	-
CuAz-2	13,300 (4.0)	10,006 (2.6)	1,492 (0.7)	18,600 (11.6)
CuAz-3	1,764 (0.5)	3,300 (0.9)	13,178 (6.4)	16,205 (10.1)
기타	178,840 (53.2)	-	-	-
합 계	**336,459 (100.0)**	**379,792 (100.0)**	**207,511 (100.0)**	**160,746 (100.0)**

□ 환경 등급별로는 전체 생산량의 90.7%(145,729㎥)가 H3 등급으로 생산되었으며, H4는 15,017㎥(9.3%)로 조사됨.

- H2등급은 2015년 7월 이후 생산이 금지되는 법안으로 인해 2016년부터 생산량은 없었음.

<표 35> 환경 등급별 방부목 생산량

단위 : ㎥, %

분류	생산량			
	2014 (N=26)	2015 (N=27)	2016 (N=29)	2017 (N=26)
H2	268,245 (79.7)	19,626 (5.2)	-	-
H3	59,603 (17.7)	350,617 (92.3)	187,295 (90.3)	145,729 (90.7)
H4	8,611 (2.6)	9,549 (2.5)	20,216 (9.7)	15,017 (9.3)
합 계	**336,459 (100.0)**	**379,792 (100.0)**	**207,511 (100.0)**	**160,746 (100.0)**

3) 난연목재

□ 난연목재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26,160㎥이었으며, 모두 건축용으로 생산됨.
- 2015년 이후 전체 난연목재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음.

□ 난연목재 생산업체는 모두 해당 제품 생산 이외에 다른 제품 생산을 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 용도별 난연목재 생산량

단위 : ㎥, %

용도	생산량		
	2015 (N=2)	2016 (N=2)	2017 (N=2)
건축용	3,850 (100.0)	13,180 (100.0)	26,160 (100.0)
기타	-	-	-
합 계	3,850 (100.0)	13,180 (100.0)	26,160 (100.0)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 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4,110톤이었으며, 용도별로는 데크재가 2,530톤(61.6%)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음.
- 건축재로는 800톤(19.5%), 조경용 780톤(19.0%)이 생산되었음.
- 2014년 이후 전체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량은 감소하다 2017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는 모두 해당 제품 생산 이외에 다른 제품 생산을 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 용도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량

단위 : 톤, %

용도	생산량			
	2014 (N=9)	2015 (N=7)	2016 (N=6)	2017 (N=6)
데크재	6,484 (20.2)	4,214 (60.3)	2,075 (82.7)	2,530 (61.6)
건축재	4,423 (13.8)	210 (3.0)	240 (9.6)	800 (19.5)
조경용(난간, 휀스 등)	21,244 (66.1)	2,567 (36.7)	195 (7.8)	780 (19.0)
합 계	32,151 (100.0)	6,991 (100.0)	2,510 (100.0)	4,110 (100.0)

5) 집성재

□ 집성재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3,046톤이었으며, 구조용으로 2,530톤(83.1%)이 생산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인테리어용으로는 465톤(15.3%), 집성판용 51톤(1.7%)이 생산되었음.
- 2015년 이후 집성재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집성재 생산업체는 모두 해당 제품 생산 이외에 다른 제품 생산을 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8> 용도별 집성재 생산량

단위 : 톤, %

용도	생산량			
	2014 (N=6)	2015 (N=6)	2016 (N=3)	2017 (N=6)
집성재-구조용	2,650 (62.4)	2,650 (35.7)	2,730 (67.4)	2,530 (83.1)
집성재-인테리어용	-	4,766 (64.3)	1,265 (31.2)	465 (15.3)
집성판	-	3 (0.0)	54 (1.3)	51 (1.7)
기타	1,600 (37.6)	-	-	-
합 계	**4,250** **(100.0)**	**7,419** **(100.0)**	**4,049** **(100.0)**	**3,046** **(100.0)**

6) 합판

□ 합판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425,279㎥이며, 용도별로는 가설재용 생산량이 267,339㎥로 전체 생산량의 62.9%를 차지하였음.

- 인테리어용으로는 81,222㎥(19.1%), 마루판용 61,652㎥(14.5%) 등이 생산됨.
- 2015년 이후 전체 합판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6년 대비 가설재용의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인테리어용의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였음.

<표 39> 용도별 합판 생산량

단위 : ㎥, %

용도	생산량			
	2014 (N=5)	2015 (N=6)	2016 (N=4)	2017 (N=4)
가설재용(콘크리트 거푸집, 유로폼 등)	291,470 (65.1)	312,457 (63.5)	335,177 (71.0)	267,339 (62.9)
인테리어용(마루판, 벽판재, 천장재 등)	142,571 (31.9)	164,427 (33.4)	53,573 (11.3)	81,222 (19.1)
마루판용	-	-	66,272 (14.0)	61,652 (14.5)
포장용	3,605 (0.8)	500 (0.1)	-	-
가구용	-	2,902 (0.6)	3,395 (0.7)	2,985 (0.7)
기타	9,806 (2.2)	12,104 (2.5)	13,740 (2.9)	12,081 (2.8)
합 계	**447,452 (100.0)**	**492,390 (100.0)**	**472,157 (100.0)**	**425,279 (100.0)**

□ 합판 생산업체 중 일부 업체의 경우 합판 생산 이외에 제재목(25.0%), 섬유판(25.0%), 목질바닥재(25.0%) 등의 품목을 병행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0> 합판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단위 : 개, %

업체 수 (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파티클보드
4	25.0	-	-	-	-	-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기타**
25.0	25.0	-	-	-	-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합판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급은 E1등급으로 2017년 생산량은 322,139㎥(75.7%)이었음.

- E0등급은 86,475㎥(20.3%), E2등급 9,950㎥(2.3%), SE0등급 6,715㎥(1.6%)이 생산됨.
- 2014년 이후 E2등급의 합판 생산량은 낮아지고 있으며, E0등급의 합판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합판 생산량

단위 : ㎥, %

분류	생산량			
	2014 (N=5)	2015 (N=6)	2016 (N=4)	2017 (N=4)
SE0	5,458 (1.2)	7,650 (1.6)	7,637 (1.6)	6,715 (1.6)
E0	82,095 (18.3)	95,269 (19.3)	88,992 (18.8)	86,475 (20.3)
E1	328,256 (73.4)	364,572 (74.0)	346,719 (73.4)	322,139 (75.7)
E2	31,643 (7.1)	24,899 (5.1)	28,809 (6.1)	9,950 (2.3)
합 계	**447,452 (100.0)**	**492,390 (100.0)**	**472,157 (100.0)**	**425,279 (100.0)**

※ 등급별 생산비중을 퍼센트(%)로 조사하여, 생산량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세부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착성 등급별 합판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급은 내수로 341,108㎥(80.2%)이 생산됨.

- 준내수 등급은 59,366㎥(14.0%), 완전내수 24,806㎥(5.8%)이 생산됨.
- 2014년 이후 준내수 합판의 생산량은 낮아지고 있으며, 완전내수 합판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 접착성 등급별 합판 생산량

단위 : ㎥, %

분류	생산량			
	2014 (N=5)	2015 (N=6)	2016 (N=4)	2017 (N=4)
완전내수	-	8150 (1.7)	7,637 (1.6)	24,806 (5.8)
준내수	138,367 (30.9)	114,797 (23.3)	186,017 (39.4)	59,366 (14.0)
내수	309,085 (69.1)	369,443 (75.0)	278,503 (59.0)	341,108 (80.2)
합 계	**447,452 (100.0)**	**492,390 (100.0)**	**472,157 (100.0)**	**425,279 (100.0)**

※ 등급별 생산비중을 퍼센트(%)로 조사하여, 생산량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세부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865,241㎥이었고, 용도별로는 가구재 생산량이 845,914㎥로 전체 생산량의 97.8%를 차지하였음.

- 기타(포장재)용도로는 19,324㎥(2.2%)이 생산됨.
- 전체 파티클보드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가구재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43> 용도별 파티클보드 생산량

단위 : ㎥, %

용도	생산량			
	2014 (N=3)	2015 (N=3)	2016 (N=3)	2017 (N=3)
가구재	837,548 (100.0)	819,083 (98.2)	825,167 (99.3)	845,914 (97.8)
기타	-	15,046 (1.8)	5,418 (0.7)	19,324 (2.2)
합 계	**837,548 (100.0)**	**834,129 (100.0)**	**830,585 (100.0)**	**865,241 (100.0)**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중 일부 업체의 경우 파티클보드 생산 이외에 섬유판(33.3%), 목질바닥재(33.3%)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파티클보드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단위 : 개, %

업체 수 (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3	-	-	-	-	-	-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기타**
33.3	33.3	-	-	-	-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파티클보드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급은 E1으로 528,495㎥(61.1%)이 생산됨.

- E0 등급은 327,879㎥(37.9%), SE0 등급 8,867㎥(1.0%)가 생산되었으며, E2 등급 생산량은 없었음.
- 2014년 이후 E1등급의 파티클보드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E0등급과 SE0등급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

<표 45>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파티클보드 생산량

단위 : ㎥, %

분류	생산량			
	2014 (N=3)	2015 (N=3)	2016 (N=3)	2017 (N=3)
SE0	-	-	6,013 (0.7)	8,867 (1.0)
E0	213,575 (25.5)	234,891 (28.2)	259,326 (31.2)	327,879 (37.9)
E1	623,973 (74.5)	599,238 (71.8)	565,246 (68.1)	528,495 (61.1)
E2	-	-	-	-
합 계	**837,548 (100.0)**	**834,129 (100.0)**	**830,585 (100.0)**	**865,241 (100.0)**

※ 등급별 생산비중을 퍼센트(%)로 조사하여, 생산량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세부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휨강도 등급별 파티클보드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급은 13형으로 663,959㎥(76.7%)이 생산됨.

- 15형 등급은 142,788㎥(116.5%), 8형 등급 30,846㎥(3.6%)이 생산되었음.

<표 46> 휨강도 등급별 파티클보드 생산량

단위 : ㎥, %

분류	생산량			
	2014 (N=3)	2015 (N=3)	2016 (N=3)	2017 (N=3)
18형	-	-	-	24,648 (3.2)
15형	169,100 (20.2)	172,035 (20.6)	107,932 (13.0)	142,788 (16.5)
13형	668,448 (79.8)	636,262 (76.3)	666,943 (80.3)	663,959 (76.7)
8형	-	25,832 (3.1)	55,710 (6.7)	30,846 (3.6)
합 계	**837,548 (100.0)**	**834,129 (100.0)**	**830,585 (100.0)**	**865,241 (100.0)**

※ 등급별 생산비중을 퍼센트(%)로 조사하여, 생산량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세부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섬유판

□ 섬유판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1,835,251㎥이며, 용도별로는 가구재 생산량이 1,295,969㎥으로 전체 생산량의 70.6%를 차지하였음.

- 인테리어용으로는 474.873㎥(25.9%), 마루판용으로는 64,409㎥(3.5%)이 생산되었음.
- 전체 섬유판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가구재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인테리어용의 생산량은 감소하였음.

<표 47> 용도별 섬유판 생산량

N=6(전체), 단위 : ㎥, %

용도	생산량			
	2014 (N=6)	2015 (N=6)	2016 (N=6)	2017 (N=5)
가구재	944,060 (47.5)	1,383,975 (67.2)	1,248,142 (59.6)	1,295,969 (70.6)
인테리어용 (마루판, 벽판재, 천장재 등)	1,017,617 (51.2)	542,530 (26.3)	759,512 (36.3)	474,873 (25.9)
마루판용	-	-	85,882 (4.1)	64,409 (3.5)
기타	25,840 (1.3)	134,383 (6.5)	-	-
합 계	1,987,517 (100.0)	2,060,888 (100.0)	2,093,536 (100.0)	1,835,251 (100.0)

□ 섬유판 생산업체 중 섬유판 생산 이외 제재목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가 60.0%로 가장 많았음.

- 목질바닥재(20.0%), 합판(20.0%), 파티클보드(20.0%)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도 있었음.

<표 48> 섬유판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단위 : 개, %

업체 수 (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5	60.0	-	-	-	-	20.0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기타**
20.0	20.0	-	-	-	-	-

□ 섬유판 생산량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급은 E1 등급으로 1,132,260(61.7%)이 생산됨.

- E0 등급은 681,579㎥(37.1%), SE0 등급 21,419㎥(1.2%)이 생산되었으며, E2 등급의 생산량은 없었음.
- 섬유판의 경우에도 E1등급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E0와 SE0등급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표 49>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섬유판 생산량

단위 : ㎥, %

분류	생산량			
	2014 (N=6)	2015 (N=6)	2016 (N=6)	2017 (N=5)
SE0	4,959 (0.2)	7,892 (0.4)	17,775 (0.8)	21,419 (1.2)
E0	341,908 (17.2)	288,182 (14.0)	356,460 (17.0)	681,579 (37.1)
E1	1,640,649 (82.5)	1,764,814 (85.6)	1,719,301 (82.1)	1,132,260 (61.7)
E2	-	-	-	-
합 계	**1,987,517 (100.0)**	**2,060,888 (100.0)**	**2,093,536 (100.0)**	**1,835,251 (100.0)**

※ 등급별 생산비중을 퍼센트(%)로 조사하여, 생산량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세부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섬유판 생산량의 밀도 및 휨강도 등급별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급은 MDF_15형으로 475,985㎥(25.9%)이 생산됨.

- MDF_35형 등급 생산량은 413,711㎥(22.5%), MDF_20형 등급 380,942㎥(20.8%) 등이 생산됨.

<표 50> 밀도 및 휨강도 등급별 섬유판 생산량

단위 : ㎥, %

분류	생산량			
	2014 (N=6)	2015 (N=6)	2016 (N=6)	2017 (N=5)
HDF	55,278 (4.4)	287,828 (14.0)	195,566 (9.3)	173,940 (9.5)
MDF_35형	300,283 (24.0)	296,628 (14.4)	433,667 (20.7)	413,711 (22.5)
MDF_30형	24,797 (2.0)	263,987 (12.8)	249,387 (11.9)	242,851 (13.2)
MDF_25형	280,426 (22.4)	593,317 (28.8)	309,193 (14.8)	147,823 (8.1)
MDF_20형	-	262,250 (12.7)	435,542 (20.8)	380,942 (20.8)
MDF_15형	592,158 (47.3)	356,879 (17.3)	470,181 (22.5)	475,985 (25.9)
합 계	**1,252,942 (100.0)**	**2,060,888 (100.0)**	**2,093,536 (100.0)**	**1,835,251 (100.0)**

※ 등급별 생산비중을 퍼센트(%)로 조사하여, 생산량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세부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9) 목질바닥재

□ 전체 목질바닥재 생산량 중 강화마루 생산량이 78,362㎥(43.6%)으로 가장 많았음.
- 합판마루의 경우 58,310㎥(32.5%), 강마루는 42,960㎥(23.9%)이 생산되었음.
- 목질바닥재 전체 생산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합판마루 및 강화마루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강마루 생산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51> 용도별 목질바닥재 생산량

단위 : ㎥, %

용도	생산량			
	2014 (N=14)	2015 (N=12)	2016 (N=12)	2017 (N=10)
합판마루	64,311 (42.4)	73,082 (35.3)	65,945 (32.3)	58,310 (32.5)
강화마루	73,289 (48.3)	112,928 (54.5)	104,653 (51.2)	78,362 (43.6)
강마루	14,056 (9.3)	21,223 (10.2)	33,847 (16.6)	42,960 (23.9)
합계	151,656 (100.0)	207,233 (100.0)	204,445 (100.0)	179,632 (100.0)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목질바닥재 생산 이외 합판(10.0%), 파티클보드(10.0%), 섬유판(10.0%)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도 있었음.

<표 52> 목질바닥재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단위 : 개, %

업체 수 (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10	-	-	-	-	-	10.0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기타**
10.0	10.0	-	-	-	-	-

10) 목재펠릿

□ 목재펠릿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118,126톤으로 주로 발전용(55,920톤, 47.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

- 농가주택용 생산량은 36,334톤(30.8%), 산업용 25,872톤(21.9%)이었음.
- 2014년 이후 농가주택용으로 생산된 물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산업용 및 발전용으로 생산되는 물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53> 용도별 목재펠릿 생산량

단위 : 톤, %

용도	생산량			
	2014 (N=18)	2015 (N=18)	2016 (N=18)	2017 (N=19)
농가주택용	60,286 (74.4)	64,763 (72.6)	43,294 (73.2)	36,334 (30.8)
산업용	20,728 (25.6)	24,440 (27.4)	15,279 (25.8)	25,872 (21.9)
발전용	-	-	-	55,920 (47.3)
기타	-	-	577 (1.0)	-
합 계	81,014 (100.0)	89,203 (100.0)	59,150 (100.0)	118,126 (100.0)

□ 목재펠릿 생산업체 중 목재펠릿 생산 이외 제재목(26.3%)로 가장 많았음.

- 목재펠릿 생산업체 중 목재펠릿 이외 방부목재(10.5%), 목재칩(10.5%)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도 있었음.

<표 54> 목재펠릿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단위 : 개, %

업체 수 (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19	26.3	10.5	-	-	5.3	-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기타**
-	-	-	10.5	-	-	10.5

11) 목재칩

□ 목재칩 생산량은 전체 1,988,387톤으로 주로 펄프용(861,587톤, 43.3%)으로 생산되었음.

- 연료용 834,499톤(42.0%), 보드용 277,901톤(3.9%), 기타(조경 깔개용, 톱밥 등)용도로 14,000톤(0.7%)이 생산되었음.
- 2014년 이후 보드용 목재칩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연료용칩 생산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55> 용도별 목재칩 생산량

단위 : 톤, %

용도	생산량			
	2014 (N=84)	2015 (N=75)	2016 (N=58)	2017 (N=55)
펄프용	823,943 (43.2)	852,455 (44.4)	900,529 (48.6)	861,587 (43.3)
보드용	490,662 (25.7)	451,144 (23.5)	308,538 (16.7)	277,901 (3.9)
연료용	565,605 (29.6)	604,493 (31.5)	636,614 (34.4)	834,499 (42.0)
기타	27,640 (1.4)	13,582 (0.7)	6,233 (0.3)	14,400 (0.7)
합 계	**1,907,850 (100.0)**	**1,921,674 (100.0)**	**1,851,914 (100.0)**	**1,988,387 (100.0)**

□ 목재칩 생산업체 중 목재칩 생산 이외 기타(톱밥 및 목분 등) 생산업을 병행 (9.1%)하거나 제재목(1.8%), 목재펠릿(1.8%)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도 있었음.

<표 56> 목재칩 외 병행 생산 품목 비중

단위 : 개, %

업체 수 (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55	1.8	–	–	–	–	–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기타**
–	–	–	1.8	–	–	9.1

12) 성형목탄

□ 성형목탄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4,977톤으로, 기타(업소용box) 용도가 4,138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음.

- 2014년 이후 주거/캠핑용으로 생산된 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성형목탄 생산업체는 모두 해당 제품 생산 이외에 다른 제품 생산을 병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57> 용도별 성형목탄 생산량

단위 : 톤, %

용도	생산량			
	2014 (N=2)	2015 (N=2)	2016 (N=2)	2017 (N=2)
산업연료용	-	-	-	321 (6.4)
주거/캠핑용	5,000 (100.0)	4,866 (100.0)	3,870 (100.0)	518 (10.4)
기타	-	-	-	4,138 (83.1)
합 계	**5,000 (100.0)**	**4,866 (100.0)**	**3,870 (100.0)**	**4,977 (100.0)**

13)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8,789톤이었음.

- 임목탄(흑탄 736톤 + 백탄 7,895톤)은 8,631톤, 톱밥숯 100톤, 대나무숯 58톤으로 대부분 백탄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용도별로는 백탄 연료용이 7,792톤(8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흑탄 연료용 624톤(7.1%), 가정용 112톤(1.3%), 톱밥숯 연료용 100(1.1%), 대나무숯 기타(인테리어, 파우더) 35톤(0.4%)이 생산됨.

□ 목초액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1,200kl이었고, 대부분 농업용(749kl, 62.4%)으로 사용됨.

- 축산용 150kl(12.5%), 기타(가정용, 산업용, 생활용, 공업용, 정제목초액) 301kl(25.1%)이 생산됨.

□ 죽초액 생산업체의 전체 생산량은 20kl이었고, 농업용(15kl, 75%), 축산용(5kl, 5%)으로 사용되었음.

□ 목탄 및 목초액, 죽초액 생산업체는 모두 해당 제품 생산 이외에 다른 제품 생산을 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8> 용도별 목탄 및 목초액 생산량

단위 : 톤(목탄), kl(목초액,죽초액), %

구분		용도	생산량			
			2014 (N=71)	2015 (N=67)	2016 (N=67)	2017 (N=71)
목탄	목탄12) (흑탄)	연료용	–	4,515 (52.9)	789 (8.6)	624 (7.1)
		농업용	–	7 (0.1)	20 (0.2)	–
		가정용	–	–	–	112 (1.3)
		기타	–	227 (2.7)	178 (1.9)	–
	목탄 (백탄)	연료용	–	3,009 (35.3)	7,987 (87.2)	7,792 (88.7)
		농업용	–	557 (6.5)	–	–
		가정용	–	–	–	53 (0.6)
		기타	–	220 (2.6)	182 (2.0)	50 (0.6)
	톱밥숯	연료용	–	–	–	100 (1.1)
		농업용	–	–	–	–
		가정용	–	–	–	–
		기타	–	–	–	–
	대나무숯	연료용	–	–	–	3 (0.0)
		농업용	–	–	–	17 (0.2)
		가정용	–	–	–	3 (0.0)
		기타	–	–	–	35 (0.4)
목탄 합 계			8,731 (100.0)	8,534 (100.0)	9,156 (100.0)	8,789 (100.0)
목초액		농업용	1,097 (88.8)	7,274 (97.8)	1,055 (68.1)	749 (62.4)
		축산용	71 (5.7)	48 (0.6)	5 (0.3)	150 (12.5)
		기타	68 (5.5)	117 (1.6)	489 (31.6)	301 (25.1)
목초액 합 계			1,236 (100.0)	7,439 (100.0)	1,549 (100.0)	1,200 (100.0)
죽초액		농업용	–	–	–	15 (75.0)
		축산용	–	–	–	5 (25.0)
		기타	–	–	–	–
죽초액 합 계			–	–	–	20 (100.0)

12) 2014년 조사에는 흑탄과 백탄의 구분없이 조사를 진행하였음

3. 목재제품 생산형태

1) 제재목

□ 제재목 생산업체 502개 중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240개인 반면, 수입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381개로 더 많았으며, 국산원목과 수입원목을 모두 사용하는 업체는 119개로 조사됨. 또한 타 업체로부터 가공된 제재목으로 2차 제재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15개, 수입된 제재목을 재가공하는 업체는 5개인 것으로 확인됨.

- 제재목 생산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 형태로 수입하는 업체가 93개, 건조 제재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11개, 기타 형태의 제재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27개임.
- 제재목 생산업체 중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 그대로 매매·유통하는 업체가 23개, 건조 제재목을 유통하는 업체가 68개, 기타 형태의 제재목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413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59> 제재목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502)	국산원목→제재목 생산	240	47.8
	수입원목→제재목 생산	381	75.9
	1차 제재목→2차 제재목 생산	15	3.0
	직수입 제재목→재가공	5	1.0
수입 (N=111)	원목 수입	93	83.8
	건조 제재목 수입	11	9.9
	기타 형태의 제재목 수입	27	24.3
유통 (N=417)	원목 매매·유통	23	5.5
	건조 제재목 유통	68	16.3
	기타 형태의 제재목 유통	413	99.0

2) 방부목재

□ 방부목재 생산업체 26개 중 국산원목을 제재하여 방부목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4개인 반면, 수입원목을 제재하여 방부목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8개로 더 많았으며, 국산제재목을 구입하여 방부목재를 생산한 업체가 5개, 수입제재목을 구입하여 방부목재를 생산한 업체는 18개인 것으로 확인됨.

- 방부목재 생산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형태로 수입하는 업체가 5개, 건조 제재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3개, 기타 형태의 제재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2개임.
- 방부목재 생산업체 중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 그대로 매매·유통하는 업체가 2개, 방부목재를 구입하여 유통하는 업체가 7개, 유통용 방부목재를 판매하는 업체가 21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60> 방부목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26)	국산원목 → 제재 → 방부목재 생산	4	15.4
	수입원목 → 제재 → 방부목재 생산	8	30.8
	국산제재목 → 방부목재 생산	5	19.2
	수입제재목 → 방부목재 생산	18	69.2
수입 (N=7)	원목 수입	5	71.4
	건조 제재목 수입	3	42.9
	기타 형태의 제재목 수입	2	28.6
유통 (N=24)	원목 매매·유통	2	8.3
	방부목재 구입·유통	7	29.2
	유통용 방부목재 판매	21	87.5

3) 난연목재

□ 난연목재 생산업체 2개 중 국산원목을 제재하여 난연목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1개, 수입제재목을 구입하여 난연목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1개였음.

- 난연목재 생산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기타 형태의 제재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는 1개임.
- 난연목재 생산업체 중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유통용 난연목재를 판매하는 업체가 1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61> 난연목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2)	국산원목 → 제재 → 난연목재 생산	1	50.0
	수입원목 → 제재 → 난연목재 생산	-	-
	국산제재목 → 난연목재 생산	-	-
	수입제재목 → 난연목재 생산	1	50.0
수입 (N=1)	원목 수입	-	-
	건조 제재목 수입	-	-
	기타 형태의 제재목 수입	1	100.0
	난연목재 수입	-	-
유통 (N=1)	원목 매매·유통	-	-
	난연목재 구입·유통	-	-
	유통용 난연목재 판매	1	100.0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6개 모두 톱밥 및 목분을 구입하여 목재플라스틱복합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됨.

- 원목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 판매를 병행하는 업체는 없었음.

<표 62>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6)	톱밥,목분 생산 → WPC 생산	-	-
	톱밥,목분 구입 → WPC 생산	6	100.0

5) 집성재

□ 집성재 생산업체 6개 중 국산제재목을 구입하여 집성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2개인 반면, 수입제재목을 구입하여 집성재를 생산한 업체는 5개로 더 많았음.

- 집성재 생산업체 중 국산/수입원목을 제재하여 집성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었음.
- 집성재 생산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건조 제재목을 수입하는 업체가 1개, 기타 형태의 제재목을 수입하는 업체가 1개, 집성재를 수입하는 업체는 1개였음.

<표 63> 집성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6)	국산원목 → 제재 → 집성재 생산	-	-
	수입원목 → 제재 → 집성재 생산	-	-
	국산제재목 → 집성재 생산	2	33.3
	수입제재목 → 집성재 생산	5	83.3
수입 (N=3)	원목 수입	-	-
	건조 제재목 수입	1	33.3
	기타 형태의 제재목 수입	1	33.3
	집성재 수입	1	33.3

6) 합판

□ 합판 생산업체 4개 중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1개인 반면, 수입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4개로 더 많았으며, 국산원목과 수입원목을 모두 사용하는 업체는 1개로 조사됨. 또한, 수입산 건조단판으로 합판을 생산하는 업체는 4개인 것으로 확인됨.

- 합판 생산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형태로 수입하는 업체가 4개, 합판을 수입하는 업체는 2개, 건조 단판을 수입하는 업체는 4개임.
- 합판 생산업체 중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합판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업체가 2개, 유통용 합판을 판매하는 업체가 2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64> 합판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4)	국산원목 → 단판 → 합판 생산	1	25.0
	수입원목 → 단판 → 합판 생산	4	100.0
	국산단판 → 합판 생산	-	-
	수입건조단판 → 합판 생산	4	100.0
수입 (N=4)	원목 수입	4	100.0
	합판 수입	2	50.0
	건조단판 수입	4	100.0
유통 (N=3)	원목 매매·유통	-	-
	합판 구입·유통	2	66.7
	유통용 합판 판매	2	66.7

7)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3개 중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1개인 반면, 산림 벌채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는 2개, 건설현장, 물류유통, 생활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사용하는 업체는 2개로 조사됨.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중 별도로 파티클보드를 구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1개 였음.

<표 65>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3)	국산원목 → 파티클보드 생산	1	33.3
	수입원목 → 파티클보드 생산	-	-
	부산물 → 파티클보드 생산	2	66.7
	폐목재 → 파티클보드 생산	2	66.7
유통 (N=1)	원목 매매·유통	-	-
	파티클보드 구입·유통	1	100.0
	유통용 파티클보드 판매	-	-

8) 섬유판

□ 섬유판 생산업체 5개 중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5개인 반면, 수입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2개로 국산원목을 사용하여 섬유판을 생산하는 업체가 더 많았으며, 국산원목과 수입원목을 모두 사용하는 업체는 2개로 조사됨. 또한 구입한 목재칩을 이용하여 섬유판을 생산하는 업체는 3개인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양질의 건설 혹은 물류 폐목재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음.
- 섬유판 생산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형태로 수입하는 업체가 2개, 섬유판을 수입하는 업체는 1개, 칩을 수입하는 업체는 1개임.
- 일부 부족한 부분은 수입 칩을 사용하기도 하며 제재목용으로 수입한 원목의 펄프용재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섬유판 생산업체 중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섬유판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업체가 1개, 유통용 섬유판을 판매하는 업체가 4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66> 섬유판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5)	국산원목 → 목재칩 → 섬유판 생산	5	100.0
	수입원목 → 목재칩 → 섬유판 생산	2	40.0
	목재칩 → 섬유판 생산	3	60.0
수입 (N=2)	원목 수입	2	100.0
	섬유판 수입	1	50.0
	칩 수입	1	50.0
유통 (N=4)	원목 매매·유통	-	-
	섬유판 구입·유통	1	25.0
	유통용 섬유판 판매	4	100.0

9) 목질바닥재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10개 중 합판마루를 생산하는 업체는 5개, 강화마루를 생산하는 업체는 5개, 강마루를 생산하는 업체는 2개였음.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원목형태로 수입하는 업체가 1개, 합판을 수입하는 업체는 5개임.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 그대로 매매·유통하는 업체가 1개, 마루판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1개, 유통용 마루판을 판매하는 업체는 4개였음.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설치 및 시공까지 병행하는 업체는 2개였음.

<표 67>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10)	합판마루 → 원목마루 포함	5	50.0
	강화마루	5	50.0
	강마루	2	20.0
수입 (N=6)	원목 수입	1	16.7
	마루판 수입	-	-
	건조단판 수입	-	-
	합판 수입	5	83.3
	무늬목 수입	-	-
유통 (N=5)	원목 매매·유통	1	20.0
	마루판 구입·유통	1	20.0
	유통용 마루판 판매	4	80.0
시공(N=2)	설치·시공	2	100.0

10) 목재펠릿

□ 목재펠릿 생산업체 19개 중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13개였으며, 톱밥을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는 9개, 목재칩을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는 2개, 부산물을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는 5개인 것으로 확인됨.

- 목재펠릿 생산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형태로 수입하는업체가 2개,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업체는 1개임.
- 목재펠릿 생산업체 중 판매 유통까지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목 그대로 매매·유통하는

업체가 1개, 목재펠릿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업체가 5개, 유통용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업체가 12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68> 목재펠릿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19)	원목 → 목재펠릿	13	68.4
	톱밥 → 목재펠릿	9	47.4
	목재칩 → 목재펠릿	2	10.5
	부산물 → 목재펠릿	5	26.3
수입 (N=3)	원목 수입	2	66.7
	목재펠릿 수입	1	33.3
	톱밥 수입	–	–
	칩 수입	–	–
유통 (N=16)	원목 매매·유통	1	6.3
	목재펠릿 구입·유통	5	31.3
	유통용 목재펠릿 판매	12	75.0

11) 목재칩

□ 목재칩 생산업체 55개 중 펄프용 칩을 생산하는 업체는 12개, 보드용 칩을 생산하는 업체는 19개, 연료용 칩을 생산하는 업체는 36개인 것으로 확인됨.

– 목재칩 생산업체 중 판매 및 유통까지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목재칩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업체가 9개, 유통용 목재칩을 판매하는 업체가 14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69> 목재칩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55)	펄프용 칩 생산	12	21.8
	보드용 칩 생산	19	34.5
	연료용 칩 생산	36	65.5
유통 (N=23)	원목 매매·유통	–	–
	목재칩 구입·유통	9	39.1
	유통용 목재칩 판매	14	60.9

12) 성형목탄

□ 성형목탄 생산업체 2개 중 톱밥을 가지고 성형목탄을 생산하는 업체가 1개였으며, 목탄 분말을 가지고 성형목탄을 생산하는 업체가 1개였음.

- 성형목탄 생산업체 중 성형목탄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는 1개임.
- 성형목탄 생산업체 중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유통용 성형목탄을 판매하는 업체가 1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70> 성형목탄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2)	톱밥 → 성형목탄 생산	1	50.0
	목탄 분말 → 성형목탄 생산	1	50.0
수입 (N=1)	원목 수입	-	-
	성형목탄 수입	1	100.0
	톱밥 수입	-	-
유통 (N=1)	원목 매매·유통	-	-
	성형목탄 구입·유통	-	-
	유통용 성형목탄 판매	1	100.0

13)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생산업체 71개 중 국산원목을 가지고 목탄을 생산하는 업체는 67개인 반면, 대나무를 이용하여 목탄을 생산하는 업체는 3개로 조사됨. 또한 죽초액을 생산하는 업체는 23개인 것으로 확인됨.

-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중 유통 및 판매를 병행하는 업체는 38개였으며, 모두 유통용으로 목탄 및 목초액을 판매하는 업체였음.

<표 71>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사업유형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사업유형	빈도(개)	비율(%)
생산 (N=71)	국산원목 → 목탄 생산	67	94.4
	수입원목 → 목탄 생산	-	-
	목재칩 → 목탄 생산	-	-
	대나무 → 목탄 생산	3	4.2
	목초액 생산	-	-
	죽초액 생산	23	32.4
유통 (N=38)	원목 매매·유통	-	-
	목탄/목초액 구입·유통	-	-
	유통용 목탄/목초액 판매	38	100.0

4. 목재제품 생산업체 설비 및 생산능력

□ 2017년도의 품목별 생산량과 가동률은 각 품목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음.

- 제재목 생산업체 502개 업체의 생산가능량(3,818,004㎥) 대비 2017년 전체 생산량은 2,188,187㎥으로 가동률은 57.3%였음.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의 경우 생산량은 재제목의 30% 수준에 불과하나 가동률은 94.0%로 품목별로 차이가 컸음.
- 목재플라스틱복합재와 집성재의 생산 가능량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품목별 월평균 가동일 수는 최소 14.6일에서 최대 28.3일로 조사됨.

<표 72> 목재제품 생산업체 생산능력

단위 : 개, ㎥, 톤(kl), %, 일

구 분	응답 업체 수	단위	생산 가능량	생산량	가동률 (%)	월평균 가동일수 (일)
제재목	502	㎥	3,818,004	2,188,187	57.3	20.0
방부목재	26	㎥	247,969	160,746	64.8	18.0
난연목재	2	㎥	50,500	26,160	51.8	16.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톤	10,000	4,110	41.1	21.3
집성재(집성판 포함)	6	톤	11,600	3,046	26.3	19.0
합판	4	㎥	693,222	425,279	61.3	21.8
파티클보드	3	㎥	920,500	865,241	94.0	28.3
섬유판	5	㎥	1,983,000	1,835,251	92.5	28.2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목질바닥재(마루판)	10	㎥	228,300	179,632	78.7	21.3
합판마루	–	㎥	68,800	58,310	84.8	20.0
강화마루	–	㎥	103,900	78,362	75.4	22.0
강마루	–	㎥	55,600	42,960	77.3	22.0
목재펠릿	19	톤	517,680	118,126	22.8	16.4
목재칩	55	톤	3,612,779	1,988,387	55.0	21.9
펄프용	–	톤	1,375,600	861,587	62.6	23.0
보드용	–	톤	643,525	277,901	43.2	22.2
연료용	–	톤	1,564,654	834,499	53.3	22.3
기타	–	톤	29,000	14,400	49.7	20.0
목재브리켓	–	–	–	–	–	–
성형목탄	2	톤	5,800	4,977	85.8	21.0
목탄 및 목초액	71	–	22,350	10,009	44.8	16.0
목탄	–	톤	18,798	8,789	46.8	17.3
목초액	–	kl	3,552	1,220	34.3	14.6

*설문에 응답한 회사만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임. 전체산업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재브리켓은 국내 생산량이 없어 제외함

*목재칩 생산량 합계는 펄프용, 보드용, 연료용 이외 깔개용 등 기타 생산량이 포함되어 있음

*가동률(%) = 생산량 / 생산가능량 x 100

가. 목재제품별 생산량 및 가동일 수

1) 제재목

□ 제재목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2,188,187㎥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3,818,004㎥으로 가동률은 57.3%,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0.0일로 조사 됨.

– 2015년 이후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생산 가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73> 제재목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13]	총 생산량[14]	가동률[15] (%)	월 평균 가동일 수(일)[16]
2013*	495	4,110,480	2,492,325	60.6	20.4
2014	574	4,054,500	2,455,936	60.6	20.0
2015	650	4,587,050	2,784,234	60.7	20.1
2016	512	4,364,912	2,292,902	52.5	20.1
2017	502	3,818,004	2,188,187	57.3	20.0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2) 방부목재

□ 방부목재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160,746㎥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247,969㎥으로 가동률은 64.8%, 월 평균 가동 일수는 18.0일로 조사 됨.

– 2015년 이후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생산 가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74> 방부목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3*	33	538,956	340,428	63.2	18.9
2014	26	488,618	336,459	68.9	18.8
2015	27	519,696	379,792	73.1	19.4
2016	29	355,215	207,511	58.4	18.7
2017	26	247,969	160,746	64.8	18.0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13)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1년 365일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할 때 생산 가능한 양을 의미
14) 총 생산량은 2017년 기준 한 해 동안 생산한 전체 생산량을 의미
15) 가동률(%)은 (총 생산량)/(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으로 계산됨
16) 월 평균 가동일 수(일)는 30일 기준. 하루 8시간 미만 가동일 경우 가동시간 나누기 8을 기준으로 함 (예. 4시간일 경우 0.5일)

3) 난연목재

□ 난연목재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26,160㎥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50,500㎥으로 가동률은 51.8%, 월 평균 가동 일수는 16.0일로 조사 됨.

– 2016년 대비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75> 난연목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2, 단위: 개, ㎥,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6	2	20,500	13,180	64.3	16.0
2017	2	50,500	26,160	51.8	16.0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4,110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가능량은 10,000톤으로 가동률은 41.1%,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1.3일로 조사 됨.

– 2014년 이후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생산 가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76>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톤,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3	7	29,064	13,258	45.6	19.4
2014	9	50,958	32,151	63.1	20.6
2015	7	18,963	6,991	36.9	20.3
2016	6	11,800	2,510	21.3	20.0
2017	6	10,000	4,110	41.1	21.3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5) 집성재

□ 집성재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3,046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가능량은 11,600톤으로 늘었으나, 총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동률은 26.3%로 감소함. 월 평균 가동 일수는 19.0일로 조사 됨.

- 2015년 이후 총 생산량 및 가동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77> 집성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톤,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3*	6	39,312	2,016	5.1	15.8
2014	6	14,634	4,250	29.0	15.8
2015	6	9,018	7,419	82.3	16.5
2016	6	14,100	4,049	28.7	19.3
2017	6	11,600	3,046	26.3	19.0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6) 합판

□ 합판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425,279㎥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693,222㎥으로 가동률은 61.3%,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1.8일로 조사 됨.

- 2015년 이후 총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78> 합판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3*	4	848,016	456,376	53.8	20.8
2014	5	693,015	447,452	64.6	20.8
2015	6	576,618	492,390	85.4	22.0
2016	4	803,802	472,157	58.7	24.0
2017	4	693,222	425,279	61.3	21.8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7)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865,241㎥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920,500㎥으로 가동률은 94.0%,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8.3일로 조사 됨.

– 2014년 이후 총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전년 대비 가동률 및 월 평균 가동일 수, 총 생산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79>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3*	3	864,000	812,220	94.0	29.5
2014	3	904,248	837,548	92.6	29.3
2015	3	849,999	834,129	98.1	30.0
2016	3	938,750	830,585	88.5	27.7
2017	3	920,500	865,241	94.0	28.3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8) 섬유판

□ 섬유판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1,835,251㎥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1,983,000㎥으로 가동률은 92.5%,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8.2일로 조사 됨.

– 2014년 이후 총 생산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80> 섬유판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3*	5	1,818,000	1,211,455	66.6	28.7
2014	6	2,303,028	1,987,517	86.3	29.0
2015	6	2,257,998	2,060,888	91.3	29.0
2016	5	2,399,000	2,093,536	87.3	27.8
2017	5	1,983,000	1,835,251	92.5	28.2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9) 목질바닥재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합판마루의 2017년 총 생산량은 58,310㎥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68,800㎥으로 가동률은 84.8%,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0.0일로 조사 됨.
- 2015년 이후 합판마루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강화마루의 2017년 총 생산량은 78,362㎥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103,900㎥으로 가동률은 75.4%,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2.0일로 조사 됨.
- 2015년 이후 강화마루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강마루의 2017년 총 생산량은 42.960㎥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55,600㎥으로 가동률은 77.3%,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2.0일로 조사 됨.
- 2014년 이후 강마루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81>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 %, 일

연도	업체 수	품목 구분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 (일)
2014	14	합판마루	73,300	64,311	87.7	21.7
		강화마루	85,600	73,289	85.6	26.0
		강마루	16,200	14,056	86.8	24.0
2015	12	합판마루	85,926	73,082	85.1	20.4
		강화마루	119,892	112,928	94.2	22.0
		강마루	25,100	21,223	84.6	21.5
2016	12	합판마루	90,886	65,945	72.6	20.5
		강화마루	119,900	104,653	87.3	22.0
		강마루	37,520	33,847	90.2	23.3
2017	10	합판마루	68,800	58,310	84.8	20.0
		강화마루	103,900	78,362	75.4	22.0
		강마루	55,600	42,960	77.3	22.0

10) 목재펠릿

□ 목재펠릿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118,126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517,680톤으로 가동률은 22.8%, 월 평균 가동 일수는 16.4일로 조사 됨.

- 2016년 대비 일부 업체에서 신규 공장을 추가로 가동함으로써 총 생산가능량 및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82> 목재펠릿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톤,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3*	14	61,152	56,238	92.0	21.1
2014	18	138,744	81,014	58.4	21.6
2015	18	155,394	89,203	57.4	19.8
2016	18	144,400	59,150	41.0	17.1
2017	19	517,680	118,126	22.8	16.4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11) 목재칩

□ 목재칩 생산업체 중 펄프용 칩의 2017년 총 생산량은 861,587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1,375,600톤으로 가동률은 62.6%,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3.0일로 조사 됨.

- 2014년 이후 펄프용 칩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목재칩 생산업체 중 보드용 칩의 2017년 총 생산량은 277,901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643,525톤으로 가동률은 43.2%,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2.2일로 조사 됨.

- 2014년 이후 보드용 칩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목재칩 생산업체 중 연료용 칩의 2017년 총 생산량은 834,499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가능량은 1,564,654톤으로 가동률은 53.3%,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2.3일로 조사 됨.

- 2015년 이후 연료용 칩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목재칩 생산업체 중 기타 용도로 2017년 총 생산량은 14,400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가능량은 29,000톤으로 가동률 49.7%,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0.0일로 조사 됨.

<표 83> 목재칩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톤, %, 일

연도	업체 수	품목 구분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4	84	펄프용	1,183,000	823,943	69.6	23.6
		보드용	745,100	490,662	65.9	21.4
		연료용	1,540,000	565,605	36.7	20.0
		기타	-	27,640	-	-
2015	75	펄프용	1,355,000	852,455	62.9	23.9
		보드용	737,020	451,144	61.2	22.4
		연료용	1,141,700	604,493	52.9	21.4
		기타	-	13,582	-	-
2016	58	펄프용	1,387,390	900,529	64.9	23.5
		보드용	697,000	308,538	44.3	21.7
		연료용	1,281,100	636,614	49.7	22.0
		기타	-	6,233	-	-
2017	55	펄프용	1,375,600	861,587	62.6	23.0
		보드용	643,525	277,901	43.2	22.2
		연료용	1,564,654	834,499	53.3	22.3
		기타	29,000	14,400	49.7	20.0

12) 성형목탄

□ 성형목탄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4,977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5,800톤으로 가동률은 85.8%, 월 평균 가동 일수는 21.0일로 조사 됨.

- 2014년 이후 성형목탄 총 생산량 및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84> 성형목탄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톤, %, 일

연도	업체 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총 생산량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일)
2013*	1	4,800	4,000	83.3	8.0
2014	2	7,500	5,000	66.7	14.0
2015	2	10,000	4,866	48.7	24.0
2016	2	6,000	3,870	64.5	22.0
2017	2	5,800	4,977	85.8	21.0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13)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8,789톤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18,798톤으로 가동률은 46.8%, 월 평균 가동 일수는 17.3일로 조사 됨.

- 전년 대비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총 생산량 및 가동률은 감소하였음.

□ 목초액 생산업체의 2017년 총 생산량은 1,550kl이며,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3,552kl으로 가동률은 34.4%, 월 평균 가동 일수는 14.6일로 조사 됨.

- 전년 대비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총 생산량 및 가동률은 감소하였음.

<표 85>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생산량 및 가동일 수

N=전체, 단위: 개, 톤, kl, %, 일

연도	업체 수	품목 구분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톤, kl)	총 생산량 (톤, kl)	가동률 (%)	월 평균 가동일 수 평균(일)
2013*	68	목탄	14,688	9,697	66.0	18.4
		목초액	4,862	2,475	50.9	18.5
2014	71	목탄	16,900	8,731	51.7	18.1
		목초액	1,945	1,236	63.5	17.5
2015	67	목탄	21,164	8,534	40.3	18.5
		목초액	18,430	7,439	40.4	16.3
2016	67	목탄	17,913	9,156	51.1	18.5
		목초액	2,974	1,549	52.1	14.0
2017	71	목탄	18,798	8,789	46.8	17.3
		목초액	3,552	1,550	34.4	14.6

※ 2013년에 최대생산가능량과 생산량은 월 평균으로 조사되어 연간 생산량으로 가공하여 작성함. 2014년 이후 수치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나. 목재제품별 보유설비 현황

1) 제재목

□ 제재목 생산업체는 대부분 대차(95.4%), 테이블(94.4%), 집진기(90.0%), 톱밥 사일로(80.5%)를 보유하고 있었음.

- 기타 보유 설비로는 로터리, 슬러시, 재단기, 목공선반 등이 있었음.

□ 건조기가 있는 제재목 생산업체는 70개(13.9%)였으며, 건조기의 건조 방식으로는 대부분 열풍건조기(82.9%)의 형태였음.

<표 86> 제재목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집진기	대차	테이블	톱밥 사일로	갱립	건조기	고열처리기	몰딩기	프리커팅기	CNC	기타
2013	495	56.2	82.8	80.0	12.9	72.5	14.3	-	-	-	-	12.7
2014	574	78.7	86.1	84.7	76.5	54.4	20.6	-	-	-	-	18.1
2015	650	82.9	81.4	81.1	73.5	55.2	18.6	-	-	-	-	23.2
2016	512	83.6	98.0	92.6	71.2	53.0	14.9	6.7	11.9	6.7	0.4	4.5
2017	502	90.0	95.4	94.4	80.5	65.4	13.9	12.5	22.3	10.8	12.5	4.2

<표 87> 건조기 보유 현황(제재목)

N=건조기 보유업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건조 방식별			
		열풍 건조기	고주파 건조기	진공 건조기	기타
2013	71	81.7	7.0	1.4	9.9
2014	118	72.0	6.8	1.7	20.3
2015	121	83.5	5.8	0.8	10.7
2016	125	85.6	5.6	5.6	9.6
2017	70	82.9	14.3	4.3	7.1

2) 방부목재

□ 방부목재 생산업체는 대부분 건조기(88.5%), 주약관(84.6%), 방부실린더(80.8%), 진공펌프(80.8%), 가압펌프(80.8%), 약제혼합탱크(80.8%)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

□ 건조기가 있는 방부목재 생산업체는 23개(88.5%)였으며, 건조기의 건조 방식으로는 대부분 열풍건조기(73.9%)의 형태였음.

<표 88> 방부목재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방부 실린더	건조기	스팀 양생 장치	인사이징 설비	주약관	약제 창고	진공 펌프	가압 펌프	약제 혼합 탱크	회수 저장 탱크	기타
2013	33	28.2	69.7	23.9	24.2	-	-	-	-	-	-	39.4
2014	26	100.0	69.2	80.8	34.6	-	-	-	-	-	-	26.9
2015	27	88.9	59.3	44.4	29.6	-	-	-	-	-	-	29.6
2016	29	82.8	72.4	58.6	62.1	89.7	69.0	82.8	79.3	75.9	62.1	-
2017	26	80.8	88.5	73.1	53.8	84.6	76.9	80.8	80.8	80.8	76.9	-

<표 89> 방부목재 건조기 건조방식

N=건조기 보유업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건조 방식별			
		열풍 건조기	고주파 건조기	진공 건조기	기타
2013	23	78.3	8.7	4.3	-
2014	18	72.2	22.2	5.6	11.1
2015	16	81.3	12.5	6.3	12.5
2016	21	81.0	4.8	4.8	19.0
2017	23	73.9	4.3	8.7	21.7

3) 난연목재

□ 난연목재 생산업체는 모든 업체에서 약제혼합기와 건조기, 주약탱크를 보유하고 있었음.
- 기타 보유 설비로는 가압펌프와 진공펌프, 약액회수탱크, 약재창고, 양생시설이 있었음.

□ 모든 난연목재 생산업체에서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열풍 건조기를 이용함.

<표 90> 난연목재 생산업체 주요 보유설비 현황

N=2(전체),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약제 혼합기	건조기	주약 탱크	가압 펌프	진공 펌프	약액회 수탱크	약재 창고	양생 시설	기타
2016	2	100.0	100.0	100.0	50.0	50.0	50.0	50.0	50.0	-
2017	2	100.0	100.0	100.0	50.0	50.0	50.0	50.0	50.0	-

<표 91> 난연목재 생산업체 건조기 건조방식

N=2(건조기 보유업체),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건조 방식별			
		열풍 건조기	고주파 건조기	진공 건조기	기타
2016	2	100.0	-	-	50.0
2017	2	100.0	-	-	-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는 모든 업체에서 압출기를 보유하고 있었음.
- 대부분 업체에서 브로싱기(83.3%), 배압기(83.3%), 샌딩기(83.3%)를 보유하고 있었음.
- 기타 설비로는 건조기(50.0%), 컴파운딩기(50.0%)가 있었음.

□ 건조기가 있는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는 3개(50.0%)였음.
- 보유 건조기 종류별로는 진공 건조기를 2개 업체, 기타(냉각기) 건조기를 1개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음.

<표 92>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압출기	브로싱기	배압기	파쇄기	샌딩기	건조기	컴파운딩기	사출기	기타
2013	7	100.0	100.0	71.4	85.7	42.9	57.1	28.6	28.6	-
2014	9	100.0	88.9	77.8	77.8	44.4	55.6	33.3	33.3	11.1
2015	7	100.0	100.0	85.7	85.7	71.4	57.1	42.9	28.6	-
2016	6	100.0	66.7	100.0	66.7	33.3	83.3	50.0	33.3	16.7
2017	6	100.0	83.3	83.3	16.7	83.3	50.0	50.0	33.3	16.7

<표 93>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건조기 건조방식

N=건조기 보유업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건조 방식별			
		진공 건조기	열풍 건조기	고주파 건조기	기타
2013	4	25.0	75.0	-	-
2014	5	40.0	60.0	-	20.0
2015	4	50.0	25.0	-	25.0
2016	5	-	60.0	-	40.0
2017	3	66.7	-	-	33.3

5) 집성재

□ 집성재 생산업체는 모든 업체에서 재단기를 보유하고 있었음.

– 기타 보유 장비로는 갱립(83.3%), 핑거조인트(66.7%), 함수율측정기(66.7%) 등이 있었음.

□ 건조기가 있는 집성재 생산업체는 3개(50.0%)였으며, 건조기의 건조 방식으로는 열풍건조기를 2개 업체, 고주파 건조기를 1개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음.

<표 94> 집성재 생산업체의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갱립	재단기	제재기	건조기	포삭기	핑거 조인트	엣지 글루	열압기	함수율 측정기	기타
2013	6	66.7	83.0	18.5	33.3	33.3	33.3	33.3	16.7	–	100.0
2014	6	83.3	66.7	83.3	33.3	33.3	33.3	16.7	16.7	–	100.0
2015	6	66.7	66.7	50.0	50.0	33.3	33.3	16.7	16.7	–	83.3
2016	6	83.3	100.0	33.3	50.0	33.3	66.7	16.7	–	33.3	16.7
2017	6	83.3	100.0	50.0	50.0	33.3	66.7	–	16.7	66.7	–

<표 95> 집성재 건조기 건조방식

N=건조기 보유업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건조 방식별			
		열풍 건조기	고주파 건조기	진공 건조기	기타
2013	2	100.0	–	–	–
2014	2	100.0	–	–	–
2015	3	100.0	–	–	–
2016	3	100.0	–	–	–
2017	3	66.7	33.3	–	–

6) 합판

□ 합판 생산업체는 모든 업체에서 재단기와 건조기, 접착제 도포기, 프레스, 샌딩기, 접착기를 보유하고 있었음.

<표 96> 합판 생산업체의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재단기	건조기	접착제 도포기	프레스	샌딩기	슬라이서	접착기	원목 열화 설비	기타
2013	5	100.0	75.0	100.0	100.0	100.0	25.0	75.0	-	-
2014	5	100.0	100.0	100.0	100.0	100.0	20.0	80.0	-	-
2015	6	100.0	83.3	83.3	83.3	83.3	66.7	66.7	-	-
2016	4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25.0	25.0
2017	4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	25.0

7)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는 모든 업체에서 분쇄기, 선별기, 도포기, 건조기, 열압기, 재단기, 샌딩기를 보유하고 있었음.

<표 97>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의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분쇄기	선별기	도포기	건조기	열압기	냉압기	재단기	샌딩기	기타
2013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4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6	3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0	-
2017	3	100.0	100.0	100.0	100.0	100.0	33.3	100.0	100.0	-

8) 섬유판

□ 섬유판 생산업체는 모든 업체에서 파쇄기, 선별기, 해섬기, 프레스, 재단기, 샌딩기, 건조기, 성형기를 보유하고 있었음.

<표 98> 섬유판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파쇄기	선별기	해섬기	프레스	재단기	샌딩기	건조기	칩퍼	포머	냉각기	분쇄기	성형기	기타
2013	6	10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0	80.8	-	-
2014	6	100.0	8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3	50.0	66.7	-	16.7
2015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3	83.3	83.3	83.3	66.7	-	-
2016	6	100.0	100.0	100.0	100.0	100.0	83.3	100.0	-	-	50.0	83.3	100.0	-
2017	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60.0	80.0	100.0	-

9) 목질바닥재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는 모든 업체에서 재단기, 폭방향 가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음.
- 열압기(90.0%), 길이방향 가공기(90.0%)도 대부분 업체에서 보유 중이었음.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접착제도포기와 연삭기가 있는 목질바닥재 생산업체는 각각 8개(80.0%)였음.

<표 99> 목질바닥재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재단기	폭방향 가공기	열압기	길이방향 가공기	접착제 도포기	연삭기	UV 건조기	자재 조합기	기타
2014	14	100.0	100.0	100.0	78.6	85.7	92.9	85.7	57.1	14.3
2015	12	100.0	100.0	91.7	91.7	83.3	66.7	66.7	41.7	16.7
2016	12	91.7	100.0	91.7	91.7	91.7	75.0	66.7	50.0	16.7
2017	10	100.0	100.0	90.0	90.0	80.0	80.0	70.0	50.0	20.0

10) 목재펠릿

□ 목재펠릿 생산업체는 대부분 성형기, 건조기(각각 84.2%)와 포장기(73.7%)를 보유하고 있었음.
- 기타 보유설비로는 선별기, 톱밥파쇄기(각각 68.4%), 냉각기(68.1%)등이 있었음.

□ 건조기가 있는 목재펠릿 생산업체는 16개(84.2%)였으며, 건조기의 건조 방식으로는 열풍건조기가 15개 업체, 진공건조기가 1개 업체 있었음.

<표 100> 목재펠릿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선별기	성형기	냉각기	원목 파쇄기	톱밥 파쇄기	건조기	포장기	칩 파쇄기	기타
2013	14	14.6	17.2	19.2	-	8.9	12.8	20.8	-	-
2014	18	94.4	94.4	100.0	66.7	83.3	94.4	94.4	66.7	-
2015	18	94.4	88.9	88.9	77.8	77.8	77.8	77.8	50.0	5.6
2016	18	66.7	94.4	61.1	72.2	83.3	77.8	83.3	33.3	11.1
2017	19	68.4	84.2	68.1	57.9	68.4	84.2	73.7	42.1	5.3

<표 101> 목재펠릿 건조기 건조방식

N=건조기 보유업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건조 방식별			
		열풍 건조기	고주파 건조기	진공 건조기	기타
2013	14	100.0	-	-	-
2014	17	100.0	-	-	-
2015	14	100.0	-	-	-
2016	14	100.0	-	-	-
2017	16	93.8	-	6.3	-

11) 목재칩

□ 목재칩 생산업체는 대부분 선별기(74.5%), 파쇄기, 분쇄기, 칩퍼기(56.4%)를 보유하고 있었음.
- 기타 보유 설비로는 탈피기(27.3%), 사일로(25.5%) 등이 있었음.

□ 건조기가 있는 목재칩 생산업체는 2개(3.6%)였으며, 건조기의 연료는 기타(증류)(50.0%)였음.

<표 102> 목재칩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파쇄기, 분쇄기, 칩퍼	선별기	슈레더	건조기	탈피기	사일로	기타
2014	84	98.8	78.6	19.0	6.0	-	-	6.0
2015	75	97.3	78.7	16.0	6.7	-	-	4.0
2016	58	100.0	79.3	19.0	5.2	-	-	6.9
2017	55	56.4	74.5	-	3.6	27.3	25.5	30.9

<표 103> 목재칩 건조기 연료 형태

N=건조기 보유업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연료 형태별			
		전기	가스	목재	기타
2013	3	-	-	33.3	100.0
2014	5	20.0	-	20.0	60.0
2015	3	33.3	-	-	66.7
2016	3	33.3	-	-	66.7
2017	2	-	-	-	100.0

12) 성형목탄

□ 성형목탄 생산업체는 모두 분쇄기, 혼합기, 건조기, 성형기,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었음.

□ 건조기의 연료는 가스와 목재를 사용함.

<표 104> 성형목탄 주요 보유설비 현황

N=2(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분쇄기	소탄장	혼합기	건조기	성형기	포장기	기타
2016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7	2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

<표 105> 성형목탄 건조기 연료 형태

N=2(건조기 보유업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연료 형태별			
		가스	전기	목재	기타
2016	2	50.0	-	50.0	-
2017	2	50.0	-	50.0	-

13)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는 대부분 전통식 숯가마(97.2%)를 보유하고 있었음.

- 기타 설비로는 기계식 숯가마(4.2%), 기계식 목초액 제조기(1.4%), 집진기(7.0%)가 있었음.

<표 106> 목탄 및 목초액 주요 보유설비 현황

N=전체, 단위 : 개, %,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전통식 숯가마	기계식 숯가마	기계식 목초액 제조기	기타
2013	68	69.4	3.5	4.2	3.5
2014	71	93.0	8.5	5.6	-
2015	67	94.0	4.5	1.5	3.0
2016	67	97.0	4.5	1.5	1.5
2017	71	97.2	4.2	1.4	7.0

5. 주요 목재제품 판매가격

□ **(제재목)** 국내제재소에서 생산된 제재목의 가격은 대부분 큰 변동은 없었음.

- 미송 각재와 외송 각재의 30×30×3600 규격의 경우 ㎥당 480,000원, 390,000원으로 전년대비 변화가 없었음.
- 미송 판재의 30×300×3600 규격의 경우 ㎥당 480,000원 전년대비 30,000원 하락함.

<표 107> 제재목 판매가격 추이

단위 : mm, 원/㎥, %, VAT별도

구분	원산지	규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각재	미송	30×30×36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
	외송		360,0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1.6%
판재	미송	30×300×36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510,000	480,000	-
	외송		390,0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

※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www.kprc.or.kr)

□ **(방부목재)** 방부목재 중 미송 가공의 경우 2013년부터 1,500,000원, 미송 원형 1,890,000원으로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기준 미송 가공 1,590,000원, 미송 원형의 경우 1,950,000원으로 상승함.

- 남양재의 경우 2013년도부터는 동일한 가격(2,700,000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 기준 2,400,000원으로 연평균 2.3% 하락됨.

<표 108> 방부목재 판매가격 추이

단위 : mm, 원/㎥, %, VAT별도

구 분	등급 및 약재	규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미송 가공	H3 ACQ-2	200×200×3600이상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90,000	1.2%
미송 원형	H3 ACQ-2	200∮×3600 이상	1,890,000	1,890,000	1,890,000	1,890,000	1,890,000	1,950,000	0.6%
남양재	H3 ACQ-2	200×200×3600이상	2,7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2,400,000	△2.3%

※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www.kprc.or.kr)

□ **(합판)** 합판 가격은 2016년 대비 올해 소폭 상승함.

– 합판 내수 12T×910×1820, 15T×1220×2440 규격의 경우 각각 18,267원, 36,900원이었으며, 일반 12T×910×1820, 15T×1220×2440 규격의 경우 각각 16,850원, 36,900원이었음.

<표 109> 합판 판매가격 추이

단위 : mm, 원/매, %, VAT별도

구 분	규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내수	12T×910×1820	17,633	17,633	18,900	18,000	18,000	18,267	0.7%
내수	15T×1220×2440	32,867	32,867	35,080	35,086	35,086	36,900	2.3%
일반	12T×910×1820	17,567	16,617	17,820	17,800	17,800	16,850	△0.8%
일반	15T×1220×2440	33,050	32,000	33,900	33,971	33,971	36,900	2.2%

※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www.kprc.or.kr).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역 평균 가격임

□ **(파티클보드)** 파티클보드의 판매가격은 2014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2×1210×2420. 15×1210×2420, 18×1210×2420 규격의 경우 각각 13,150원, 16,133원, 18,700원이었음.

<표 110> 파티클보드 판매가격 추이

단위 : mm, 원/매, %, VAT별도

구 분	규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2등급	12×1210×2420	11,272	12,133	12,133	12,133	13,150	13,150	3.1%
2등급	15×1210×2420	12,867	14,167	14,167	14,167	16,133	16,133	4.6%
2등급	18×1210×2420	15,287	16,883	16,883	16,883	18,700	18,700	4.1%

※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www.kprc.or.kr).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지역의 평균가격임)

□ **(섬유판)** 국내 섬유판 레귤러의 가격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8년 국내 섬유판 레귤러 6×1210×2420, 15×1210×2420, 18×1210×2420 규격의 경우 각각 8,740원, 19,560원, 22,740원이었음.

<표 111> 섬유판 판매가격 추이

단위 : mm, 원/매, %, VAT별도

구 분	규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Regular	6×1210×2420	7,520	7,520	7,520	7,540	8,740	8,740	3.1%
Regular	15×1210×2420	16,580	16,580	16,580	17,160	19,560	19,560	3.4%
Regular	18×1210×2420	19,140	19,140	19,140	20,000	22,740	22,740	3.5%

※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www.kprc.or.kr)

제3절 목재제품 생산업체 원재료 이용 현황

□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은 2016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제재목,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목재칩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자재 사용량이 크게 상승하였음. 상대적으로 방부목재, 합판, 목질바닥재 생산업체의 원자재 사용량이 감소하였음.

<표 112> 목재제품 원자재 사용량(원목비중)

단위 : ㎥, %

구 분		원자재 사용량(원목 비중)			
		2014	2015	2016	2017
제재목		4,334,921 (90.7)	5,466,453 (74.7)	3,983,920 (100.0)	4,140,284 (92.9)
방부목재		350,321 (14.8)	399,342 (10.1)	207,511 (100.0)	161,474 (9.5)
난연목재		–	8,650 (97.7)	43,500 (99.5)	65,180 (99.7)
목재플라스틱복합재		7,205 (0.0)	4,734 (0.0)	2,582 (0.0)	4,110 (0.0)
집성재		6,517 (0.0)	9,296 (0.0)	5,416 (0.0)	4,192 (0.0)
합판		627,757 (66.9)	582,164 (69.8)	593,063 (72.2)	508,943 (72.1)
파티클보드		1,124,870 (1.3)	966,830 (1.1)	1,165,045 (1.0)	1,214,964 (0.1)
섬유판		2,907,974 (64.7)	2,531,333 (75.7)	2,806,803 (68.1)	2,814,331 (64.7)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목질바닥재(마루판)		225,537 (0.3)	246,110 (0.8)	204,445 (0.0)	168,812 (0.0)
	합판마루	129,836 (0.9)	89,515 (2.2)	65,945 (0.0)	42,750 (0.0)
	강화마루	77,709 (0.0)	113,568 (0.0)	104,653 (0.0)	83,102 (0.0)
	강마루	17,992 (0.0)	43,027 (0.0)	33,847 (0.0)	42,960 (0.0)
목재펠릿		133,430 (78.5)	191,418 (54.9)	132,937 (44.0)	198,071 (35.5)
목재칩		2,283,174 (78.5)	2,167,810 (52.5)	2,135,944 (53.2)	2,467,017 (58.9)
	펄프용	952,116 (99.6)	958,815 (100.0)	1,099,098 (100.0)	1,090,754 (100.0)
	보드용	623,888 (3.7)	405,485 (7.6)	381,626 (0.0)	307,859 (1.2)
	연료용	707,170 (4.6)	705,018 (16.1)	654,620 (8.1)	1,052,364 (32.5)
	기타	–	98,492 (35.1)	3,600 (0.0)	16,040 (100.0)
목재브리켓		–	–	–	–
성형목탄		5,211 (42.4)	5,637 (4.0)	3,411 (12.0)	3,824 (0.0)
목탄 및 목초액		86,788 (98.4)	80,625 (98.9)	92,557 (97.9)	87,748 (99.6)

※ 괄호( )안의 수치는 원자재 사용량의 국산 원목 비중을 뜻함

※ 목재칩에서 보드용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제조용으로 사용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체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지 않았음

□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산재의 투입 비중과 수입재의 투입비중, 원목외 원자재 투입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산재의 비중이 큰 품목은 섬유판(국산 원목비중 59.9%), 목재펠릿(35.5%), 펄프용목재칩(100.0%), 기타 목재칩(100.0%), 목탄 및 목초액(99.6%) 등이었음.

□ 수입산 원목이 많이 투입된 품목은 난연목재(99.7%), 목탄 및 목초액 (99.6%), 제재목(77.7%), 합판(71.6%)인 것으로 조사됨.

□ 원목외의 원자재가 가장 많이 투입된 품목은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 보드용·연료용 목재칩, 성형목탄 등이었음.

- 원목외 주재료로는 제재목, 목분, 폐목재, 죽데기합판, 톱밥, 섬유판, 합판 등 다른 업종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자재로 투입되거나 폐자재가 투입되었음.

<표 113> 목재제품 주요 원자재 사용 현황

단위 : ㎥, %

구 분		합계[17]	국산재	수입재	원목외	원목외 주요품목	원목 비중
제재목		4,140,284	630,835	3,216,614	292,806	제제목(국산)	92.9%
방부목재		161,474	1,335	14,043	146,096	제제목(수입)	9.5%
난연목재		65,180	-	65,000	180	제재목(수입)	99.7%
목재플라스틱복합재		4,110	-	-	4,110	목분(수입)	0.0%
집성재		4,192	-	-	4,192	제재목(수입)	0.0%
합판		508,943	2,800	364,172	141,971	제재목(수입)	72.1%
파티클보드		1,214,964	1,463	-	1,213,501	폐목재 등	0.1%
섬유판		2,814,331	1,684,841	135,603	993,887	죽데기 등	64.7%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목질바닥재(마루판)		168,812	-	-	168,812	-	0.0%
	합판마루	42,750	-	-	42,750	합판, 무늬목 등	0.0%
	강화마루	83,102	-	-	83,102	섬유판, 무늬목 등	0.0%
	강마루	42,960	-	-	42,960	합판, 무늬목 등	0.0%
목재펠릿		198,071	70,380	-	127,691	목재칩, 톱밥 등	35.5%
목재칩		2,467,017	1,453,146	-	1,013,871	-	53.2%
	펄프용	1,090,754	1,090,754	-	-	-	100.0%
	보드용	307,859	3,810	-	304.049	건설폐목재 등	1.2%
	연료용	1,052,364	342,542	-	709.822	건설폐목재 등	32.5%
	기타	16,040	16,040	-	-	-	100.0%
목재브리켓		-	-	-	-	-	-
성형목탄		3,824	-	-	3,824	목분(수입)	0.0%
목탄 및 목초액		87,748	87,358	-	390	대나무류	99.6%

17) 원자재 사용량 수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하였기에 세부합이 맞지 않을 수 있음

1) 제재목

□ 제재목 생산업체의 원목 총 사용량은 3,847,478㎥으로 국산재가 15.2%(630,835㎥), 수입재가 77.7%(3,216,614㎥)로 대부분 수입 원목을 사용하였음.

– 제재목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목 비중은 전년 대비 7.1%p 감소한 92.9%로 조사되었음.

<표 114> 제재목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사용량			제재목 사용량			합계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소계	국산재 제재목	수입재 제재목	소계	
2014 (N=574)	491,352 (11.3)	3,438,996 (79.3)	3,930,348 (90.7)	36,282 (0.8)	368,291 (8.5)	404,573 (9.3)	4,334,921 (100.0)
2015 (N=650)	635,434 (11.6)	3,446,549 (63.0)	4,081,983 (74.7)	368,154 (6.7)	1,016,316 (18.6)	1,384,470 (25.3)	5,466,453 (100.0)
2016 (N=512)	589,919 (14.8)	3,394,000 (85.2)	3,983,919 (100.0)	–	–	–	3,983,919 (100.0)
2017 (N=502)	630,835 (15.2)	3,216,614 (77.7)	3,847,478 (92.9)	292,806 (7.1)	–	292,806 (7.1)	4,140,284 (100.0)

2) 방부목재

□ 방부목재 생산업체의 원목 총 사용량은 15,378㎥으로 국산재가 0.8%(1,335㎥), 수입재가 8.7%(14,043㎥)로 대부분 수입 원목을 사용하였음.

– 방부목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목 비중은 9.5%로 조사되었음.

<표 115> 방부목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제재목 사용량			합계
	국산재 제재목	수입재 제재목	소계	국산재 제재목	수입재 제재목	소계	
2014 (N=26)	1,165 (0.3)	50,677 (14.5)	51,842 (14.8)	8,805 (2.5)	289,674 (82.7)	298,479 (85.2)	350,321 (100.0)
2015 (N=27)	2,630 (0.7)	37,740 (9.5)	40,370 (10.1)	12,222 (3.1)	346,750 (86.8)	358,972 (89.9)	399,342 (100.0)
2016 (N=29)	3,445 (1.7)	204,066 (98.3)	207,511 (100.0)	–	–	–	207,511 (100.0)
2017 (N=26)	1,335 (0.8)	14,043 (8.7)	15,378 (9.5)	1,713 (1.1)	144,473 (89.5)	146,096 (90.5)	161,474 (100.0)

3) 난연목재

□ 난연목재 생산업체의 원목 총 사용량은 65,000㎥으로 수입재가 99.7%(65,000㎥)로 전부 수입 원목을 사용하였음.

– 난연목재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목 비중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99.7%로 조사되었음.

<표 116> 난연목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제재목 사용량			합계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소계	국산 제재목	수입 제재목	소계	
2015 (N=2)	1,250 (14.5)	7,200 (83.2)	8,450 (97.7)	–	200 (2.3)	200 (2.3)	8,650 (100.0)
2016 (N=4)	8,660 (19.9)	34,640 (79.6)	43,300 (99.5)	–	200 (0.5)	200 (0.5)	43,500 (100.0)
2017 (N=2)	–	65,000 (99.7)	65,000 (99.7)	–	180 (0.3)	180 (0.3)	65,180 (100.0)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의 목분 총 사용량은 3,184톤이었으며, 국산재 목분 32.3%(1,327톤), 수입재 목분 45.2%(1,857톤)로 대부분 수입재 목분을 사용하였음.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목분 비중은 전년 대비 9.3%p 증가한 77.5%로 조사되었음.

<표 117>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톤, %

구분	톱밥			목분			플라스틱류	첨가제	합계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합계	국산재	수입재	합계			
2014 (N=9)	–	–	–	6,479 (89.9)	726 (10.1)	7,205 (100.0)	–	–	7,205 (100.0)
2015 (N=7)	–	–	–	4,294 (90.7)	440 (9.3)	4,734 (100.0)	–	–	4,734 (100.0)
2016 (N=6)	–	–	–	680 (26.3)	1,080 (41.8)	1,760 (68.2)	436 (16.9)	386 (14.9)	2,582 (100.0)
2017 (N=6)	–	–	–	1,327 (32.3)	1,857 (45.2)	3,184 (77.5)	812 (19.8)	114 (2.8)	4,110 (100.0)

5) 집성재

□ 집성재 생산업체의 제재목 총 사용량은 4,192㎥로 국산 제재목 31.0%(1,300㎥), 수입은 69.0%(2,892㎥)로 대부분 수입 제재목을 사용하였음.

- 집성재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국산재 비중은 전년 대비 4.5%p 증가한 31.0%로 조사되었음.

<표 118> 집성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제재목 사용량		
	국산재	수입재	합계
2014 (N=6)	1,550 (23.8)	4,967 (76.2)	6,517 (100.0)
2015 (N=6)	2,100 (22.6)	7,196 (77.4)	9,296 (100.0)
2016 (N=6)	1,434 (26.5)	3,982 (73.5)	5,416 (100.0)
2017 (N=6)	1,300 (31.0)	2,892 (69.0)	4,192 (100.0)

6) 합판

□ 합판 생산업체의 원목 총 사용량은 366,972㎥으로 국산재가 0.6%(2,800㎥), 수입재가 71.6%(364,172㎥)로 대부분 수입 원목을 사용하였음.

- 제재목 총 사용량은 141,971㎥으로 전량 수입제재목(27.9%)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합판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목 비중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72.1%로 조사되었음.

<표 119> 합판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제재목 사용량			합계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소계	국산 제재목	수입 제재목	소계	
2014 (N=5)	3,960 (0.6)	415,783 (66.2)	419,743 (66.9)	-	208,014 (33.1)	208,014 (33.1)	627,757 (100.0)
2015 (N=6)	8,240 (1.4)	398,108 (68.3)	406,348 (69.7)	-	176,316 (30.3)	176,316 (30.3)	582,664 (100.0)
2016 (N=4)	1,943 (0.3)	427,597 (72.1)	428,540 (72.3)	-	164,523 (27.7)	164,523 (27.7)	593,063 (100.0)
2017 (N=4)	2,800 (0.6)	364,172 (71.6)	366,972 (72.1)	-	141,971 (27.9)	141,971 (27.9)	508,943 (100.0)

7)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의 원목 총 사용량은 1,463㎥(원자재 총 사용량의 0.1%)로 전량 국산재(0.1%)를 사용하였음.

- 원목외 총 사용량은 1,213,501㎥로 대부분 폐목재 56.8%(690,423㎥)를 사용함.
- 파티클보드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목 비중은 전년도와 동일한 0.1%로 조사되었음.

<표 120>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원목외 사용량							합계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소계	죽데기	폐목재	임목 부산물*	톱밥	목재칩		소계	
								국산	수입		
2014 (N=3)	14,813 (1.3)	-	14,813 (1.3)	82,710 (7.4)	887,109 (78.9)	111,140 (9.9)	-	-	29,098 (2.6)	1,110,057 (98.7)	1,124,870 (100.0)
2015 (N=3)	11,052 (1.1)	-	11,052 (1.1)	79,781 (8.3)	760,780 (78.7)	113,630 (11.8)	-	-	1,587 (0.2)	955,778 (98.9)	966,830 (100.0)
2016 (N=3)	1,163 (0.1)	-	1,163 (0.1)	58,293 (5.0)	1,020,946 (87.6)	84,643 (7.3)	-	-	-	1,163,882 (99.9)	1,165,045 (100.0)
2017 (N=3)	1,463 (0.1)	-	1,463 (0.1)	49,547 (4.1)	690,423 (56.8)	71,018 (5.8)	396,450 (32.6)	-	6,063 (0.5)	1,213,501 (99.9)	1,214,964 (100.0)

*폐목재는 절삭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 임목부산물은 벌채 후 임지에 남은 목재로 구분

8) 섬유판

□ 섬유판 생산업체의 원목 총 사용량은 1,820,444㎥(원자재 총 사용량의 64.7%)이며, 국산재가 59.9%(1,684,841㎥), 수입재가 4.8%(135,603㎥)로 대부분 국산 원목을 사용하였음.

- 원목외 총 사용량은 993,887㎥로 대부분 죽데기 27.4%(772,530㎥), 폐목재 7.5%(210,000㎥)를 사용함.
- 섬유판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목 비중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121> 섬유판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원목외 사용량								합계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소계	단판	톱밥	죽데기	폐목재	임목 부산물	목재칩		소계	
									국산	수입		
2014 (N=6)	1,849,281 (63.6)	32,472 (1.1)	1,881,753 (64.7)	-	-	521,513 (17.9)	441,180 (15.2)	-	-	63,528 (2.2)	1,026,221 (35.3)	2,907,974 (100.0)
2015 (N=6)	1,762,447 (69.6)	155,005 (6.1)	1,917,452 (75.7)	-	-	298,620 (11.8)	123,082 (4.9)	-	137,703 (5.4)	54,476 (2.2)	613,881 (24.3)	2,531,333 (100.0)
2016 (N=3)	1,744,019 (62.1)	167,344 (6.0)	1,911,363 (68.1)	-	-	778,914 (27.8)	80,716 (2.9)	-	-	35,810 (1.3)	895,440 (31.9)	2,806,803 (100.0)
2017 (N=5)	1,684,841 (59.9)	135,603 (4.8)	1,820,444 (64.7)	-	-	772,530 (27.4)	210,000 (7.5)	-	-	11,357 (0.4)	993,887 (35.3)	2,814,331 (100.0)

9) 목질바닥재

□ 목질바닥재 생산업체의 합판마루는 국산합판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양이 26,000㎥, 강화마루는 수입산 합판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양이 45,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마루는 모두 수입합판을 사용(42,960㎥)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목질바닥재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강화마루 생산을 위해 투입한 수입산 섬유판 비중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강마루 생산을 위한 합판 투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22>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1/2)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원목 외 사용량		
					섬유판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소계	국산	수입	소계
2014 (N=14)	합판마루	–	1,250 (1.0)	1,250 (1.0)	–	–	–
	강화마루	–	–	–	68,869 (88.6)	–	68,869 (88.6)
	강마루	–	–	–	10,120 (56.2)	–	10,120 (56.2)
2015 (N=12)	합판마루	–	2,000 (2.2)	2,000 (2.2)	–	–	–
	강화마루	–	–	–	94,268 (80.2)	19,300 (16.4)	113,568 (96.6)
	강마루	–	–	–	–	–	–
2016 (N=12)	합판마루	–	–	–	–	–	–
	강화마루	–	–	–	85,093 (77.8)	20,300 (18.6)	105,393 (96.3)
	강마루	–	–	–	–	–	–
2017 (N=10)	합판마루	–	–	–	–	–	–
	강화마루	–	–	–	33,602 (40.4)	45,500 (54.8)	79,102 (95.2)
	강마루	–	–	–	–	–	–

<표 123>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2/2)

단위 : ㎥, %

구분		원목 외 사용량						합계
		무늬목			합판			
		국산	수입	소계	국산	수입	소계	
2014 (N=14)	합판마루	55,557 (42.8)	8,736 (6.7)	64,293 (49.5)	55,573 (42.8)	8,720 (6.7)	64,293 (49.5)	129,836 (100.0)
	강화마루	660 (0.8)	3,760 (4.8)	4,420 (5.7)	660 (0.8)	3,760 (4.8)	4,420 (5.7)	77,709 (100.0)
	강마루	-	3,936 (21.9)	3,936 (21.9)	16 (0.1)	3,920 (21.8)	3,936 (21.9)	17,992 (100.0)
2015 (N=12)	합판마루	5,224 (5.8)	33,812 (37.8)	39,036 (43.6)	44,764 (50.0)	3,715 (4.2)	48,479 (54.2)	89,515 (100.0)
	강화마루	-	4,000 (3.4)	4,000 (3.4)	-	-	-	117,568 (100.0)
	강마루	17,433 (40.5)	1,399 (3.3)	18,832 (43.8)	18,437 (42.8)	5,758 (13.4)	24,195 (56.2)	43,027 (100.0)
2016 (N=12)	합판마루	3,854 (5.1)	22,362 (29.5)	26,216 (34.6)	42,525 (56.1)	7,042 (9.3)	49,567 (65.4)	75,783 (100.0)
	강화마루	-	4,000 (3.7)	4,000 (3.7)	-	-	-	109,393 (100.0)
	강마루	1,712 (4.0)	69 (0.2)	1,781 (4.1)	20,344 (47.0)	21,140 (48.9)	41,484 (95.9)	43,265 (100.0)
2017 (N=10)	합판마루	140 (0.3)	13,220 (30.9)	13,360 (31.3)	26,000 (60.8)	3,390 (7.9)	29,390 (68.7)	42,750 (100.0)
	강화마루	-	4,000 (4.8)	4,000 (4.8)	-	-	-	83,102 (100.0)
	강마루	-	-	-	-	42,960 (100.0)	42,960 (100.0)	42,960 (100.0)

10) 목재펠릿

□ 목재펠릿 생산업체는 모두 국산 원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목 외 사용량은 임목부산물 69,425㎥(35.1%), 국산 톱밥 42,428㎥(21.4%)을 사용함.
- 목재펠릿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목 비중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124> 목재펠릿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원목외 사용량							합계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소계	톱밥		목재칩		임목 부산물	죽데기	소계	
				국산	수입	국산	수입				
2014 (N=18)	104,701	-	104,701	14,021	6,535	-	-	5,480	2,693	28,729	133,430
	(78.5)		(78.5)	(10.5)	(4.9)			(4.1)	(2.0)	(21.5)	(100.0)
2015 (N=18)	105,141	-	105,141	25,188	-	31,128	13,935	12,476	3,550	86,277	191,418
	(54.9)		(54.9)	(13.2)		(16.3)	(7.3)	(6.5)	(1.9)	(45.1)	(100.0)
2016 (N=18)	58,436	-	58,436	59,010	-	10,028	-	680	4,783	74,501	132,937
	(44.0)		(44.0)	(44.4)		(7.5)		(0.5)	(3.6)	(56.0)	(100.0)
2017 (N=19)	70,380	-	70,380	42,428	-	8,722	-	69,425	7,116	127,691	198,071
	(35.5)		(35.5)	(21.4)		(4.4)		(35.1)	(3.6)	(64.5)	(100.0)

11) 목재칩

□ 목재칩 생산업체의 원목 총 사용량은 펄프용 1,090,754㎥, 보드용 3,810㎥, 연료용 342,542㎥으로 모두 국산재를 사용함.

- 원목 외 사용량은 보드용 604,049㎥, 연료용 709,822㎥로 각각 조사됨.
- 목재칩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펄프용 목재칩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자재 사용량은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연료용 목재칩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125> 목재칩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원목외 사용량								합계
		국산재	수입재	소계	임목부산물	죽데기	톱밥	폐목재			수피	소계	
								건설	생활	사업장			
2014 (N=84)	펄프용	948,666 (99.6)	-	948,666 (99.6)	3,450 (0.4)	-	-	-	-	-	-	3,450 (0.4)	952,116 (100.0)
	보드용	22,812 (3.7)	-	22,812 (3.7)	15,360 (2.5)	126,800 (20.3)	-	214,577 (34.4)	154,833 (24.8)	89,506 (14.3)	-	601,076 (96.3)	623,888 (100.0)
	연료용	32,842 (4.6)	-	32,842 (4.6)	123,679 (17.5)	-	2,500 (0.4)	338,434 (47.9)	175,743 (24.9)	33,972 (4.8)	-	674,328 (95.4)	707,170 (100.0)
2015 (N=75)	펄프용	958,815 (92.2)	-	958,815 (92.2)	7,000 (0.7)	19,100 (1.8)	2,117 (0.2)	2,000 (0.2)	38,000 (3.7)	-	12,842 (1.2)	81,059 (7.8)	1,039,874 (100.0)
	보드용	31,000 (9.2)	-	31,000 (9.2)	18,260 (5.4)	43,000 (12.7)	-	180,613 (53.4)	2,388 (0.7)	62,674 (18.5)	-	306,935 (90.8)	337,935 (100.0)
	연료용	113,160 (16.6)	-	113,160 (16.6)	91,204 (13.4)	60,000 (8.8)	9,570 (1.4)	208,986 (30.7)	175,868 (25.8)	22,644 (3.3)	-	568,272 (83.4)	681,432 (100.0)
	기타	34,550 (78.7)	-	34,550 (78.7)	9,360 (21.3)	-	-	-	-	-	-	9,360 (21.3)	43,910 (100.0)
2016 (N=58)	펄프용	1,099,098 (100.0)	-	1,099,098 (100.0)	-	-	-	-	-	-	-	-	1,099,098 (100.0)
	보드용	-	-	-	71,789 (18.8)	62,505 (16.4)	-	180,606 (47.3)	9,204 (2.4)	57,522 (15.1)	-	381,626 (100.0)	381,626 (100.0)
	연료용	40,379 (6.2)	-	40,379 (6.2)	112,554 (17.2)	3,320 (0.5)	-	227,105 (34.7)	124,085 (19.0)	147,177 (22.5)	-	614,241 (93.8)	654,620 (100.0)
	기타	-	-	-	3,600 (100.0)	-	-	-	-	-	-	3,600 (100.0)	3,600 (100.0)
2017 (N=55)	펄프용	1,090,754 (100.0)	-	1,090,754 (100.0)	-	-	-	-	-	-	-	-	1,090,754 (100.0)
	보드용	3,810 (1.2)	-	3,810 (1.2)	-	3,900 (1.3)	-	155,327 (50.5)	38,649 (12.6)	106,173 (34.5)	-	304,049 (98.8)	307,859 (100.0)
	연료용	342,542 (32.5)	-	342,542 (32.5)	66,556 (6.3)	-	-	323,346 (30.7)	235,656 (22.4)	84,264 (8.0)	-	709,822 (67.5)	1,099,098 (100.0)
	기타	16,040 (100.0)		16,040 (100.0)	-	-	-	-	-	-	-	-	16,040 (100.0)

12) 성형목탄

□ 성형목탄 생산업체의 원목 사용량은 없으며, 원목외 총 사용량은 3,824㎥로 수입재 목분 88.8%(3,394㎥), 국산 톱밥 11.2%(430㎥)를 사용함.

– 성형목탄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자재 사용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표 126> 성형목탄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원목외 사용량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합계	톱밥		목분		합계
				국산재	수입재	국산재	수입재	
2014 (N=2)	2,211 (42.4)	–	2,211 (42.4)	–	–	–	3,000 (57.6)	3,000 (57.6)
2015 (N=2)	223 (4.0)	–	223 (4.0)	2,014 (35.7)	–	–	3,400 (60.3)	5,414 (96.0)
2016 (N=2)	411 (12.0)	–	411 (12.0)	–	3,000 (88.0)	–	–	3,000 (88.0)
2017 (N=2)	–	–	–	430 (11.2)	–	–	3,394 (88.8)	3,824 (100.0)

13)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의 원목 총 사용량은 87,358㎥(원자재 총 사용량의 99.6%)로 전량 국산재(87,358㎥) 원목을 사용하였음.

– 원목외 총 사용량은 390㎥로 모두 대나무류 0.4%(390㎥)를 사용함.

– 목탄 및 목초액 생산을 위해 사용된 원자재의 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목 비중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한 99.6%로 조사되었음.

<표 127>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

구분	원목 사용량			원목외 사용량					합계
	국산재 원목	수입재 원목	소계	목재칩		대나무류	기타잡목	소계	
				국산	수입				
2014 (N=71)	83,018 (95.7)	2,400 (2.8)	85,418 (98.4)	–	–	1,140 (1.3)	230 (0.3)	1,370 (1.6)	86,788 (100.0)
2015 (N=67)	79,716 (98.9)	–	79,716 (98.9)	–	–	909 (1.1)	–	909 (1.1)	80,625 (100.0)
2016 (N=67)	90,617 (97.9)	–	90,617 (97.9)	–	–	540 (0.6)	1,400 (1.5)	1,940 (2.1)	92,557 (100.0)
2017 (N=67)	87,358 (99.6)	–	87,358 (99.6)	–	–	390 (0.4)	–	390 (0.4)	87,748 (100.0)

제3장 목재제품의 유통 및 수출입 현황

제3장 목재제품의 유통 및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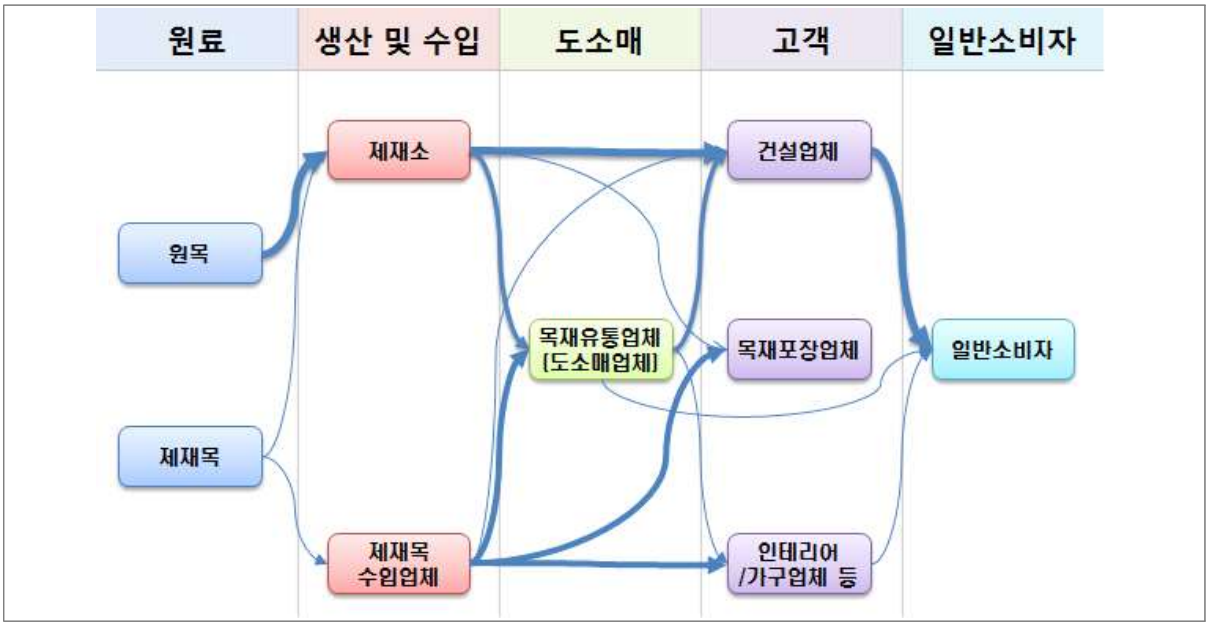
제1절 목재제품 유통구조

1. 목재제품 유통경로

□ 품목별 유통 경로는 직접적인 원료 구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하며, 중간 도매상을 거쳐 유통이 되기도 함. 15개 목재제품별 주 유통경로 및 용도별 유통량을 정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제재목

□ 국내산 및 수입산 원목을 제재하여 생산하는 제재목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제재목을 직접 수입해서 유통하는 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제재목을 유통하는 주된 경로는 '원목 – 제재 – 건설 및 포장업체', '원목 – 제재 – 도소매업체 – 건설 및 포장업체', '제재목 수입 – 제재 – 도소매업체 – 건설 및 포장업체', '제재목 수입 – 포장 및 가구업체' 등이 있음.



[그림 1] 제재목 유통경로

□ 제재소에서 생산된 제재목의 29.7%는 유통업체(도소매업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건설업체(건축구조재, 가설재), 목재포장업체(포장재), 인테리어업체 등에 B2C형태로 유통되는 양이 65.5%에 이름. 공공으로 조달되는 양은 0.4%, 개인소비자 중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양은 0.1%에 그침.

- 데크재, 원목마루판용은 상대적으로 공공으로 유통되는 양이 10.8%로 많은 편임.
- 목공산업용은 79.7%가 개인소비자(목공소 등)에게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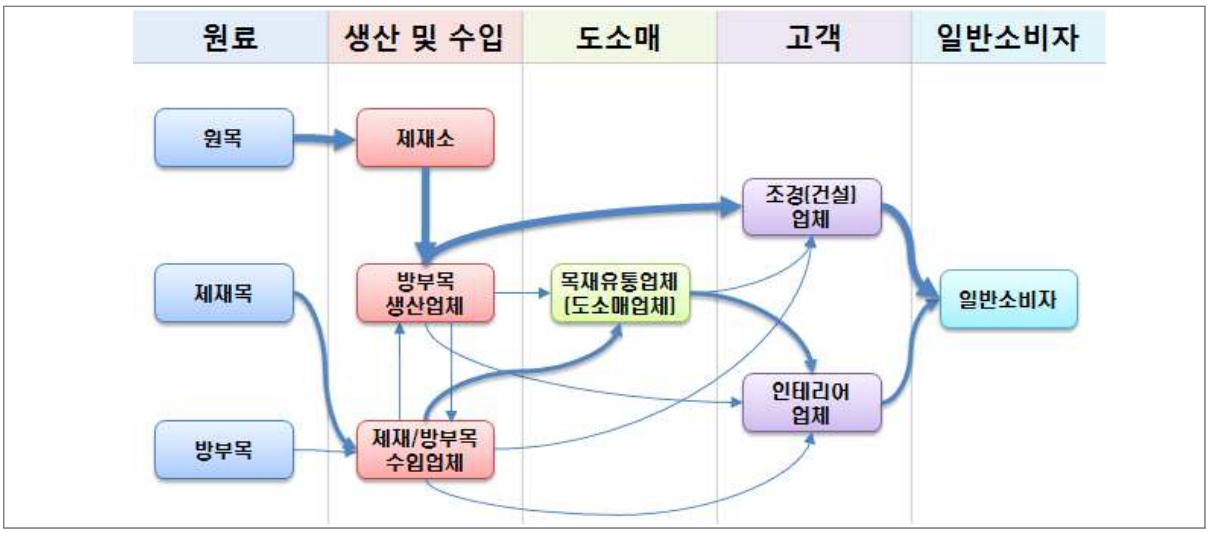
<표 128>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제재목

단위 : 개, ㎥(%)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502**	**6,515 (0.3)**	**2,097 (0.1)**	**1,416,466 (65.5)**	**1,675 (0.1)**	**89,815 (4.2)**	**641,313 (29.7)**	**4,308 (0.2)**	**2,162,189 (100.0)**
건축구조재	172	2,052 (0.4)	1,883 (0.4)	328,191 (64.1)	461 (0.1)	32,773 (6.4)	146,874 (28.7)	–	512,234 (100.0)
가설재	170	–	–	416,107 (58.3)	149 (0.0)	15,571 (2.2)	282,091 (39.5)	–	713,917 (100.0)
포장재	194	20 (0.0)	–	346,555 (92.1)	115 (0.0)	5,565 (1.5)	24,193 (6.4)	–	376,449 (100.0)
가구재	31	–	–	22,335 (88.4)	–	783 (3.1)	2,143 (8.5)	–	25,261 (100.0)
데크재, 원목마루판용	47	2,861 (10.3)	128 (0.5)	17,299 (62.0)	–	2,131 (7.6)	5,442 (19.5)	38 (0.1)	27,899 (100.0)
건축내장재	100	1,009 (0.3)	1 (0.0)	119,977 (40.3)	950 (0.3)	5,525 (1.9)	168,382 (56.6)	1,669 (0.6)	297,513 (100.0)
조경재/방부목 난연재 제외	17	316 (1.4)	37 (0.2)	16,052 (70.4)	–	614 (2.7)	5,603 (24.6)	175 (0.8)	22,797 (100.0)
목공산업용	14	–	48 (1.7)	538 (18.6)	–	2,301 (79.7)	–	–	2,888 (100.0)
기타	133	257 (0.1)	–	149,412 (81.5)	–	24,552 (13.4)	6,585 (3.6)	2,426 (1.3)	183,231 (100.0)

2) 방부목재

□ 방부목재를 유통하는 주된 경로는 '원목 – 제재 – 방부 – 조경(건설)업체', '제재목 수입 – 방부 – 유통회사 – 소비자(인테리어 시공회사)', '방부목재 수입 – 유통회사 – 소비자(인테리어 시공회사)' 등으로 조경(건설)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으며, 유통업체(도소매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방부목재 유통경로

□ 방부목재의 58.0%는 유통업체(도소매업체)를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공공분야로 유통되는 양은 7.8% 비중을 차지함.

– 조경용 방부목재는 조경(건설)업체로 직접 거래되는 양이 79.1%로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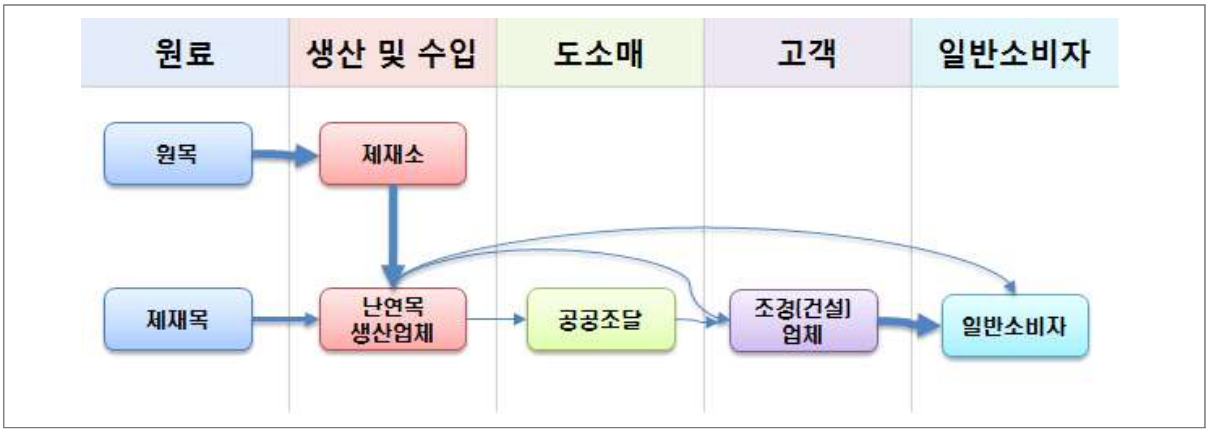
<표 129>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방부목재

단위 : 개, ㎥(%)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6**	**11,541 (7.2)**	**925 (0.6)**	**53,754 (33.4)**	**–**	**1,282 (0.8)**	**93,246 (58.0)**	**–**	**160,746 (100.0)**
조경용	16	2,346 (7.6)	77 (0.3)	24,266 (79.1)	–	619 (2.0)	3,367 (11.0)	–	30,674 (100.0)
데크용	18	1,912 (2.8)	848 (1.3)	16,209 (23.9)	–	532 (0.8)	48,179 (71.2)	–	67,680 (100.0)
건축용	6	12 (0.1)	–	2,820 (21.7)	–	6 (0.0)	10,162 (78.2)	–	13,000 (100.0)
기타	10	7,271 (14.7)	–	10,459 (21.2)	–	125 (0.3)	31,538 (63.9)	–	49,392 (100.0)

3) 난연목재

□ 난연목재는 모두 조경(건설)업체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전달되며, 민간 사업보다 공공 분야 사업에서 그 활용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



[그림 3] 난연목재 유통경로

□ 난연목재의 85.5%는 공공분야에 유통되는 등 조경(건설)업체로 직접 유입되는 물량은 많지 않음. 개인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되는 양도 13.9%에 이르는 등 아직 민간 건설시장에 도입이 활성화 되지 않음.

<표 130>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난연목재

단위 : 개, ㎥(%)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	22,360 (85.5)	–	160 (0.6)	–	3,640 (13.9)	–	–	26,160 (100.0)
건축용	2	22,360 (85.5)	–	160 (0.6)	–	3,640 (13.9)	–	–	26,160 (100.0)
기타	–	–	–	–	–	–	–	–	–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를 유통하는 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바닥재 테크 – 기둥재 – 난간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조경시설',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바닥재 – 휀스용',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바닥판 – 난간재' 등의 유통경로가 있음.



[그림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유통경로

□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의 72.7%는 공공분야에 유통되고 있으며, 조경(건설)업체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직접 유입되는 물량은 24.6%로 많지 않음.

– 조경용 목재플라스틱복합재는 전량 조경업체로 유통되고 있으며, 데크재 및 건축재 대부분 공공으로 유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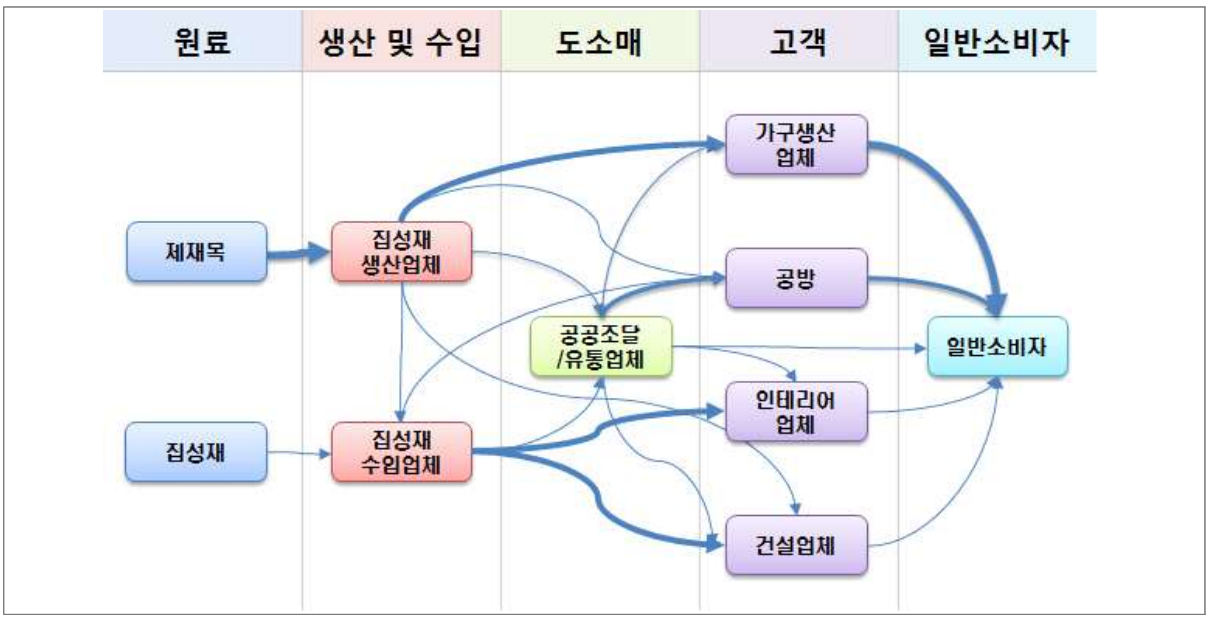
<표 131>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재플라스틱복합재

단위 : 개, 톤(%)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6	2,990 (72.7)	–	1,012 (24.6)	–	109 (2.7)	–	–	4,110 (100.0)
데크재	5	2,230 (88.1)	–	232 (9.2)	–	69 (2.7)	–	–	2,530 (100.0)
건축재	1	760 (95.0)	–	–	–	40 (5.0)	–	–	800 (100.0)
조경용	1	–	–	780 (100.0)	–	–	–	–	780 (100.0)
기타	–	–	–	–	–	–	–	–	–

5) 집성재

□ 집성재를 유통하는 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제재목 - 집성재생산 - 목재유통업체 - 가구생산업체 - 소비자', '제재목 - 집성재생산 - 유통업체 - 공방 - 소비자' 등의 유통경로가 있음.



[그림 5] 집성재 유통경로

□ 집성재의 62.8%는 가구 및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유통되고 있으며, 도소매 유통업체를 통한 유통보다 집성재(구조용) 중심으로 공공 분야로 유통되는 물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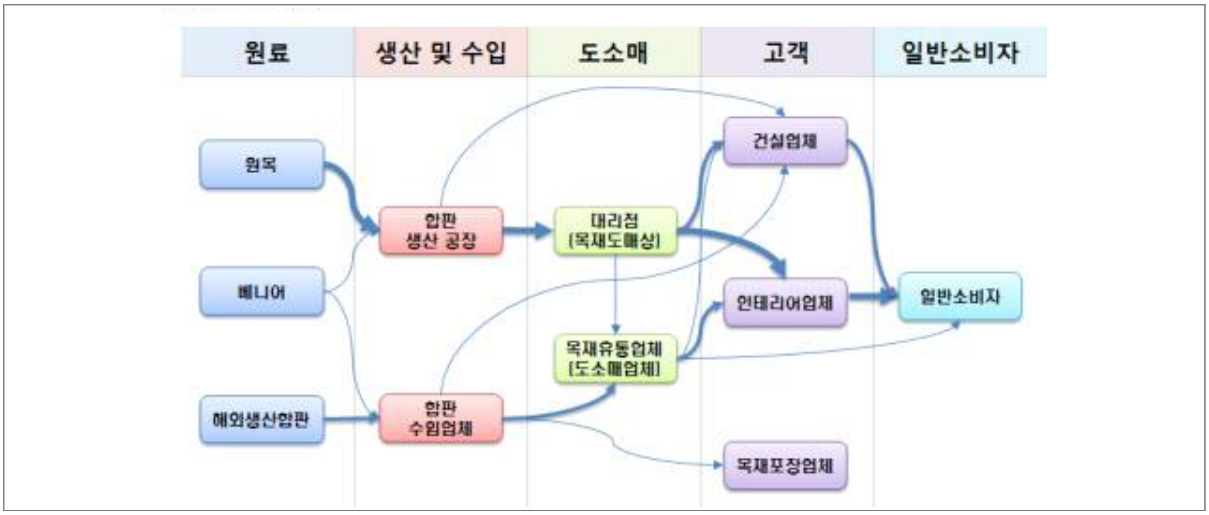
<표 132>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집성재

단위 : 개, 톤(%)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6	832 (27.3)	-	1,914 (62.8)	-	100 (3.3)	200 (6.6)	-	3,046 (100.0)
집성재 (구조용)	4	832 (32.9)	-	1,548 (61.2)	-	50 (2.0)	100 (4.0)	-	2,530 (100.0)
집성재 (인테리어용)	3	-	-	315 (67.7)	-	50 (10.8)	100 (21.5)	-	465 (100.0)
집성판	1	-	-	51 (100.0)	-	-	-	-	51 (100.0)
기타	-	-	-	-	-	-	-	-	-

6) 합판

□ 국내 유통되는 합판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합판을 유통하는 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음. '생산/수입 – 대리점(목재도매상) – 인테리어업체', '생산/수입 – 목재유통업체(도소매업체) – 건설업체', '생산/수입 – 인테리어업체' 등 중간 도매상을 중심으로 합판이 유통되고 있음.



[그림 6] 합판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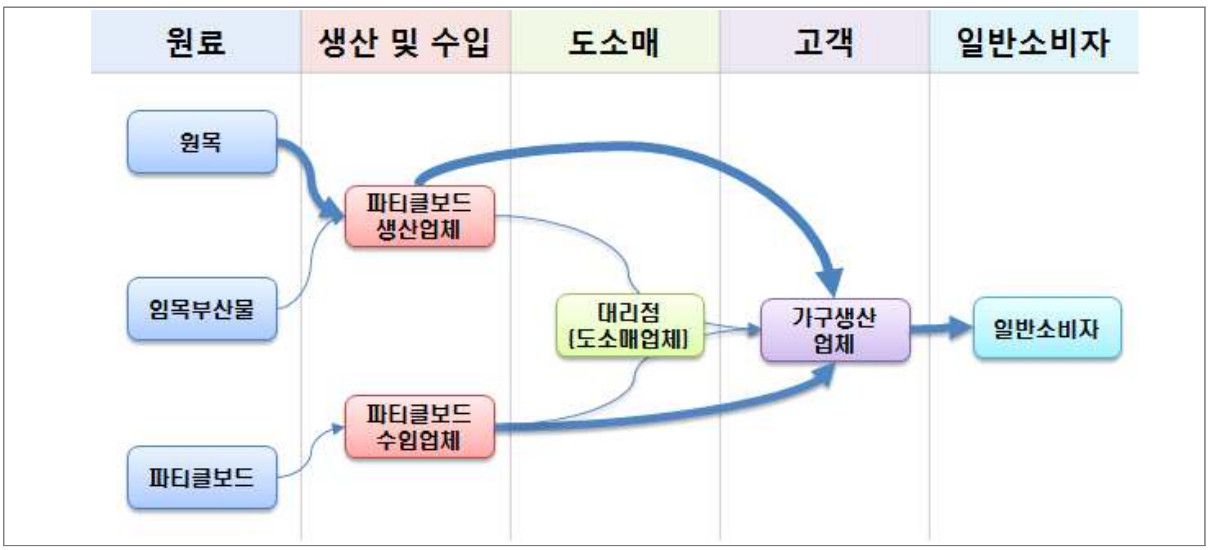
<표 133>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합판

단위 : 개, ㎥(%)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4**	**–**	**–**	**80,435 (18.9)**	**–**	**94,006 (22.1)**	**250,839 (59.0)**		**425,279 (100.0)**
가설재용	4	–	–	21,076 (7.9)	–	49,177 (18.4)	197,086 (73.7)	–	267,339 (100.0)
인테리어용	4	–	–	8,241 (10.1)	–	19,228 (23.7)	53,753 (66.2)	–	81,222 (100.0)
마루판용	2	–	–	46,598 (75.6)	–	15,054 (24.4)	–	–	61,652 (100.0)
포장용	–	–	–	–	–	–	–	–	–
가구용	1	–	–	896 (30.0)	–	2,090 (70.0)	–	–	2,985 (100.0)
기타	1	–	–	3,624 (30.0)	–	8,457 (70.0)	–	–	12,081 (100.0)

7)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를 유통하는 경로는 '생산 - 2차 가공업체 - 제조업체', '생산 - 가구생산업체' 등이 있으며, 본 조사 결과 국내 생산되는 파티클보드 생산량 모두는 가구생산업체로 바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파티클보드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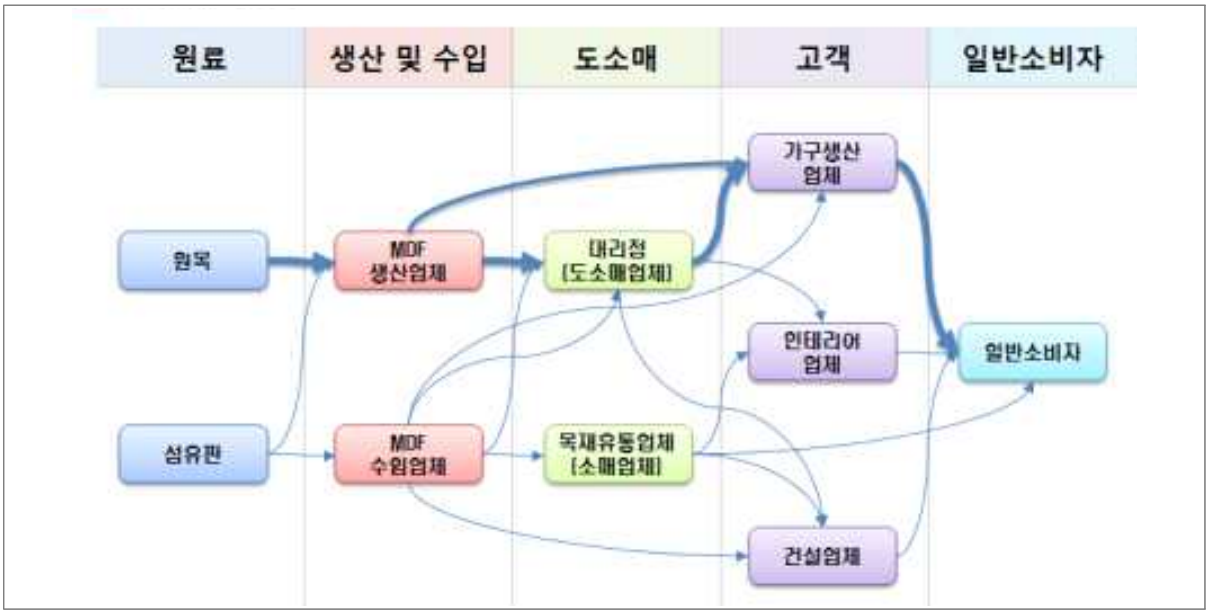
<표 134>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파티클보드

단위 : 개, ㎥(%)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3	-	-	865,241 (100.0)	-	-	-	-	865,241 (100.0)
가구재	3	-	-	845,917 (100.0)	-	-	-	-	845,917 (100.0)
기타	3	-	-	19,324 (100.0)	-	-	-	-	19,324 (100.0)

8) 섬유판

□ 섬유판 유통 경로는 '생산 - 대리점(도소매업체) - 가구생산 업체', '생산 - 대리점(도소매업체) - 인테리어 업체', '생산 - 대리점(도소매업체) - 건설 업체' 등이 있음.



[그림 8] 섬유판 유통경로

□ 섬유판의 64.8%는 가구생산 업체 등으로 직접 유통되고 있으며, 인테리어용을 중심으로 목재유통업체(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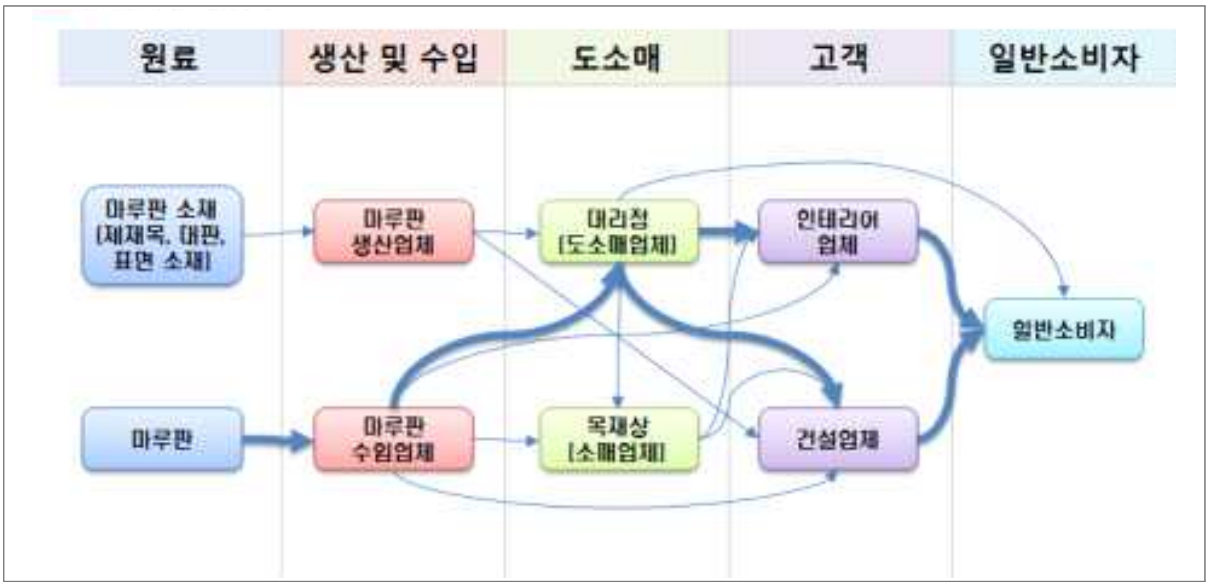
<표 135>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섬유판

단위 : 개, ㎥(%)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5**	**-**	**-**	**1,188,573 (64.8)**	**-**	**-**	**602,187 (32.8)**	**44,491 (2.4)**	**1,835,251 (100.0)**
가구재	5	-	-	1,018,729 (78.6)	-	-	235,490 (18.2)	41,750 (8.8)	1,295,969 (100.0)
인테리어용	4	-	-	106,742 (22.5)	-	-	365,390 (76.9)	2,741 (0.6)	474,873 (100.0)
마루판용	3	-	-	63,102 (98.0)	-	-	1,307 (2.0)	-	64,409 (100.0)
기타	-	-	-	-	-	-	-	-	-

9) 목질바닥재

□ 목질바닥재(마루판)를 유통하는 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마루판 수입 – 대리점/목재유통업체 – 건설업체/인테리어업체', '마루판소재(제재목, 대판 표면소재) – 마루생산 – 건설업체', '마루판 수입 – 건설업체/인테리어업체', '마루판소재 – 마루판생산 – 대리점 – 건설업체 – 인테리어업체' 등의 유통경로가 있음.



[그림 9] 목질바닥재 유통경로

□ 목질바닥재의 80.6%는 대리점(도소매업체) 등 타 유통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18.5%는 인테리어 및 건설업체에 직접 유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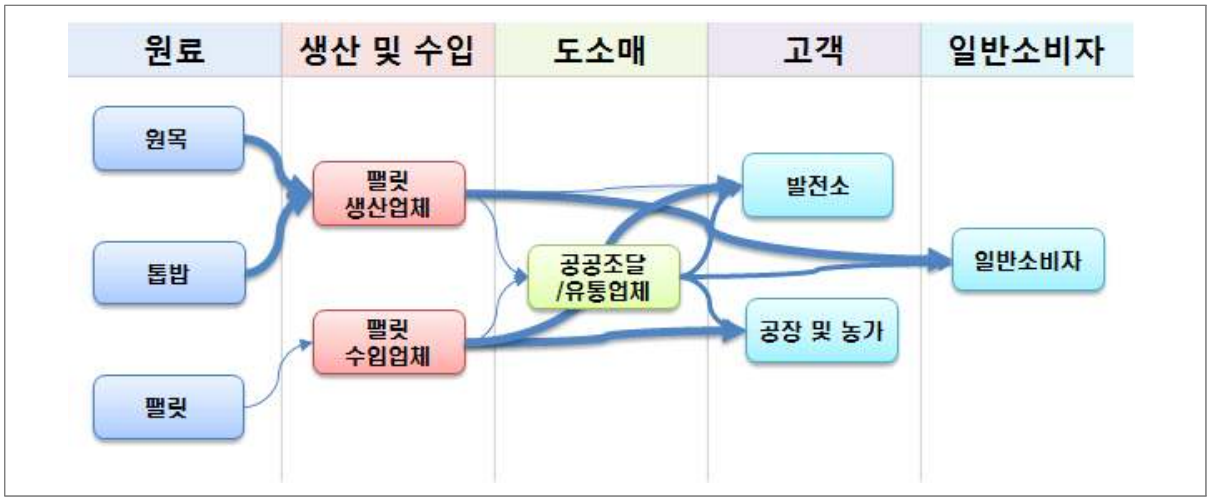
<표 136>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질바닥재

단위 : 개, m^3(%)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0	**400.0 (0.2)**		**33,316 (18.5)**		**1,044 (0.6)**	**144,872 (80.6)**		**179,632 (100.0)**
합판마루	5	400 (0.7)	–	20,968 (36.0)	–	270 (0.5)	36,672 (62.9)	–	58,310 (100.0)
강화마루	5	–	–	8,736 (11.1)	–	–	69,626 (88.9)	–	78,362 100.0)
강마루	2	–	–	3,612 (8.4)	–	774 (1.8)	38,574 (89.8)	–	42,960 (100.0)

10) 목재펠릿

□ 목재펠릿의 주된 유통 경로는 '국내생산 펠릿 - (공공조달) - 일반소비자(농가)/공장 및 농가/발전소', '수입 펠릿 - 발전소' 등이 있으며, 일반소비자에는 펠릿 보일러 외, 애완동물 비딩용, 축산시설 등이 있음.



[그림 10] 목재펠릿 유통경로

□ 펠릿 용도에 따라 유통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음.

- 농가주택용은 85.8%가 개인 소비자에게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아직 온라인 판매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음. 펠릿보일러 주된 수요자가 고연령층 중심이기 때문임.
- 발전용 펠릿은 전량 공공조달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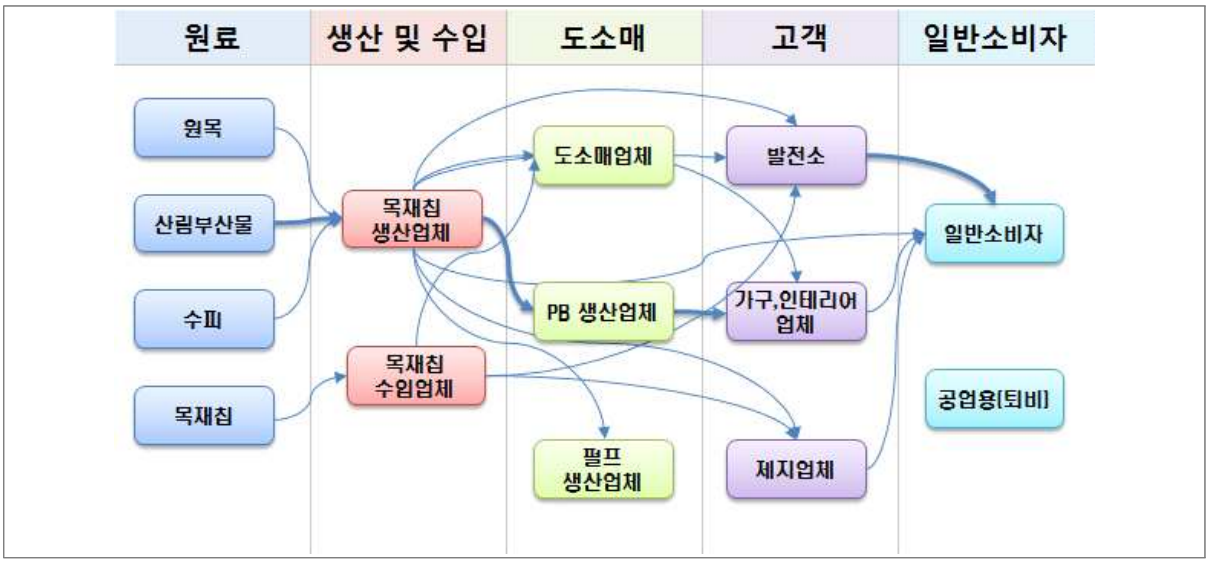
<표 137>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재펠릿

단위 : 개, 톤(%)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9	-	56,406 (47.8)	19,340 (16.4)	-	31,218 (26.4)	11,164 (9.5)	-	118,126 (100.0)
농가주택용	15	-	486 (1.3)	2,218 (6.1)	-	31,180 (85.8)	2,451 (6.7)	-	36,334 (100.0)
산업용	8	-	-	17,122 (66.2)	-	38 (0.1)	8,713 (33.7)	-	25,872 (100.0)
발전용 (화력열병합)	1	-	55,920 (100.00	-	-	-	-	-	55,920 (100.0)
기타	-	-	-	-	-	-	-	-	-

11) 목재칩

□ 목재칩을 유통하는 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국내생산 - 유통업체 -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 '국내생산 - 유통업체 - 파티클보드 제조용', '국내생산 - 제재 - 제지생산', '목재칩 - 국내생산 - 공장, 소비자/목재칩 - 퇴비용/목재칩 - 소비자', 목재칩 수입 -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제지업체 등이 있음.



[그림 11] 목재칩 유통경로

□ 펄프용칩은 대부분 제지업체로, 보드용은 보드 생산업체로 유통하고 있으며, 연료용은 발전소 직접 유통 비중이 81.2%, 도소매업체를 통한 비중이 18.8%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8>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재칩

단위 : 개, 톤(%)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55**	**270 (0.0)**		**1,805,841 (90.8)**		**25,640 (1.3)**	**156,636 (7.9)**		**1,988,387 (100.0)**
펄프용	12	-	-	835,947 (97.0)	-	25,640 (3.0)	-	-	861,587 (100.0)
보드용	19	-	-	277,901 (100.0)	-	-	-	-	277,901 (100.0)
연료용	36	270 (0.0)	-	677,593 (81.2)	-	-	156,636 (18.8)	-	834,499 (100.0)
기타	1	-	-	14,400 (100.0)	-	-	-	-	14,400 (100.0)

12) 성형목탄

□ 성형목탄의 주 유통 경로는 '성형목탄 – 유통업체(도소매업체) – 일반소비자' 등이 있음.



[그림 12] 성형목탄 유통경로

□ 성형목탄의 91.4%는 유통업체(도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39>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성형목탄

단위 : 개, 톤(%)

품목별	업체 수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	**–**	**–**	**48 (1.0)**	**–**	**380 (7.6)**	**4,549 (91.4)**	**–**	**4,977 (100.0)**
산업연료용	1	–	–	48 (15.0)	–	–	273 (85.0)	–	321 (100.0)
주거/캠핑용	2	–	–	–	–	380 (73.4)	138 (26.6)	–	518 (100.0)
기타	1	–	–	–	–	–	4,138 (100.0)	–	4,138 (100.0)

13)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및 목초액을 유통하는 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생산업체 – 판매업체 – 농가 또는 일반소비자', '생산업체 – 음식점 또는 일반소비자' 등의 유통경로가 있음.



[그림 13] 목탄 및 목초액 유통경로

□ 목탄 생산량 중 53.6%는 개인소비자(음식점업 등)에게 유통되고 있으며, 타 유통업체를 통한 비중은 38.3%에 이름. 목초액 생산량 중 78.8%는 개인소비자(농가 등)에게 유통되고 있음.

– 목탄 및 목초액 모두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물량은 7.7%, 2.2%로 비중이 많지 않음.

<표 140>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판매 현황_목탄 및 목초액

단위 : 개, 톤, kl(%)

품목별			업체수	공공		기업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71**	**-**	**-**	**40 (0.4)**	**768 (7.7)**	**5,367 (53.6)**	**3,836 (38.3)**		**10,009 (100.0)**
목탄 전체			**70**	**-**	**-**	**-**	**737 (8.4)**	**4,407 (50.1)**	**3,646 (41.5)**	**-**	**8,789 (100.0)**
임목탄	**흑탄**	연료용	11	-	-	-	32 (5.1)	246 (39.4)	346 (55.4)	-	624 (100.0)
		가정용	6	-	-	-	29 (25.9)	49 (43.8)	34 (30.4)	-	112 (100.0)
	백탄	연료용	56	-	-	-	590 (7.6)	3,939 (50.6)	3,263 (41.9)	-	7,792 (100.0)
		가정용	9	-	-	-	1 (1.9)	52 (98.1)	-	-	53 (100.0)
		기타	2	-	-	-	50 (100.0)	-	-	-	50 (100.0)
임목탄 소계			**66**	**-**	**-**	**-**	**702 (8.2)**	**4,287 (50.3)**	**3,643 (42.7)**	**-**	**8,631 (100.0)**
대나무숯		연료용	1	-	-	-	-	3 (100.0)	-	-	3 (100.0)
		농업용	1	-	-	-	-	17 (100.0)	-	-	17 (100.0)
		가정용	1	-	-	-	-	-	3 (100.0)	-	3 (100.0)
		기타	1	-	-	-	35 (100.0)	-	-	-	35 (100.0)
톱밥숯		연료용	1	-	-	-	-	100 (100.0)	-	-	100 (100.0)
목초액 전체			27	-	-	40 (3.3)	26 (2.2)	945 (78.8)	190 (15.8)	-	1,200 (100.0)
목초액		농업용	24	-	-	40 (5.30	26 (3.5)	494 (66.0)	190 (25.4)	-	749 (100.0)
		축산용	1	-	-	-	-	150 (100.0)	-	-	150 (100.0)
		기타	3	-	-	-	-	301 (100.0)	-	-	301 (100.0)
죽초액 전체			1	-	-	-	5 (25.0)	15 (75.0)	-	-	20 (100.0)
죽초액		농업용	1	-	-	-	-	15 (100.0)	-	-	15 (100.0)
		축산용	1	-	-	-	5 (100.0)	-	-	-	5 (100.0)

2. 목재제품 유통채널별 판매현황

□ **(생산업체)** 목재제품 생산업체가 생산 및 가공 후 판매하는 주요 소비처는 업체로 70.2% 비중을 차지하며, 공공분야 납품은 1.4%, 개인소비자는 3.2%에 그쳤음. 24.5%는 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게 대부분임.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의 경우 공공분야의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며, 목탄 및 목초액, 죽초액은 개인소비자 특히 오프라인의 판매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짐.

<표 141> 목재제품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채널별 판매 현황

단위 : 개, ㎥/톤/kl(%)

품목별	업체수	단위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합 계18)	**711**	**-**	**44,908 (0.6)**	**59,428 (0.8)**	**5,466,140 (70.2)**	**2,443 (0.0)**	**252,601 (3.2)**	**1,908,842 (24.5)**	**48,799 (0.6)**	**7,783,153 (100.0)**
제재목	502	㎥	6,515 (0.3)	2,097 (0.1)	1,416,466 (65.5)	1,675 (0.1)	89,815 (4.2)	641,313 (29.7)	4,308 (0.2)	2,162,189 (100.0)
방부목재	26	㎥	11,541 (7.2)	925 (0.6)	53,754 (33.4)	-	1,282 (0.8)	93,246 (58.0)	-	160,746 (100.0)
난연목재	2	㎥	22,360 (85.5)	-	160 (0.6)	-	3,640 (13.9)	-	-	26,160 (100.0)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6	톤	2,990 (72.7)	-	1,012 (24.6)	-	109 (2.7)	-	-	4,110 (100.0)
집성재	6	톤	832 (27.3)	-	1,914 (62.8)	-	100 (3.3)	200 (6.6)	-	3,046 (100.0)
합판	4	㎥	-	-	80,435 (18.9)	-	94,006 (22.1)	250,839 (59.0)		425,279 (100.0)
파티클보드	3	㎥	-	-	865,241 (100.0)	-	-	-	-	865,241 (100.0)
섬유판	5	㎥	-	-	1,188,573 (64.8)	-	-	602,187 (32.8)	44,491 (2.4)	1,835,251 (100.0)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	**-**	**-**	**-**	**-**	**-**	**-**	**-**	**-**
목질바닥재	10	㎥	400.0 (0.2)	-	33,316 (18.5)	-	1,044 (0.6)	144,872 (80.6)	-	179,632 (100.0)
목재펠릿	19	톤	-	56,406 (47.8)	19,340 (16.4)	-	31,218 (26.4)	11,164 (9.5)	-	118,126 (100.0)
목재칩	55	톤	270 (0.0)	-	1,805,841 (90.8)	-	25,640 (1.3)	156,636 (7.9)	-	1,988,387 (100.0)
목재브리켓	-	-	**-**	**-**	**-**	**-**	**-**	**-**	**-**	**-**
성형목탄	2	톤	-	-	48 (1.0)	-	380 (7.6)	4,549 (91.4)	-	4,977 (100.0)
목탄	70	톤	-	-	-	737 (8.4)	4,407 (50.1)	3,646 (41.5)	-	8,789 (100.0)
목초액	(27)	kl	-	-	40 (3.3)	26 (2.2)	945 (78.8)	190 (15.8)	-	1,200 (100.0)
죽초액	1	kl	-	-	-	5 (25.0)	15 (75.0)	-	-	20 (100.0)

18) 목탄 업체수에 목초액 업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업체수는 725개를 기준으로 함

□ **(수입업체)** 수입업체의 목재 생산 및 가공 후 유통 현황으로는 업체가 76.8%로 가장 많이 유통되었으며, 타 유통업체를 통한 비중은 20.5%, 공공과 개인소비자에게도 유통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42> 수입 목재제품 유통 채널별 판매현황

단위 : 개, ㎥/톤(%)

품목별		업체수	단위	공공		업체	개인소비자		타 유통업체	해외 수출	합계
				조달청	조달청 통하지 않음		온라인	오프라인			
합 계		**418**	**-**	**47,852 (0.7)**	**551 (0.0)**	**5,385,373 (76.8)**	**18,396 (0.3)**	**87,901 (1.3)**	**1,436,986 (20.5)**	**31,279 (0.4)**	**7,013,188 (100.0)**
제재목		131	㎥	36,738 (2.4)	383 (0.0)	1,106,702 (73.1)	15,284 (1.0)	21,358 (1.4)	330,878 (21.9)	1,900 (0.2)	1,513,543 (100.0)
방부목재		1	㎥	128 (0.2)	-	18,073 (35.2)	621 (1.2)	2,706 (5.3)	29,811 (58.1)	-	51,339 (100.0)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2	톤	-	-	180 (50.0)	-	90 (25.0)	60 (16.7)	30 (8.3)	360 (100.0)
집성재		29	톤	48 (0.1)	14 (0.0)	43,754 (48.5)	535 (0.6)	8,071 (8.9)	37,770 (41.9)	-	90,191 (100.0)
합판		78	㎥	7,681 (0.6)	5 (0.0)	738,777 (59.6)	220 (0.0)	21,304 (1.7)	469,181 (37.8)	3,380 (0.3)	1,240,548 (100.0)
파티클보드		8	㎥	-	-	630,670 (78.5)	-	4,000 (0.5)	168,982 (21.0)	-	803,652 (100.0)
섬유판		7	㎥	-	-	47,871 (35.6)	45 (0.0)	180 (0.1)	83,289 (62.0)	2,969 (2.2)	134,353 (100.0)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4	톤	-	-	19,442 (33.1)	456 (0.8)	2,886 (4.9)	35,957 (61.2)	-	58,741 (100.0)
목질바닥재		24	㎥	316 (0.1)	51 (0.0)	197,249 (53.2)	-	6,241 (1.7)	167,064 (45.0)	-	370,921 (100.0)
목재펠릿		53	톤	2,941 (0.2)	-	1,243,437 (94.1)	-	6,860 (0.5)	45,811 (3.5)	23,000 (1.7)	1,322,050 (100.0)
목재칩	펄프용	1	톤	-	-	845,719 (100.0)	-	-	-	-	845,719 (100.0)
	보드용	1	톤	-	-	9,000 (100.0)	-	-	-	-	9,000 (100.0)
	연료용	7	톤	-	66 (0.0)	404,322 (99.9)	-	-	140 (0.0)	-	404,528 (100.0)
목재브리켓		3	톤	-	-	-	102 (19.1)	149 (27.9)	284 (53.1)	-	535 (100.0)
성형목탄		13	톤	-	-	766 (2.2)	-	897 (2.6)	28,618 (82.2)	-	34,832 (100.0)
목탄		48	톤	-	-	10,127 (19.9)	605 (1.2)	5,250 (10.3)	34,816 (68.5)	-	50,798 (100.0)
기타		8	-	-	32 (0.0)	69,284 (84.4)	528 (0.6)	7,909 (9.6)	4,325 (5.3)	-	82,078 (100.0)

제2절 목재제품 수출 현황

□ **(제재목)** 제재목 생산업체 중 수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02개 중 3개(0.6%)였으며,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4407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 19,419톤, 중국 2,359톤, 인도네시아에 236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3> 제재목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574	6	1.0	일본, 중국 등	11,594	4407
2015	650	5	0.8	일본, 중국 등	19,053	
2016	512	2	0.4	일본, 중국 등	23,718	
2017	502	3	0.6	일본, 중국 등	22,068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3925.90 기준)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아랍에미리트 연합(1,644톤), 일본(1,464톤), 인도(731톤) 등지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차 가공한 업체에 의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사에서는 2차 가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조사에서는 수출 여부 및 양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표 14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9	-	-	러시아, 베트남 등	9,486	3925.90
2015	7	-	-	일본, 러시아 등	7,534	
2016	6	-	-	일본, 러시아 등	6,486	
2017	6	-	-	아랍메미리트연합, 일본 등	7,450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집성재)** 집성재 생산업체 모두 2017년 수출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집성재 4418.60.0000, 4418.90.9000, 집성판 4412.99.2090 기준. 집성판이 일부 포함된 수치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티모르 69톤, 남아프리카 공화국 7톤, 카자흐스탄 6톤 이 수출된 것으로 보임.

<표 145> 집성재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6	-	-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1,644	4418.60.0000 4418.90.9000 4412.99.2090
2015	6	-	-	카타르, 괌 등	1,144	
2016	6	-	-	필리핀, 기니	822	
2017	6	-	-	동티모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2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합판)** 합판 생산업체 모두 2017년 수출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 합판 생산업체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합판 생산업체 중 수출량은 없었으나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4412 기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본 821톤, 중국 555톤, 베트남 212톤 등이 수출된 것으로 조사됨. 이는 2차 가공한 업체에 의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사에서는 2차 가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조사에서는 수출여부 및 양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표 146> 합판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5	-	-	일본, 몽골, 중국 등	3,803	4412
2015	6	-	-	이라크, 일본 등	4,274	
2016	4	-	-	일본, 이라크 등	2,502	
2017	4	-	-	일본, 중국	2,498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파티클보드)**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모두 2017년 수출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 생산업체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티클보드 생산업체 중 수출량은 없었으나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4410 기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본 1,046톤, 몽골 141톤, 캄보디아 27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차 가공한 업체에 의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사에서는 2차 가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조사에서는 수출여부 및 양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표 147> 파티클보드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3	-	-	카타르, 일본 등	3,012	4410
2015	3	-	-	일본, 베트남 등	2,324	
2016	3	-	-	일본, 우주베키스탄 등	855	
2017	3	-	-	일본, 몽골 등	1,459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섬유판)** 섬유판 생산업체 중 수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개 중 3개(60.0%)였으며,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4411 기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본 22,120톤, 베트남 8,862톤, 중국 4,442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8> 섬유판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6	4	66.7	일본, 베트남 등	47,597	4411
2015	6	3	50.0	일본, 베트남 등	38,525	
2016	6	2	33.3	일본, 베트남 등	46,894	
2017	5	3	60.0	일본, 베트남 등	42,918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목질바닥재)** 목질바닥재 생산업체 중 수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없었으나,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합판마루 4412.10.2000, 4412.99.1041, 4412.99.1042, 4412.99.9210, 강화마루 4411.92.2010 기준)에 따르면 2017년 합판마루의 경우 홍콩 2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9> 목질바닥재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14	2	14.3	일본, 인도 등	1,179	4412.10.2000 4412.99.1041 4412.99.1042 4412.99.9210 4411.92.2010
2015	12	2	16.7	캄보디아, 러시아등	1,165	
2016	12	1	20.0	베트남, 호주 등	1,356	
2017	10	-	-	홍콩	2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목재칩)** 목재칩 생산업체 모두 2017년 수출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0> 목재칩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84	1	1.2	앙골라	5	4401.22.1000 4401.22.9000
2015	75	-	-	-	-	
2016	58	-	-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2,515	
2017	55	-	-	-	-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성형목탄)** 국내에서 생산업체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형목탄 생산업체 중 수출량은 없었으나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4402.10.1000, 4402.90.1000 기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본 219톤, 미국 19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51> 성형목탄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2	-	-	중국, 일본 등	93	4402.10.1000 4402.90.1000
2015	2	-	-	일본, 호주 등	188	
2016	2	-	-	호주, 일본 등	260	
2017	2	-	-	일본, 미국 등	296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 **(목탄 및 목초액)**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 중 수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없었으나, 한국무역통계 자료(HS코드 4402.10.9000, 4402.90.9000 기준)에 따르면 작년 한해 괌 28톤, 중국, 베트남 각각 21톤 등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52> 목탄 및 목초액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 개, %, 톤

구분	업체수	수출 여부		수출 국가	수출량	HS코드
		업체수	비중			
2014	71	-	-	덴마크, 호주 등	357 (목탄2, 목초액355)	4402.10.9000 4402.90.9000
2015	67	1	1.5	중국, 미국 등	90	
2016	67	-	-	베트남, 중국	41	
2017	71	-	-	괌, 중국 등	1,364	

※ 수출여부는 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수출국가 및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임

제3절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 현황

1.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 분포 및 일반현황

□ 국내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는 전국 701개로 확인되었으며, 17개 시도별로는 인천에 209개(29.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경기 156개(22.3%), 서울 106개(15.1%), 부산 61개(8.7%), 경남 40개(5.7%) 등의 순으로 파악됨.

□ 국내 수입·유통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업체의 영향으로 수입 업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입 항구는 인천항이었으며, 전체 6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음.

- 부산·경남 중심으로는 부산항(전체 27.6%), 광양항(전체 5.9%)을 이용
- 전라권 중심으로는 군산항(전체 3.1%)을 주로 이용

<표 153> 수입·유통 업체 지역별 분포(사업체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체 수	701	106	61	13	209	3	3	5	3	156	11	17	17	20	11	20	40	2
비중	100.0	15.1	8.7	1.9	29.8	0.4	0.4	1.3	0.4	22.3	1.6	2.4	2.4	2.9	1.6	2.9	5.7	0.3

<표 154> 수입·유통 업체 지역별 분포(품목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재목	219	12	24	–	94	1	2	2	–	40	4	10	2	8	2	4	14	–
방부목재	26	3	1	–	6	–	1	–	–	10	–	1	–	–	–	2	2	–
난연목재	1	–	–	–	1	–	–	–	–	–	–	–	–	–	–	–	–	–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5	–	–	–	4	–	–	–	–	–	–	–	–	–	–	–	1	–
집성재	70	8	3	–	35	–	1	–	–	17	–	2	–	–	–	2	2	–
합판	157	14	18	–	82	–	2	2	–	20	–	6	–	4	–	3	6	–
파티클보드	23	4	3	–	12	–	–	–	–	1	–	–	–	2	–	1	–	–
섬유판	21	3	1	–	14	–	–	–	–	2	–	–	–	–	–	–	1	–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27	–	–	–	9	–	1	–	–	10	–	3	1	–	–	–	3	–
목질바닥재	39	9	1	–	6	–	–	–	–	16	1	1	–	1	–	1	3	–
목재펠릿	158	48	8	2	6	2	–	1	2	44	3	4	10	4	6	9	8	1
목재칩	34	12	–	–	1	1	–	1	–	9	–	2	1	2	–	2	2	1
목재브리켓	14	2	2	–	1	–	–	–	–	8	–	–	–	–	–	1	–	–
성형목탄	36	10	1	4	3	1	–	2	1	10	1	1	1	–	–	–	1	–
목탄·목초액	104	16	13	11	10	1	–	2	–	22	3	–	4	1	3	7	10	1
합계	934 19)	141	75	17	284	6	7	10	3	209	12	30	19	22	11	32	53	3

19) 1개 업체가 여러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업체 수를 산정한 것이기에, 사업체 기준 수와 다를 수 있음

□ 목재제품 수입은 생산과 달리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품목별로 설문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한 생산업체와 달리 통합된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한 수입업체 조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을 수입량 기준으로 정리함. 그로 인해, 목재이용법에 고시된 15개 제품 외 원목과 기타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일부 포함되어 조사되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이후 목재제품 품목별 조사결과는 복수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로 수입하는 목재제품 한 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155> 품목별 수입업체 수

전체 N=418, 단위 : 개, %

품목별	주로 취급하는 목재제품	
	업체 수(개)	비중(%)
합 계	418	100.0
제재목	131	31.3
방부목재	1	0.2
난연목재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0.5
집성재	29	6.9
합판	78	18.7
파티클보드	8	1.9
섬유판	7	1.7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1.0
목질바닥재	24	5.7
목재펠릿	53	12.7
펄프용칩	1	0.2
보드용칩	1	0.2
연료용칩	7	1.7
목재브리켓	3	0.7
성형목탄	13	3.1
목탄	48	11.5
기타	8	1.9

□ 수입·유통 업체의 회사형태는 회사법인이 309개, 개인사업체 109개로 조사됨.

– 품목별로는 방부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펄프용칩, 연료용칩, 목재브리켓 수입업체의 경우 모두 회사법인으로 나타남.

□ 수입·유통 업체의 평균 설립기간(업력)은 15.2년으로 조사됨

– 품목별로는 펄프용칩 업체가 평균 45.0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다음으로 배향성스트랜드보드(평균 25.3년), 섬유판 (평균 25.0년)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156> 수입·유통 업체 일반 현황

전체, 단위 : 개, 년

품목별	업체 수	회사형태(개)			업력(년)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기타	평균
합 계	**418**	**309**	**109**	**0**	**15.2**
제재목	131	105	26	0	16.1
방부목재	1	1	0	0	21.0
난연목재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2	0	0	14.5
집성재	29	24	5	0	17.9
합판	78	64	14	0	15.0
파티클보드	8	7	1	0	23.8
섬유판	7	6	1	0	25.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3	1	0	25.3
목질바닥재	24	19	5	0	15.9
목재펠릿	53	41	12	0	15.2
펄프용칩	1	0	1	0	45.0
보드용칩	1	1	0	0	8.0
연료용칩	7	5	2	0	7.8
목재브리켓	3	1	2	0	18.7
성형목탄	13	9	4	0	9.1
목탄 및 목초액	48	15	33	0	9.2
기타	8	6	2	0	12.4

□ 원목 및 제재목을 수입하는 업체 중 제재 가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110개, 수입 유통만 하는 업체는 307개로 조사됨.

– 품목별로는 방부목재와 펄프용칩 업체의 전체가 제재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보드용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업체는 제재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 157> 수입·유통업체 가공시설 설치 여부

원목 및 제재목을 수입하는 업체, N=418, 단위 : 개

품목별	업체 수 (개)	제재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음	제재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수입 유통만 함)
합 계	**418**	**110**	**307**
제재목	131	71	60
방부목재	1	–	1
난연목재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1	1
집성재	29	2	27
합판	78	22	56
파티클보드	8	2	6
섬유판	7	3	4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	4
목질바닥재	24	2	22
목재펠릿	53	1	52
펄프용칩	1	1	–
보드용칩	1	–	1
연료용칩	7	–	7
목재브리켓	3	–	2
성형목탄	13	1	12
목탄	48	2	46
기타	8	2	6

2.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 종사자 현황

□ 2017년 기준 목재 수입유통업 종사자 수는 총 1,631명으로 조사됨.

<표 158> 수입 품목별 수입·유통업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품목	업체 수 (개)	종사자 수 (2017년 말 기준) 목재 수입·유통 분야(명)
합 계	418	1,631
제재목	131	323
방부목재	1	2
난연목재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12
집성재	29	106
합판	78	271
파티클보드(PB)	8	32
섬유판(MDF)	7	346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19
목질바닥재	24	186
목재펠릿	53	170
펄프용칩	1	5
보드용칩	1	5
연료용칩	7	16
목재브리켓	3	7
성형목탄	13	39
목탄	48	73
기타	8	19

※ 수입·유통업체의 경우 1개 업체에서 2가지 이상 품목을 수입·유통할 수 있기에, 2가지 이상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주로 취급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정리함.

□ 수입·유통 업체의 대표자는 대부분 남성(92.8%)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도 남성 대표자의 비율이 높았음.

□ 수입·유통 업체의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평균 54.5세로 조사됨.

– 품목별로는 목재브리켓(평균 71.0세), 펄프용칩(평균 70.0세), 방부목재(평균 66.0세)의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남.

□ 대표자의 평균 경력은 17.5년으로 조사됨.

– 품목별로는 펄프용칩 업체 대표자의 평균 경력이 평균 41.0년으로 가장 높았고 파티클보드(평균 28.7년), 목재브리켓(평균 23.3년)업체 대표자의 경력도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159> 수입·유통 업체 대표자 일반 현황

단위 : 개(무응답 제외), 명(%), 세, 년

품목별	업체 수	성별		연령	경력
		남성	여성	평균	평균
합 계	418	388 (92.8)	30 (7.2)	55.6	17.5
제재목	131	121 (92.4)	10 (7.6)	56.2	20.3
방부목재	1	1 (100.0)	-	66.0	21.0
난연목재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2 (100.0)	-	55.5	18.5
집성재	29	26 (89.7)	3 (10.3)	56.8	21.5
합판	78	75 (96.2)	3 (3.8)	54.6	20.3
파티클보드(PB)	8	8 (100.0)	-	55.8	28.7
섬유판(MDF)	7	6 (85.7)	1 (14.3)	60.8	24.7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4 (100.0)	-	58.0	23.0
목질바닥재	24	23 (95.8)	1 (4.2)	54.7	18.5
목재펠릿	53	51 (96.2)	2 (3.8)	57.6	9.8
펄프용칩	1	1 (100.0)	-	70.0	41.0
보드용칩	1	1 (100.0)	-	48.0	8.0
연료용칩	7	4 (57.1)	3 (42.9)	59.3	7.7
목재브리켓	3	2 (66.7)	1 (33.3)	71.0	23.3
성형목탄	13	12 (92.3)	1 (7.7)	53.2	14.3
목탄 및 목초액	48	43 (89.6)	5 (10.4)	50.5	8.9
기타	8	8 (100.0)	-	51.3	14.8

제4절 목재제품 수입업체 매출 및 수입현황

1. 목재제품 수입·유통 업체 매출액 현황

□ 2017년 품목 매출액 합계는 4조 7,913억 원으로 전년(4조 4,967억)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목재칩 보드용 매출액이 가장 대폭으로 (3400.0%) 증가하였고, 목질바닥재 (335.4%), 배향성 스트렌드보드(280.2%)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목재분야 수입·유통 업체의 전체 매출 규모는 85조 8,072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차지하는 품목은 합판, 제재목, 파티클보드 순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보드용 칩, 목질바닥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품목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160> 수입·유통 업체 매출액 현황

전체, 단위 : 개, 억 원, %, 무응답 제외

품목별	2016		2017		품목 매출액 증감율
	업체 수	품목 매출액	업체 수	품목 매출액	
합 계	**411**	**44,967**	**418**	**47,913**	**6.6**
제재목	159	12,323	131	10,135	△17.8
방부목재	1	200	1	186	△7.0
난연목재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14	2	23	64.3
집성재	31	2,158	29	1,553	△28.0
합판	80	10,920	78	13,159	20.5
파티클보드	7	3,613	8	7,664	112.1
섬유판	5	923	7	1,189	28.8
배향성스트랜드보드	3	106	4	403	280.2
목질바닥재	20	1,040	24	4,528	335.4
목재펠릿	57	1,562	53	2,415	54.6
펄프용칩	1	5,968	1	4,522	△24.2
보드용칩	1	4	1	140	3400.0
연료용칩	7	4,892	7	293	△94.0
목재브리켓	1	0	3	30	–
성형목탄	7	238	13	433	81.9
목탄	19	574	48	748	30.3
기타	10	432	8	491	13.7

2. 목재제품별 수입량 및 수입액

□ 목재제품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물량 측면에서는 원목의 수입량(3,599,39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제재목(2,518,190㎥), 목재펠릿(2,431,165톤)등으로 조사됨.
- 2016년 대비 집성재의 수입 물량과 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상대적으로 펄프용 목재칩의 수입 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 수입 단가의 경우 강화마루 목질바닥재,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

<표 161> 목재제품 수입물량 및 금액 추이(2017년)

물량 단위 : ㎥(원목,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톤(그 외) / 수입금액 단위 : 천$ / 수입단가 단위 : ㎥, $/톤 / 증감 : %

구 분		수입물량		수입금액		수입단가	
		2017	2016 대비 증감	2017	2016 대비 증감	2017	2016 대비 증감
원목		3,599,390	△6.6	586,155	1.4	163	8.7
제재목		2,518,190	14.9	709,254	15.2	282	0.4
방부목재		–	–	–	–	–	–
난연목재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10,249	40.0	39,054	44.5	3,811	3.2
집성재(집성판포함)		11,792	69.4	13,639	43.3	1,157	△15.4
합판		1,718,660	3.9	777,598	2.9	452	△1.1
파티클보드		1,583,800	24.2	282,210	44.2	178	14.1
섬유판		155,640	23.6	55,022	9.1	354	△11.5
배향성스트랜드보드		114,458	4.9	43,827	16.9	383	11.3
목질바닥재[20]	합판마루	8,463	△16.8	17,692	△30.5	2,091	△16.4
	강화마루	27,934	△11.5	296,165	1,173.9	10,602	1,340.5
	강마루	–	–	–	–	–	–
목재펠릿		2,431,165	41.6	280,433	62.0	115	13.9
목재칩	보드용	29,609	△28.2	2,921	△26.0	99	3.1
	펄프용	845,719	△12.4	60,530	△16.6	72	△4.0
	연료용	–	–	–	–	–	–
목재브리켓		–	–	–	–	–	–
성형목탄		37,294	1.5	29,165	△0.6	782	△2.1
목탄 및 목초액(목탄기준)		92,241	△26.9	81,150	△27.6	880	△0.9

※ 수입현황은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 합판보드협회 통계 및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에서 발췌

※ HS코드가 정의되지 않은 방부목재와 난연목재는 HS코드 분류가 불명확함

20) 2017년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은 변경된 HS코드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로 2016년 결과와 비교 시 해석에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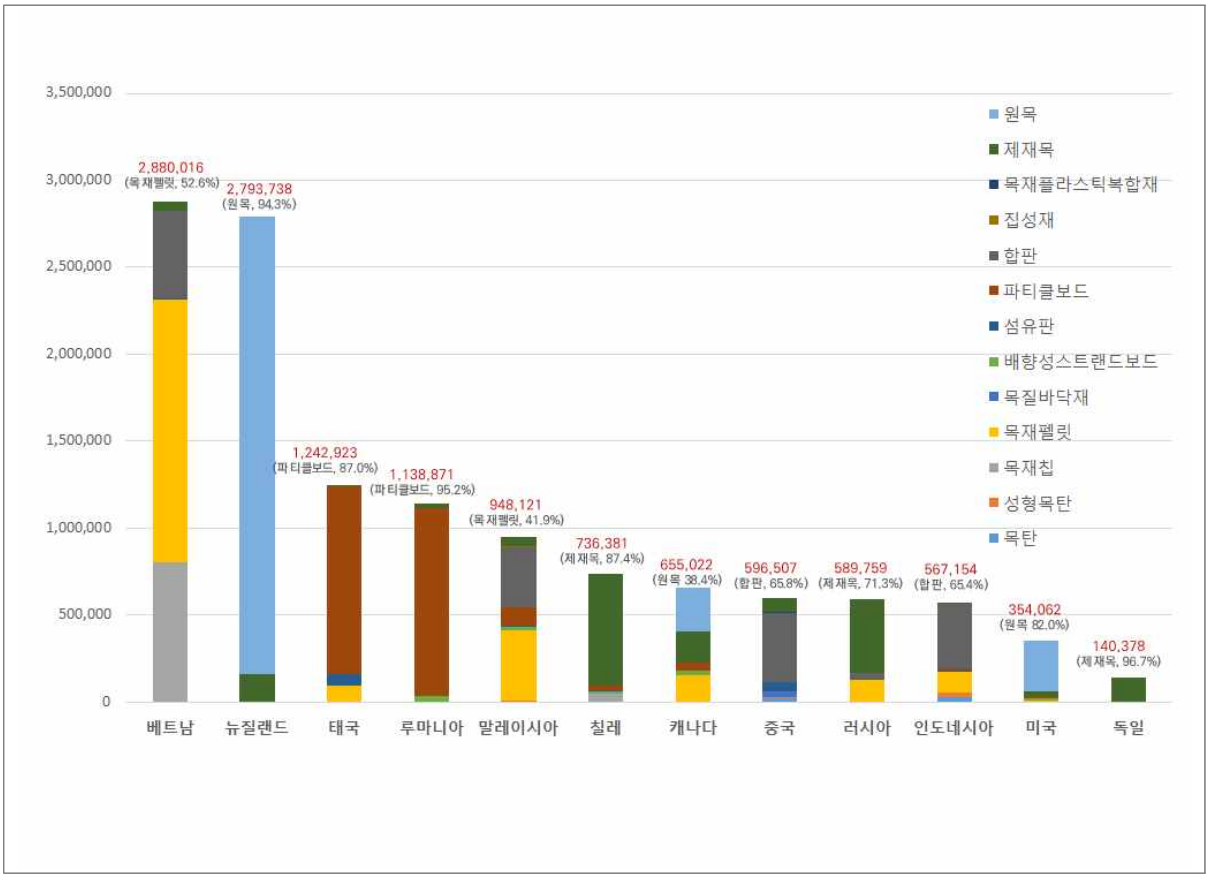
<표 162> 목재제품 수입물량 및 금액 추이

물량 단위 : ㎥(원목,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톤(그 외) / 수입금액 단위 : 천$ / 수입단가 단위 : ㎥, $/톤 / 증감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단가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단가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단가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단가
원목		3,671,140	713,747	194	3,776,690	593,774	157	3,852,150	578,027	150	3,599,390	586,155	163
제재목		1,984,010	639,606	322	2,155,570	652,391	302	2,191,030	615,695	281	2,518,190	709,254	282
방부목재		1,342,970	704,069	524	–	–	–	–	–	–	–	–	–
난연목재		1,133,549	198,649	175	–	–	–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124,090	56,594	456	7,792	38,095	4,889	7,320	27,024	3,692	10,249	39,054	3,811
집성재(집성판포함)		–	–	–	4,417	7,929	1,795	6,963	9,521	1,367	11,792	13,639	1,157
합판		119,941	105,956	883	1,384,450	694,887	502	1,654,530	755,580	457	1,718,660	777,598	452
파티클보드		1,819,855	318,153	175	1,244,210	202,589	163	1,275,000	195,761	156	1,583,800	282,210	178
섬유판		4,609	7,763	1,684	128,250	56,560	442	125,960	50,413	400	155,640	55,022	354
배향성스트랜드보드		21,027	8,843	421	13,668	42,579	3115	109,067	37,479	344	114,458	43,827	383
목질바닥재	합판마루	11,504	24,330	2,115	9,476	22,188	2,341	10,171	25,438	2,501	8,463	17,692	2,091
	강화마루	35,192	29,577	840	36,509	29,174	799	31,575	23,249	736	27,934	296,165	10,602
	강마루	–	–	–	–	–	–	–	–	–	–	–	–
목재펠릿		–	–	–	1,470,684	176,963	120	1,716,641	173,122	101	2,431,165	280,433	115
목재칩	보드용	5,844	30,113	5,153	7,470	1,411	189	41,257	3,949	96	29,609	2,921	99
	펄프용	0	0	–	935,099	77,638	83	965,631	72,578	75	845,719	60,530	72
	연료용	–	–	–	–	–	–	–	–	–	–	–	–
목재브리켓		52,592	45,430	864	0	0	–	–	–	–	–	–	–
성형목탄		50,025	4,922	98	37,685	30,390	806	36,744	29,346	799	37,294	29,165	782
목탄 및 목초액(목탄기준)		1,017,384	83,146	82	121,016	113,478	938	126,206	112,068	888	92,241	81,150	880

□ 2017년의 목재제품의 원산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원목이었던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 원목 수입 없이 주로 목재펠릿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합판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많으며, 태국으로부터는 파티클보드 중심으로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는 원목과 목재펠릿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부터는 목재펠릿 중심으로, 칠레로부터는 제재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



[그림 14] 국가별 목재제품 수입량(2017년 기준)

□ 합판 수입량(1,718,660㎥)의 대부분(73.8%)은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티클보드 수입물량(1,583,800㎥)의 87.0%는 태국, 루마니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음.

□ 목재펠릿과 펄프용 목재칩은 베트남의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성재, 목질바닥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게 조사됨.

<표 163> 품목별 주요 수입국(2017년 기준)

단위 : ㎥(%) / 톤(%)

구 분			합계[21]	1순위		2순위		3순위	
				국가명	물량	국가명	물량	국가명	물량
원목		㎥	3,599,390	뉴질랜드	2,634,310 (73.2)	미국	290,490 (8.1)	캐나다	251,350 (7.0)
제재목		㎥	2,518,190	칠레	643,810 (25.6)	러시아	420,310 (16.7)	라트비아	185,300 (7.4)
방부목재		톤	–	–	–	–	–	–	–
난연목재		톤	–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톤	10,249	중국	7,575 (73.9)	말레이시아	503 (4.9)	폴란드	426 (4.2)
집성재(집성판 포함)		톤	11,792	중국	3,940 (33.4)	베트남	3,473 (29.5)	인도네시아	1,146 (9.7)
합판		㎥	1,718,660	베트남	502,850 (29.3)	중국	392,290 (22.8)	인도네시아	372,540 (21.7)
파티클보드		㎥	1,583,800	태국	1,083,710 (68.4)	루마니아	188,000 (11.9)	말레이시아	106,000 (6.7)
섬유판		㎥	155,640	태국	61,890 (39.8)	중국	48,470 (31.1)	인도네시아	9,450 (6.1)
배향성스트랜드보드		톤	114,458	루마니아	32,861 (28.7)	캐나다	29,485 (25.8)	말레이시아	23,910 (20.9)
목질바닥재	합판마루	톤	8,463	중국	8,329 (98.4)	베트남	96 (1.1)	이탈리아	16 (0.2)
	강화마루	톤	27,934	중국	25,807 (92.4)	독일	845 (3.0)	이탈리아	418 (1.5)
	강마루	톤	–	–	–	–	–	–	–
목재펠릿		톤	2,431,165	베트남	1,515,802 (62.3)	말레이시아	405,432 (16.7)	캐나다	151,673 (6.2)
목재칩	보드용	톤	29,609	말레이시아	20,571 (69.5)	베트남	3,840 (13.0)	인도네시아	2,439 (8.2)
	펄프용	톤	845,719	베트남	797,740 (94.3)	칠레	47,981 (5.7)	–	–
	연료용	톤	–	–	–	–	–	–	–
목재브리켓		톤	–	–	–	–	–	–	–
성형목탄		톤	37,294	인도네시아	23,766 (63.7)	중국	6,146 (16.5)	말레이시아	4,709 (12.6)
목탄 및 목초액(목탄 기준)		톤	92,241	인도네시아	28,638 (31.0)	중국	22,920 (24.8)	필리핀	8,033 (8.7)

21) 전체 수입물량 합계는 무역협회 자료를 가공한 수치로, 각 제품별 전체 수입물량을 의미함. 1·2·3순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제재목

□ 제재목 수입량은 2012년 162만 3천㎥에서 2017년 251만 8천㎥으로 6개년 평균 9.2%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4억 7,293만$에서 2017년 7억 925만$로 6개년 평균 8.4% 증가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281.7$/㎥로 평균 0.7% 감소함.

□ 제재목 주요 수입국으로는 칠레, 러시아, 라트비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있었으며, 칠레(1순위 국가)에서 제재목을 643,810㎥ 수입하여 전체 제재목 수입량의 25.6%를 차지함.

<표 164> 제재목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천㎥, 천$, $/㎥,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천㎥	1,623	1,756	1,984	2,155	2,191	2,518	9.2%
수입금액	천$	472,925	540,564	639,606	652,391	615,695	709,254	8.4%
수입단가	$/㎥	291.4	307.8	322.4	302.7	281.0	281.7	△0.7%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 기준

<표 165> 국가별 제재목 수입물량

단위 : ㎥,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1,623,200	1,756,360	1,984,010	2,155,570	2,191,030	2,518,190	9.2%
1	칠레	363,340	458,970	614,340	603,110	567,030	643,810	12.1%
2	러시아	334,580	285,400	258,750	365,070	401,780	420,310	4.7%
3	라트비아	24,670	31,330	48,290	92,610	116,610	185,300	49.7%
4	캐나다	232,120	174,350	180,140	192,490	187,870	176,700	△5.3%
5	뉴질랜드	225,800	227,620	166,810	180,510	157,650	154,930	△7.3%
6	우크라이나	1,180	2,600	20,330	31,450	75,980	140,840	160.2%
7	독일	23,140	97,370	123,830	115,020	104,740	136,000	42.5%
8	핀란드	12,400	16,180	21,820	45,490	63,540	93,190	49.7%
9	스웨덴	9,150	21,900	40,530	50,640	57,800	89,350	57.7%
10	중국	69,430	78,340	89,330	87,340	87,160	79,050	2.6%
11	오스트리아	9,470	32,950	47,780	50,440	49,780	60,320	44.8%
12	베트남	38,710	42,960	53,210	47,700	45,840	53,780	6.8%
13	말레이시아	71,090	63,490	59,010	57,430	55,220	53,460	△5.5%
14	리투아니아	10,730	26,620	19,090	22,290	43,340	41,740	31.2%
15	미국	40,810	38,420	47,800	40,230	25,790	25,740	△8.8%
16	우루과이	47,640	56,230	59,350	40,480	28,350	24,240	△12.6%
17	에스토니아	3,580	4,400	11,380	16,170	20,820	22,450	44.4%

단위 : ㎥,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18	루마니아	14,570	16,670	29,060	19,200	18,400	22,300	8.9%
19	오스트레일리아	26,530	20,220	24,610	24,300	18,460	21,900	△3.8%
20	브라질	16,250	14,290	15,180	15,340	13,600	20,710	5.0%
21	체코	14,670	12,990	19,260	20,740	16,790	19,880	6.3%
22	일본	3,170	5,280	7,140	8,160	9,350	9,850	25.5%
23	폴란드	0	240	–	870	1,740	5,970	12.3%
24	슬로베니아	110	80	120	600	120	4,810	112.9%
25	덴마크	50	240	90	2,990	3,020	3,810	137.9%
26	수리남	890	1,580	3,540	1,670	2,230	3,640	32.5%
27	사이프러스	0	0	0	0	0	3,600	100.0%
28	콩고	880	1,570	470	410	1,590	3,130	28.9%
29	인도네시아	5,330	3,550	2,440	2,520	2,140	1,940	△18.3%
30	이탈리아	1,630	2,380	2,720	2,270	2,250	1,830	2.3%
31	가봉	2,090	5,760	3,120	2,800	3,190	1,750	△3.5%
32	스페인	90	340	130	800	1,080	1,310	70.8%
33	슬로바키아	440	480	2,320	3,060	1,680	1,240	23.0%
34	남아프리카공화국	960	1,400	940	1,100	830	1,200	4.6%
35	페루	630	320	250	1,740	1,160	810	5.2%
36	영국	0	1,800	2,020	310	10	620	△25.6%
37	가이아나	550	710	250	480	340	450	△3.9%
38	카메룬	250	30	230	270	270	250	0.0%
39	세르비아	40	90	490	230	190	250	44.3%
40	에콰도르	0	10	20	0	50	210	80.0%
41	베라루스	–	–	–	1,790	270	200	△66.6%
42	태국	20	0	620	1,410	510	190	56.9%
43	네덜란드	210	180	240	370	40	190	△2.0%
44	대만	40	0	0	70	20	190	36.3%
45	라오스	820	160	90	110	170	180	△26.2%
46	미얀마	4,210	370	120	160	470	120	△50.9%
47	헝가리	350	270	260	250	260	110	△20.7%
48	불가리아	110	940	380	80	220	90	△3.9%
49	콩고민주공화국	–	–	–	30	340	50	29.1%
50	인도	140	130	120	50	50	40	△22.2%
51	벨기에	380	1,010	390	120	140	30	△39.8%
52	가나	–	–	–	220	100	20	△69.8%
53	파푸아뉴기니	430	20	120	0	160	–	△100.0%
54	캄보디아	0	10	60	270	130	–	△100.0%
55	크루아티아	0	0	400	80	110	–	△100.0%
56	보스니아	150	230	1,770	860	90	–	△100.0%
57	홍콩	0	0	10	50	60	–	△100.0%
58	적도기니	40	0	–	–	40	–	△100.0%
59	기니	–	–	–	–	40	–	△100.0%
60	프랑스	100	150	120	40	20	–	△100.0%
61	스위스	0	0	230	0	0	–	△100.0%
62	필리핀	6,550	2,430	2,380	710	0	–	△100.0%
63	포르투갈	0	0	0	0	0	–	△100.0%
64	네팔	0	0	0	0	0	–	△100.0%
65	기타	2,680	1,300	510	570	0	–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2)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량은 2012년 3,746톤에서 2017년 10,249톤으로 6개년 평균 22.3%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1,021만$에서 2017년 3,905만$으로 6개년 평균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3,810.5$/톤으로 평균 6.9% 증가함.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미국 등이 있었으며, 중국(1순위 국가)에서 목재플라스틱복합재를 7,575톤 수입하여 전체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량의 73.9%를 차지함.

<표 166>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3,746	4,607	5,844	7,792	7,320	10,249	22.3%
수입금액	천$	10,205	12,781	30,113	38,095	27,024	39,054	30.8%
수입단가	$/톤	2,724.2	2,774.3	5,152.5	4,889.0	3,691.8	3,810.5	6.9%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39259 기준)

<표 167> 국가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3,746	4,607	5,844	7,792	7,320	10,249	22.3%
1	중국	3,013	3,803	4,138	5,283	5,609	7,575	20.2%
2	말레이시아	8	3	188	470	212	503	128.9%
3	폴란드	2	1	1	9	86	426	192.2%
4	미국	119	154	690	1,164	419	421	28.7%
5	스페인	0	3	1	2	3	226	287.7%
6	캐나다	165	186	231	237	191	223	6.2%
7	독일	43	40	84	39	155	136	25.9%
8	베트남	58	60	54	101	146	117	115.1%
9	인도네시아	0	-	81	71	116	112	11.4%
10	벨기에	87	110	47	116	43	63	△6.3%
11	일본	184	224	100	72	85	53	△22.0%
12	대만	6	7	20	22	24	42	47.6%
13	러시아	-	0	-	10	6	39	97.5%
14	프랑스	24	3	86	62	2	28	3.1%
15	영국	1	1	93	48	2	18	78.3%
16	스위스	1	0	3	18	39	17	76.2%
17	이탈리아	3	6	6	14	6	16	39.8%
18	불가리아	0	0	0	0	0	15	100.0%
19	네덜란드	23	1	11	1	47	9	△17.1%
20	이스라엘	0	0	-	8	11	9	6.1%
21	싱가폴	0	1	-	2	36	0	△100.0%
22	스웨덴	0	1	1	1	1	0	△100.0%
23	터키	-	0	-	1	1	0	△100.0%
24	덴마크	0	0	5	18	1	0	△100.0%
25	기타	8	3	4	23	79	0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3) 집성재

□ 집성재(집성판 포함) 수입량은 2012년 5,042톤에서 2017년 11,792톤으로 6개년 평균 18.5%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927만$에서 2017년 1,364만$로 6개년 평균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1,161.2$/톤으로 평균 8.8% 감소함.

□ 집성재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있었으며, 중국(1순위 국가)에서 집성재를 3,940톤 수입하여 전체 집성재 수입량의 33.6%를 차지함.

<표 168> 집성재(집성판 포함)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5,042	4,170	4,609	4,417	6,963	11,792	18.5%
수입금액	천$	9,269	7,725	7,763	7,929	9,521	13,639	8.0%
수입단가	$/톤	1,838.4	1,852.5	1,684.2	1,795.1	1,367.4	1,161.2	△8.8%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18.60.0000,4418.90.9000,4412.99.2090 기준)

<표 169> 국가별 집성재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5,042	4,170	4,609	4,417	6,963	11,792	18.5%
1	중국	2,487	1,819	1,536	1,554	1,870	3,940	9.6%
2	베트남	127	168	483	374	1,850	3,473	93.8%
3	인도네시아	470	645	654	663	1,003	1,146	19.5%
4	말레이시아	466	494	320	406	394	936	15.0%
5	에스토니아	439	133	290	318	478	896	15.3%
6	캐나다	580	228	291	362	373	581	0.0%
7	미국	49	108	107	213	335	244	37.9%
8	오스트리아	147	159	548	155	190	197	6.0%
9	네덜란드	–	–	–	–	–	112	100.0%
10	대만	–	–	65	37	53	103	16.6%
11	터키	–	–	–	–	–	102	100.0%
12	스위스	0	–	10	98	25	81	100.8%
13	핀란드	138	24	85	52	18	71	△12.4%
14	폴란드	0	23	59	32	38	52	△3.1%
15	일본	29	143	46	109	114	51	12.0%
16	태국	48	24	48	17	94	24	△12.9%
17	독일	13	75	–	0	0	23	33.0%
18	이탈리아	–	0	0	0	8	10	25.0%
19	러시아	–	–	–	–	–	10	100.0%
20	스웨덴	–	–	8	0	0	5	△14.5%
21	리투아니아	0	17	–	–	22	1	△75.7%
22	싱가폴	20	36	–	–	–	0	△100.0%
23	슬로베니아	–	30	8	10	–	0	△100.0%
24	스리랑카	–	25	35	–	–	0	△100.0%
25	필리핀	2	10	2	2	–	0	△100.0%
26	덴마크	–	0	1	0	–	0	△100.0%
27	몽골	–	0	3	–	–	0	△100.0%
28	오스트레일리아	0	0	–	–	–	0	△100.0%
29	노르웨이	–	9	9	8	9	0	△100.0%
30	스페인	0	0	–	2	1	0	△100.0%
31	프랑스	1	0	0	–	0	0	△100.0%
32	기타국가	26	–	1	5	88	0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4) 합판

□ 합판 수입량은 2012년 141만 2천㎥에서 2017년 171만 9천㎥으로 6개년 평균 4.0%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5억 9,233만$에서 2017년 7억 7,760만$으로 6개년 평균 5.6% 증가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452.4$/㎥로 평균 1.5% 상승함.

□ 합판 주요 수입국으로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이 있었으며, 베트남 (1순위 국가)에서 합판을 502,850㎥ 수입하여 전체 합판 수입량의 29.3%를 차지함.

<표 170> 합판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천㎥, 천$, $/㎥,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천㎥	1,412	1,558	1,343	1,384	1,654	1,719	4.0%
수입금액	천$	592,331	658,115	704,069	694,887	755,580	777,598	5.6%
수입단가	$/㎥	419.5	422.4	524.3	502.1	456.8	452.4	1.5%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 기준

<표 171> 국가별 합판 수입물량

단위 : ㎥,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1,411,813	1,558,435	1,342,970	1,384,450	1,654,530	1,718,660	4.0%
1	베트남	146,593	182,988	173,900	199,320	378,330	502,850	28.0%
2	중국	680,762	793,507	533,090	527,320	477,410	392,290	△10.4%
3	인도네시아	140,472	158,215	182,130	250,790	356,570	372,540	21.5%
4	말레이시아	381,721	347,475	378,170	332,920	356,580	346,160	△1.9%
5	러시아	13,890	15,480	22,360	22,160	30,300	41,400	24.4%
6	핀란드	28,150	49,029	40,800	32,640	28,470	30,480	1.6%
7	라트비아	719	3,163	6,980	6,290	9,560	6,680	56.2%
8	일본	960	1,275	1,400	1,870	720	1,380	7.5%
9	미얀마	933	128	0	150	360	1,330	7.3%
10	이탈리아	886	542	870	750	740	750	△3.3%
11	독일	167	122	910	170	570	570	27.8%
12	미국	1,893	849	1,500	1,050	560	500	△23.4%
13	파푸아뉴기니	–	–	–	1,690	620	350	△54.5%
14	필리핀	11	5	140	40	0	100	55.5%
15	브라질	2,849	1,028	610	370	380	70	△52.3%
16	에스토니아	880	1,690	3,000	240	4,210	14	△56.3%
17	캐나다	792	64	50	40	70	10	△58.3%
18	칠레	3,730	760	1,050	3,730	6,670	3	△76.0%
19	태국	0	0	0	760	350	2	△94.9%
20	스페인	0	0	0	50	250	0	△100.0%
21	우루과이	40	70	110	0	0	0	△100.0%
22	벨기에	0	10	0	100	170	0	△100.0%
23	스웨덴	70	70	40	210	30	0	△100.0%
24	프랑스	80	120	60	190	70	0	△100.0%
25	대만	401	253	40	110	20	0	△100.0%
26	홍콩	29	25	10	0	0	0	△100.0%
27	네덜란드	17	17	10	0	0	0	△100.0%
28	기니	0	0	0	480	0	0	△100.0%
29	인도	110	0	0	260	0	0	△100.0%
30	루마니아	0	0	20	80	10	0	△100.0%
31	싱가폴	10	40	200	0	10	0	△100.0%
32	안길라	0	0	0	160	0	0	△100.0%
33	베네수엘라	0	0	0	280	0	0	△100.0%
34	기타	5,648	1,510	0	230	1,500	0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5)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 수입량은 2012년 74만 3천㎥에서 2017년 158만 4천㎥으로 6개년 평균 16.3%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1억 3,376만$에서 2017년 2억 8,221만$로 6개년 평균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178.2$/㎥로 평균 0.2% 감소함.

□ 파티클보드 주요 수입국으로는 태국,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캐나다 등이 있었으며, 태국(1순위 국가)에서 파티클보드를 1,083,700㎥ 수입하여 전체 파티클보드 수입량의 68.4%를 차지함.

<표 172> 파티클보드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천㎥, 천$, $/㎥,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천㎥	743	857	1,134	1,244	1,275	1,584	16.3%
수입금액	천$	133,761	145,760	198,649	202,589	198,761	282,210	16.1%
수입단가	$/㎥	180.0	170.0	175.2	162.9	155.9	178.2	△0.2%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 기준

<표 173> 국가별 파티클보드 수입물량

단위 : ㎥,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742,979	857,074	1,133,547	1,244,210	1,275,000	1,583,800	16.3%
1	태국	348,408	538,912	868,668	832550	944,000	1,083,710	25.5%
2	루마니아	215,808	189,374	86,932	238800	128,770	188,000	△2.7%
3	말레이시아	59,746	59,095	81,503	67260	89,900	106,000	12.2%
4	브라질	5,772	17,786	4,094	7860	14,510	84,000	70.8%
5	캐나다	32,263	27,800	41,375	45040	54,540	45,000	6.9%
6	칠레	74	–	2,023	–	140	25,000	220.4%
7	스페인	23,302	1,338	0	0	3,400	16,000	△7.2%
8	미국	20,332	6,980	32,898	35580	29,350	15,000	△5.9%
9	인도네시아	412	–	2	790	20	10,000	89.2%
10	중국	5,658	8,011	8,858	6810	7,600	5,000	△2.4%
11	독일	2	343	477	870	1,200	1,000	246.6%
12	오스트리아	109	12	238	370	710	1,000	55.8%
13	베트남	5,449	5,825	5,186	7600	550	1,000	△28.8%
14	포루투갈	–	495	0	130	200	0	△100.0%
15	싱가폴	977	1,062	926	170	30	0	△100.0%
16	대만	17	18	29	30	30	0	△100.0%
17	러시아	23,620	–	0	190	0	0	△100.0%
18	뉴질랜드	782	–	229	–	0	0	△100.0%
19	오스트레일리아	–	–	12	10	0	0	△100.0%
20	기타	248	23	97	150	50	0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6) 섬유판

□ 섬유판 수입량은 2012년 12만 8천㎥에서 2017년 15만 6천㎥으로 6개년 평균 4.1%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5,577만$에서 2017년 5,502만$로 6개년 평균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353.5$/㎥로 평균 4.1%로 감소함.

□ 섬유판 주요 수입국으로는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칠레, 말레이시아 등이 있었으며, 태국(1순위 국가)에서 섬유판을 61,890㎥ 수입하여 전체 섬유판 수입량의 39.8%를 차지함.

<표 174> 섬유판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천㎥, 천$, $/㎥,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천㎥	128	130	124	128	126	156	4.1%
수입금액	천$	55,772	54,895	56,594	58,175	50,413	55,022	△0.3%
수입단가	$/㎥	435.7	422.3	456.4	454.5	400.1	353.5	△4.1%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 기준

<표 175> 국가별 섬유판 수입물량

단위 : ㎥,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127,583	130,132	124,090	133,490	125,960	155,640	4.1%
1	태국	4,896	11,859	22,640	24,500	29,500	61,890	66.1%
2	중국	81,524	61,151	68,880	70,080	63,700	48,470	△9.9%
3	인도네시아	4	5,483	8,690	11,930	8,180	9,450	327.8%
4	칠레	1,300	–	3,550	1,720	1,760	7,240	41.0%
5	말레이시아	2,071	6,560	6,920	2,770	5,010	5,320	20.8%
6	오스트레일리아	3,717	2,445	6,670	6,940	3,480	2,700	△6.2%
7	베트남	–	20,672	690	0	30	1,910	29.0%
8	독일	13,267	12,544	2,940	350	600	1,230	△37.9%
9	덴마크	486	171	280	490	510	720	8.2%
10	이탈리아	4	4	50	420	40	630	175.1%
11	뉴질랜드	2,244	1,832	1,580	2,570	8,070	620	△22.7%
12	미국	1,751	290	260	320	180	350	△27.5%
13	스웨덴	1,076	972	640	610	120	240	△25.9%
14	일본	10	11	–	30	20	110	61.5%
15	벨기에	68	–	80	70	110	70	0.6%
16	스위스	802	113	160	140	130	30	△48.2%
17	루마니아	0	0	0	4,180	0	9	△95.4%
18	브라질	30	270	170	290	305	5	△30.1%
19	캐나다	76	77	20	30	0	0	△100.0%
20	오스트리아	–	–	40	40	0	0	△100.0%
21	슬로베니아	80	80	–	420	1,960	0	△100.0%
22	포르투갈	170	1,130	5000	200	290	0	△100.0%
23	러시아	2,244	3,650	550	0	560	0	△100.0%
24	홍콩	0	520	0	0	0	0	△100.0%
25	기타	11,763	298	0	5,390	1,405	0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7)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량은 2012년 5만 1,151톤에서 2017년 11만 4,458톤으로 6개년 평균 17.5%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2,187만$에서 2017년 4,383만$로 6개년 평균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382.9$/톤으로 평균 2.2% 감소함.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주요 수입국으로는 루마니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칠레, 미국 등이 있었으며, 루마니아(1순위 국가)에서 배향성스트랜드보드를 32,861톤 수입하여 전체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량의 28.7%를 차지함.

<표 176>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51,151	52,948	71,046	85,791	109,067	114,458	17.5%
수입금액	천$	21,869	26,471	29,361	28,754	37,479	43,827	14.9%
수입단가	$/톤	427.5	499.9	413.3	335.2	343.6	382.9	△2.2%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10.12 기준)

<표 177> 국가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51,151	52,948	71,046	85,791	109,067	114,458	17.5%
1	루마니아	13,429	17,865	17,620	22,747	26,354	32,861	19.6%
2	캐나다	20,971	18,037	26,808	29,220	35,431	29,485	7.1%
3	말레이시아	0	0	0	473	22,762	23,910	611.0%
4	칠레	–	–	1,315	–	–	12,347	838.9%
5	미국	12,953	4,354	21,131	27,679	18,889	9,551	△5.9%
6	브라질	3,752	11,561	2,661	4,639	3,938	5,592	8.3%
7	독일	0	0	73	476	474	573	98.7%
8	중국	20	1,131	703	1	1,218	139	47.4%
9	이탈리아	–	–	–	–	–	50	100.0%
10	불가리아	26	–	–	–	–	0	△100.0%
11	기타	–	–	735	556	0	0	△100.0%

8) 목질바닥재

□ 목질바닥재(합판마루) 수입량은 2012년 2,404톤에서 2017년 8,463톤으로 6개년 평균 28.6%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711만$에서 2017년 1,769만$로 6개년 평균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2,090.5$/톤으로 평균 6.7% 감소함.

□ 목질바닥재(합판마루)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등이 있었으며, 중국(1순위 국가)에서 합판마루를 8,329톤 수입하여 전체 합판마루 수입량의 대부분(98.4%)을 차지함.

<표 178> 목질바닥재(합판마루)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2,404	1,488	11,504	9,476	10,171	8,463	28.6%
수입금액	천$	7,114	5,606	24,330	22,188	25,438	17,692	20.0%
수입단가	$/톤	2,959.2	3,767.5	2,114.9	2,341.5	2,501.0	2,090.5	△6.7%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12.99.921,4412.10.2000, 4412.99.1041, 4412.99.1042 기준)

<표 179> 국가별 목질바닥재(합판마루)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2,404	1,488	11,504	9,476	10,171	8,463	28.6%
1	중국	2,104	1,128	10,656	8,563	9,523	8,329	31.7%
2	베트남	-	-	16	0	4	96	81.7%
3	이탈리아	222	293	374	300	307	16	△40.9%
4	오스트리아	15	10	20	19	6	11	△6.0%
5	미국	23	1	3	3	27	3	△33.5%
6	에스토니아	2	-	14	0	3	3	8.4%
7	일본	0	0	-	0	1	3	200.0%
8	스페인	-	0	-	-	23	2	△91.3%
9	네덜란드	0	-	-	-	2	2	0.0%
10	홍콩	4	0	0	1	0	1	△24.2%
11	인도네시아	-	0	381	258	126	0	△100.0%
12	벨기에	-	-	-	-	112	0	△100.0%
13	폴란드	-	-	-	-	12	0	△100.0%
14	말레이시아	0	20	31	201	7	0	△100.0%
15	독일	32	22	6	3	4	0	△100.0%
16	리투아니아	-	-	-	-	1	0	△100.0%
17	브라질	-	-	-	-	1	0	△100.0%
18	캐나다	-	0	1	-	0	0	△100.0%
19	대만	1	10	2	64	12	-	△100.0%
20	핀란드	0	0	-	-	0	-	△100.0%
21	스웨덴	0	-	-	-	0	-	△100.0%
22	영국	-	0	0	-	-	-	△100.0%
23	기타	1	4	0	64	-	3	24.6%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 목질바닥재(강화마루) 수입량은 2012년 3만 4,135톤에서 2017년 2만 7,934톤으로 6개년 평균 3.9% 감소함.

□ 수입금액은 2012년 2,700만$에서 2017년 2,962만$으로 7개년 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1,060.2$/톤으로 평균 6.0% 증가함.

□ 목질바닥재(강화마루)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었으며, 중국(1순위 국가)에서 강화마루를 25,807톤 수입하여 전체 강화마루 수입량의 대부분(92.4%)을 차지함.

<표 180> 목질바닥재(강화마루)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34,135	27,426	35,192	36,509	31,575	27,934	△3.9%
수입금액	천$	26,999	22,126	29,577	29,174	23,249	29,617	1.9%
수입단가	$/톤	790.9	806.8	840.4	799.1	736.3	1,060.2	6.0%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11.122, 4411.9220.10, 4411.9320.10기준)

<표 181> 국가별 목질바닥재(강화마루)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34,135	27,426	35,192	36,509	31,575	27,934	△3.9%
1	중국	33,257	27,220	34,987	36,355	31,250	25,807	△4.9%
2	독일	65	47	88	27	172	845	67.0%
3	이탈리아	0	–	0	0	2	418	100.0%
4	오스트레일리아	–	–	–	–	–	317	100.0%
5	뉴질랜드	–	–	–	–	–	269	100.0%
6	미국	102	22	4	2	0	94	△1.6%
7	말레이시아	134	58	40	20	19	22	△30.3%
8	스위스	561	74	73	55	91	19	△49.2%
9	인도네시아	–	–	–	–	40	0	△100.0%
10	폴란드	–	–	–	–	1	0	△100.0%
11	스페인	–	–	–	–	0	0	△100.0%
12	기타	16	5	0	50	0	7	△15.2%

9) 목재펠릿

□ 목재펠릿 수입량은 2012년 12만 2,447톤에서 2017년 243만 1,165톤으로 6개년 평균 81.8%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1,829만$에서 2017년 28,043만$로 6개년 평균 7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115.3$/톤으로 평균 5.0% 감소함.

□ 목재펠릿 주요 수입국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었으며, 베트남(1순위 국가)에서 목재펠릿을 1,515,802톤 수입하여 전체 목재펠릿 수입량의 62.3%를 차지함.

<표 182> 목재펠릿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122,447	484,668	1,819,855	1,470,684	1,716,641	2,431,165	81.8%
수입금액	천$	18,285	76,464	318,153	176,963	173,122	280,433	72.6%
수입단가	$/톤	149.3	157.8	174.8	120.3	100.8	115.3	△5.0%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01.31 기준)

<표 183> 국가별 목재펠릿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122,447	484,668	1,819,855	1,470,684	1,716,641	2,431,165	81.8%
1	베트남	30,296	157,226	742,794	1,022,809	1,255,401	1,515,802	118.7%
2	말레이시아	30,698	78,420	168,336	153,959	199,102	405,432	67.6%
3	캐나다	2,646	79,795	344,261	87,743	35,263	151,673	124.7%
4	러시아	41,731	76,941	34,756	84,070	125,841	127,913	25.1%
5	인도네시아	8,933	33,534	62,729	59,977	75,854	119,562	68.0%
6	태국	314	9,315	110,752	35,118	20,508	94,597	213.2%
7	미국	184	32,018	61,977	18,847	175	10,616	125.0%
8	뉴질랜드	-	275	129	1,216	3,578	3,609	130.0%
9	중국	3,648	10,220	287,063	3,057	115	758	△27.0%
10	필리핀	-	1,041	-	0	-	690	△33.7%
11	일본	3,546	4,629	4,290	525	272	223	△26.6%
12	독일	213	272	372	207	210	115	△11.6%
13	네덜란드	82	94	246	895	149	100	4.0%
14	폴란드	156	116	144	111	101	77	△13.2%
15	우크라이나	-	-	-	372	72	15	△79.9%
16	대만	-	-	-	26	0	0	△100.0%
17	사이프러스	-	762	-	-	-	-	△100.0%
18	스웨덴	-	9	14	-	-	-	△100.0%
19	남아프리카 공화국	-	1	1,992	1,753	-	-	△100.0%
20	이탈리아	-	-	-	-	-	-	△100.0%
21	스페인	-	-	-	-	-	-	△100.0%
22	칠레	-	-	-	-	-	-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10) 목재칩

□ 목재칩(펄프용) 수입량은 2012년 94만 3,381톤에서 2017년 84만 5,719톤으로 6개년 평균 2.2% 감소함.

□ 수입금액은 2012년 8,517만$에서 2017년 6,053만$로 6개년 평균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71.6$/톤으로 평균 4.5% 감소함.

□ 목재칩(펄프용) 주요 수입국으로는 베트남과 칠레가 있었으며, 베트남(1순위 국가)에서 펄프용 목재칩을 797,740톤 수입하여 전체 펄프용 목재칩 수입량의 대부분(94.3%)을 차지함.

<표 184> 목재칩(펄프용)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943,381	1,038,445	1,017,384	935,099	965,631	845,719	△2.2%
수입금액	천$	85,170	86,800	83,146	77,638	72,578	60,530	△6.6%
수입단가	$/톤	90.3	83.6	81.7	83.0	75.2	71.6	△4.5%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01.22.1000 기준)

<표 185> 국가별 목재칩(펄프용)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증감률
합계		943,381	1,038,445	1,017,384	935,099	965,631	845,719	△2.2%
1	베트남	904,227	997,269	981,038	855,691	965,631	797,740	△2.5%
2	칠레	–	–	–	–	–	47,981	100.0%
3	태국	39,154	41,175	36,347	79,408	–	–	△100.0%

□ 목재칩(보드용) 수입량은 2012년 1,288톤에서 2017년 29,609톤으로 6개년 평균 87.2%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68만$에서 2017년 292만$로 6개년 평균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98.7$/톤으로 평균 28.5% 감소함.

□ 목재칩(보드용) 주요 수입국으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 등이 있었으며, 말레이시아(1순위 국가)에서 보드용 목재칩을 20,571톤 수입하여 전체 보드용 목재칩 수입량의 69.5%를 차지함.

<표 186> 목재칩(보드용)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1,288	23,088	50,025	7,470	41,257	29,609	87.2%
수입금액	천$	678	3,341	4,922	1,411	3,949	2,921	33.9%
수입단가	$/톤	526.8	144.7	98.4	188.9	95.7	98.7	△28.5%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01.22.9000 기준)

<표 187> 국가별 목재칩(보드용)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1,288	23,088	50,025	7,470	41,257	29,609	87.2%
1	말레이시아	0	18	40	0	8,310	20,571	376.2%
2	베트남	449	2,504	47,261	2,710	17,499	3,840	53.6%
3	인도네시아	–	19,864	501	1,199	1,532	2,439	48.5%
4	태국	–	0	1,560	2,678	12,550	2,101	10.4%
5	독일	60	98	165	195	315	271	35.2%
6	라트비아	80	81	106	144	105	142	12.2%
7	미국	278	299	270	334	305	129	△14.2%
8	네덜란드	381	175	40	68	85	67	△29.4%
9	중국	39	17	82	141	551	17	△15.3%
10	일본	–	–	–	–	5	0	△100.0%
11	가봉	–	31	–	–	–	–	△100.0%
12	기타국가	1	1	0	1	0	–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11) 목재브리켓

□ 목재브리켓 수입량은 2012년 156톤이었고, 수입금액은 2012년 2만$이었으나, 2013년 이후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188> 목재브리켓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156	-	-	-	-	-	△100.0%
수입금액	천$	24	-	-	-	-	-	△100.0%
수입단가	$/톤	153.8	-	-	-	-	-	△100.0%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 기준

<표 189> 국가별 목재브리켓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156	-	-	-	-	-	△100.0%
1	베트남	138	-	-	-	-	-	△100.0%
2	필리핀	13	-	-	-	-	-	△100.0%
3	미국	5	-	-	-	-	-	△100.0%
4	중국	-	-	-	-	-	-	△100.0%
5	말레이시아	-	-	-	-	-	-	△100.0%
6	인도네시아	-	-	-	-	-	-	△100.0%
7	독일	-	-	-	-	-	-	△100.0%
8	오스트레일리아	-	-	-	-	-	-	△100.0%
9	라트비아	-	-	-	-	-	-	△100.0%
10	폴란드	-	-	-	-	-	-	△100.0%
11	네덜란드	-	-	-	-	-	-	△100.0%
12	벨기에	-	-	-	-	-	-	△100.0%
13	일본	-	-	-	-	-	-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12) 성형목탄

□ 성형목탄 수입량은 2012년 4만 5,335톤에서 2017년 3만 7,294으로 6개년 평균 3.8% 감소함.

□ 수입금액은 2012년 3,313만$에서 2017년 2,916만$로 6개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782.0$/톤으로 평균 1.4% 증가함.

□ 성형목탄 주요 수입국으로는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등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1순위 국가)에서 성형목탄을 23,766톤 수입하여 전체 성형목탄 수입량의 63.7%를 차지함.

<표 190> 성형목탄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45,335	46,592	52,592	37,685	36,744	37,294	△3.8%
수입금액	천$	33,130	38,483	45,430	30,390	29,364	29,165	△2.5%
수입단가	$/톤	730.8	826.0	863.8	806.4	798.7	782.0	1.4%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02.10.1000, 4402.90.1000 기준)

<표 191> 국가별 성형목탄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45,335	46,592	52,592	37,685	36,744	37,294	△3.8%
1	인도네시아	27,744	26,013	30,052	25,335	24,921	23,766	△3.0%
2	중국	5,399	6,555	10,540	2,636	4,597	6,146	2.6%
3	말레이시아	9,384	9,685	7,144	6,673	4,844	4,709	△12.9%
4	베트남	1,031	1,329	825	429	440	1,214	3.3%
5	미국	803	1,475	2,118	1,421	731	950	3.4%
6	태국	184	198	687	268	386	196	1.3%
7	인도	0	0	12	10	259	122	116.6%
8	라오스	650	834	976	500	386	110	△29.9%
9	파라과이	20	50	50	–	–	27	6.2%
10	필리핀	23	0	24	10	12	24	0.9%
11	미얀마	22	–	–	–	–	0	△100.0%
12	스리랑카	–	67	49	253	105	–	△100.0%
13	홍콩	–	252	15	0	47	–	△100.0%
14	일본	0	–	1	1	4	–	△100.0%
15	튀니지	–	46	46	–	–	–	△100.0%
16	아르헨티나	–	34	–	–	–	–	△100.0%
17	우루과이	–	25	50	75	–	–	△100.0%
18	오스트레일리아	46	15	–	–	–	–	△100.0%
19	불가리아	–	13	–	–	–	–	△100.0%
20	슬로베니아	14	–	–	–	–	–	△100.0%
21	과테말라	14	–	–	–	–	–	△100.0%
22	가나	–	–	–	–	–	–	△100.0%
23	기타국가	1	1	3	74	12	31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13) 목탄

□ 목탄 수입량은 2012년 6만 9,584톤에서 2017년 9만 2,241톤으로 6개년 평균 5.8% 증가함.

□ 수입금액은 2012년 6,274만$에서 2017년 8,115만$로 6개년 평균 5.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수입 단가는 879.8$/톤으로 평균 0.5% 감소함.

□ 목탄 주요 수입국으로는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라오스, 태국 등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1순위 국가)에서 목탄을 28,638톤 수입하여 전체 목탄 수입량의 31.0%를 차지함.

<표 192> 목탄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 $/톤, %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수입물량	톤	69,584	70,077	119,941	121,016	126,206	92,241	5.8%
수입금액	천$	62,735	62,441	105,956	113,478	112,068	81,150	5.3%
수입단가	$/톤	901.6	891.0	883.4	937.7	888.0	879.8	△0.5%

※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HS코드 4402.10.9000, 4402.90.9000 기준)

<표 193> 국가별 목탄 수입물량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합 계		69,584	70,077	119,941	121,016	126,206	92,241	5.8%
1	인도네시아	17,655	17,659	49,868	51,697	51,735	28,638	10.2%
2	중국	27,105	24,867	32,239	29,354	29,306	22,920	△3.3%
3	필리핀	10,725	12,971	9,990	7,929	7,792	8,033	△5.6%
4	라오스	2,430	2,597	3,855	6,137	6,678	5,410	17.4%
5	태국	2,799	3,108	4,471	3,389	3,824	2,316	△3.7%
6	베트남	2,056	2,926	6,269	11,036	17,059	2,034	△0.2%
7	스리랑카	22	202	311	548	859	1,878	143.4%
8	말레이시아	5,217	4,735	9,985	8,612	7,114	1,691	△20.2%
9	파라과이	46	167	157	61	201	181	31.5%
10	미국	539	118	2,196	1,525	837	103	△28.2%
11	러시아	21	7	24	93	73	87	32.9%
12	멕시코	10	134	99	169	160	84	53.1%
13	볼리비아	-	-	-	-	-	48	100.0%
14	앤티가바부다	-	-	-	-	-	25	100.0%

단위 : 톤,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15	폴란드	33	14	0	18	4	8	△24.7%
16	스페인	–	–	–	–	–	2	100.0%
17	이탈리아	–	0	1	11	1	1	0.0%
18	인도	255	113	12	54	374	0	△100.0%
19	홍콩	69	162	82	–	47	0	△100.0%
20	브라질	–	–	9	11	35	0	△100.0%
21	일본	0	0	1	1	4	0	△100.0%
22	대만	24	0	–	–	1	0	△100.0%
23	불가리아	–	–	–	71	15	–	△100.0%
24	그리스	–	–	–	33	15	–	△100.0%
25	콜롬비아	–	–	–	41	13	–	△100.0%
26	오스트레일리아	–	–	–	79	33	–	△100.0%
27	독일	0	0	4	0	0	–	△100.0%
28	리투아니아	–	–	–	14	0	–	△100.0%
29	남아프리카공화국	–	–	–	0	0	–	△100.0%
30	미얀마	311	23	118	36	–	–	△100.0%
31	가나	31	62	101	–	–	–	△100.0%
32	캄보디아	36	76	66	20	–	–	△100.0%
33	과테말라	19	–	53	–	–	–	△100.0%
34	싱가폴	10	42	22	–	–	–	△100.0%
35	캐나다	45	22	8	–	–	–	△100.0%
36	프랑스	1	1	0	–	–	–	△100.0%
37	사우디아라비아	0	–	0	–	–	–	△100.0%
38	슬로베니아	49	15	–	–	–	–	△100.0%
39	아르헨티나	41	19	–	–	–	–	△100.0%
40	기타국가	35	37	–	77	26	–	△100.0%

※ 전체 합계와 세부 수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3. 목재제품 용도별 수입 유통량

1) 제재목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제재목 수입물량(HS코드 4407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18,190㎥이었음. 본 조사에서는 156개 제재목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제재목 수입 유통이 1,513,243㎥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제재목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22]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재목 중 포장재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45.8%를 차지하며, 1,152,279㎥으로 추정됨. 건축내장재는 19.8%로 498,124㎥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부 용도별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194> 용도별 제재목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대분류	분 류	2014 (N=166)			2015 (N=149)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건축재	구조재	34	102,155 (6.7)	133,590	25	117,426 (8.4)	181,576
	가설재	4	16,575 (1.1)	21,675	5	26,913 (1.9)	41,616
	포장재	36	712,932 (47.0)	932,317	38	782,542 (56.1)	1,210,046
	가구재	18	40,256 (2.7)	52,644	17	13,177 (0.9)	20,376
	데크재, 원목마루판용	13	24,645 (1.6)	32,229	19	167,294 (12.0)	258,687
	건축내장재	54	314,196 (20.7)	410,881	44	139,903 (10.0)	216,332
	조경재	25	97,315 (6.4)	127,261	27	85,763 (6.2)	132,615
	목공산업용	–	–	–	–	–	–
	기타	26	209,076 (13.8)	273,413	20	60,999 (4.4)	94,322
합 계		–	1,517,150 (100.0)	1,984,010	–	1,394,017 (100.0)	2,155,570

22) HS코드 4407에는 집성재 등 다른 목재 제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 비중을 환산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용도별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양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표 195> 용도별 제재목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대분류	분 류	2016 (N=185)			2017 (N=156)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건축재	구조재	42	199,171 (9.9)	216,006	29	156,897 (10.4)	261,093
	가설재	17	99,852 (4.9)	108,292	10	59,022 (3.9)	98,219
	포장재	49	558,500 (27.6)	605,708	42	692,433 (45.8)	1,152,279
	가구재	19	23,067 (1.1)	25,017	17	23,510 (1.6)	39,123
	데크재, 원목마루판용	40	422,026 (20.9)	457,698	27	115,550 (7.6)	192,287
	건축내장재	54	284,783 (14.1)	308,854	45	299,335 (19.8)	498,124
	조경재	23	32,320 (1.6)	35,052	17	30,201 (2.0)	50,258
	목공산업용	–	–	–	2	121 (0.0)	201
	기타	16	400,547 (19.8)	434,403	17	136,174 (9.0)	226,607
합 계		–	2,020,266 (100.0)	2,191,030	–	1,513,243 (100.0)	2,518,190

2) 방부목재

□ 방부목재의 경우 HS코드 분류가 없어 수입통계에서 확인이 불가능함. 본 조사에서는 13개 방부목재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방부목재 수입 유통량이 50,709㎥이었기 때문에 추정[23]을 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 기준으로 용도별 유통량을 확인함.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방부목재 중 데크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65.2%(33,087㎥)로 나타나는 등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196> 용도별 방부목재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4 (N=4)			2015 (N=7)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조경용	–	–	–	3	16,711 (43.0)	–
데크용	4	6,700 (96.8)	–	5	15,756 (40.5)	–
건축용	1	220 (3.2)	–	2	6,400 (16.5)	–
기타	–	–	–	–	–	–
합 계	–	6,920 (100.0)	–	–	38,867 (100.0)	–

<표 197> 용도별 방부목재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6 (N=13)			2017 (N=13)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조경용	5	4,124 (9.2)	–	5	5,209 (10.3)	–
데크용	9	24,746 (55.4)	–	10	33,087 (65.2)	–
건축용	6	15,787 (35.4)	–	7	12,330 (24.3)	–
기타	–	–	–	1	83 (0.2)	–
합 계	–	44,657 (100.0)	–	–	50,709 (100.0)	–

23) 방부목재는 HS코드 분류가 별도로 없으며, 제재목(4407) 등의 분류로 수입되는 것으로 예상됨. 수입업체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결과가 방부목재 전체 수입 유통량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방부목재를 수입·유통하는 업체 판매(자체소비) 비중으로는 H3등급이 59.3%였고, 판매량은 30,065톤으로 조사됨.

<표 198> 방부목재의 등급별 판매 비중

N=13(전체), 단위 : 톤, %

분 류	H1	H2	H3	H4	H5
판매량	14,960	5,520	30,065	164	-
판매 비중	29.5	10.9	59.3	0.3	-

3)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물량(HS코드 3925.90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249톤으로 조사됨. 본 조사에서는 2개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 유통량이 360톤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24]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중 건축재가 전체 수입 유통량의 50.0%(5,125톤)로 추정되는 등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199> 용도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4 (N=2)			2015 (N=2)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데크재	2	120 (37.5)	2,192	2	83 (23.6)	1,843
건축재	2	130 (40.6)	2,374	2	222 (63.2)	4,928
조경용(난간, 휀스 등), 데크재 제외	1	70 (21.9)	1,278	1	46 (13.1)	1,021
합 계	–	320 (100.0)	5,844	–	351 (100.0)	7,792

<표 200> 용도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6 (N=2)			2017 (N=2)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데크재	2	53 (18.3)	1,338	2	105 (29.2)	2,989
건축재	2	191 (65.9)	4,821	2	180 (50.0)	5,125
조경용(난간, 휀스 등), 데크재 제외	1	46 (15.8)	1,161	1	75 (20.8)	2,135
합 계	–	290 (100.0)	7,320	–	360 (100.0)	10,249

24) 수입업체로부터 응답받은 물량이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물량보다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추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

4) 집성재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집성재 수입물량(HS코드 4418.60.0000 등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792톤으로 조사됨. 본 조사에서는 47개 집성재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집성재 수입 유통량이 90,191톤이었기 때문에 추정[25]을 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 기준으로 용도별 유통량을 확인함.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집성재 중 집성재(인테리어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57.5%(51,902톤)로 나타나는 등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01> 용도별 집성재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4 (N=33)			2015 (N=39)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집성재-구조용	8	4,260 (5.8)	-	9	6,890 (8.3)	-
집성재-인테리어용	19	32,678 (44.8)	-	27	62,242 (74.6)	-
집성판	2	1,000 (1.4)	-	3	1,450 (1.7)	-
기타	6	35,050 (48.0)	-	6	12,852 (15.4)	-
합 계	-	72,988 (100.0)	-	-	83,434 (100.0)	-

<표 202> 용도별 집성재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6 (N=51)			2017 (N=47)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집성재-구조용	10	8,090 (3.5)	-	6	4,950 (5.5)	-
집성재-인테리어용	36	134,680 (58.0)	-	30	51,902 (57.5)	-
집성판	13	81,809 (35.2)	-	11	9,408 (10.4)	-
기타	4	7,750 (3.3)	-	6	23,931 (26.5)	-
합 계	-	232,329 (100.0)	-	-	90,191 (100.0)	-

25) 수입업체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된 결과가 집성재 전체 수입 유통량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합판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합판 수입물량(HS코드 4412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18,660㎥이었음. 본 조사에서는 109개 합판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합판 수입 유통량이 1,240,548㎥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합판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26]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합판 중 가설재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39.7%(681,809㎥)로 나타나는 등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03> 용도별 합판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4 (N=81)			2015 (N=84)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가설재용	31	445,302 (41.2)	553,793	34	501,706 (40.2)	556,256
인테리어용	42	305,409 (28.3)	379,817	48	514,088 (41.2)	569,984
마루판용	-	-	-	-	-	-
포장용	31	223,831 (20.7)	278,364	25	190,895 (15.3)	211,651
가구용	6	2,510 (0.2)	3,122	6	9,263 (0.7)	10,270
기타	11	102,823 (9.5)	127,874	7	32,730 (2.6)	36,289
합 계	-	1,079,875 (100.0)	1,342,970	-	1,248,682 (100.0)	1,384,450

26) 조사된 결과 비중을 환산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용도별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양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표 204> 용도별 합판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6 (N=114)			2017 (N=109)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가설재용	53	405,402 (34.8)	575,824	50	492,137 (39.7)	681,809
인테리어용	59	383,412 (32.9)	544,590	47	352,850 (28.4)	488,840
마루판용	16	134,434 (11.5)	190,947	20	171,253 (13.8)	237,255
포장용	33	200,587 (17.2)	284,909	31	197,708 (15.9)	273,905
가구용	12	24,561 (2.1)	34,886	9	7,684 (0.6)	10,645
기타	8	16,456 (1.4)	23,374	12	18,916 (1.5)	26,206
합 계	-	1,164,852 (100.0)	1,654,530	-	1,240,548 (100.0)	1,718,660

□ 합판을 수입·유통하는 업체(109개)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판매(자체소비) 비중으로는 E2이 4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E1 33.0%, E0 21.8%, SEO 5.1%의 순으로 판매되고 있었음.

<표 205>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합판 판매 비중

N=114(전체), 단위 : 톤, %

분류	SE0	E0	E1	E2
판매량	63,122	270,777	409,840	496,809
판매 비중	(5.1)	(21.8)	(33.0)	(40.0)

6) 파티클보드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파티클보드 수입물량(HS코드 4410.11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83,800㎥이었음. 본 조사에서는 13개 파티클보드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파티클보드 수입 유통량이 803,652㎥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파티클보드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27]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파티클보드 중 가구재가 전체 수입 유통량의 99.1%를 차지하며, 1,570,005㎥으로 추정되며,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06> 용도별 파티클보드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4 (N=11)			2015 (N=7)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가구재	10	338,154 (86.6)	981,211	5	361,400 (82.3)	1,023,883
기타	1	52,500 (13.4)	152,338	2	77,769 (17.7)	220,327
합 계	–	390,654 (100.0)	1,133,549	–	439,169 (100.0)	1,244,210

<표 207> 용도별 파티클보드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6 (N=13)			2017 (N=13)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가구재	6	421,727 (99.0)	1,262,131	13	796,652 (99.1)	1,570,005
기타	1	4,300 (1.0)	12,869	2	7,000 (0.9)	13,795
합 계	–	426,027 (100.0)	1,275,000	–	803,652 (100.0)	1,583,800

□ 파티클보드를 수입·유통하는 업체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판매(자체소비) 비중으로는 E0이 6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E1가 38.1%로 조사 됨.

<표 208>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파티클보드 판매 비중

N=13(전체), 단위 : 톤, %

분류	SE0	E0	E1	비고
판매량	–	497,119	306,533	–
판매 비중	–	(61.9)	(38.1)	–

27) HS코드 4410.11에는 OSB 등 다른 목재 제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 비중을 환산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용도별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양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7) 섬유판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섬유판 수입물량(HS코드 4411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5,640㎥이었음. 본 조사에서는 17개 섬유판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섬유판 수입 유통량이 134,353㎥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섬유판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28]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섬유판 중 가구재가 전체 수입 유통량의 51.1%(79,481㎥)로 추정되며,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09> 용도별 섬유판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4 (N=8)			2015 (N=8)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가구재	3	25,450 (27.9)	34,607	4	14,964 (64.3)	82,401
인테리어용	6	63,304 (69.4)	86,083	5	7,326 (31.5)	40,342
마루판용	1	2,500 (2.7)	3,400	1	1,000 (4.3)	5,507
기타	-	-	-	-	-	-
합 계	-	91,254 (100.0)	124,090	-	23,290 (100.0)	128,250

<표 210> 용도별 섬유판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6 (N=15)			2017 (N=17)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가구재	11	39,496 (65.6)	82,638	12	68,610 (51.1)	79,481
인테리어용	9	20,605 (34.2)	43,112	8	58,143 (43.3)	67,355
마루판용	1	100 (0.2)	209	2	100 (0.1)	116
기타	-	-	-	1	7,500 (5.6)	8,688
합 계	-	60,201 (100.0)	125,960	-	134,353 (100.0)	155,640

28) HS코드 4411에는 강화마루판 등 다른 목재 제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 비중을 환산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용도별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양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섬유판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판매(자체소비) 비중으로는 E1이 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E0이 30.9%로 조사됨.

<표 21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별 섬유판 판매 비중

N=15(전체), 단위 : 톤, %

분류	SE0	E0	E1	E2
판매량	-	41,351	92,762	240
판매 비중	-	(30.9)	(69.0)	(0.2)

8)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물량(HS코드 4410.12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4,458톤으로 조사됨. 본 조사에서는 20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 유통량이 58,741㎥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배향성스트랜드보드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29]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중 구조용/외장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68.9%(78,837㎥)로 추정되며,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12> 용도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유통량(1/2)

단위 :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4 (N=12)			2015 (N=20)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구조용/외장용	4	5,735 (17.7)	-	14	48,685 (62.7)	-
내장용	7	13,127 (40.6)	-	7	15,430 (19.9)	-
포장용	2	13,460 (41.6)	-	2	13,590 (17.5)	-
합 계	-	32,322 (100.0)	-	-	77,705 (100.0)	-

29) HS코드 4410.12에는 강화마루판 등 다른 목재 제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 비중을 환산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용도별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양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표 213> 용도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수입유통량(2/2)

단위 :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6 (N=27)			2017 (N=20)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구조용/외장용	22	53,737 (67.0)	73,085	13	40,460 (68.9)	78,837
내장용	8	11,133 (13.9)	15,142	8	9,763 (16.6)	19,023
포장용	5	15,323 (19.1)	20,840	2	8,518 (14.5)	16,597
합 계	–	80,193 (100.0)	109,067	–	58,741 (100.0)	114,458

9) 목질바닥재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목질바닥재 수입물량(HS코드 4412.10.2000 등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6,397㎥(합판마루판 8,463㎥, 강화마루판 27,934㎥)으로 조사됨. 본 조사에서는 28개 목질바닥재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목질바닥재 수입 유통량이 370,921㎥이었기 때문에 추정[30]을 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 기준으로 용도별 유통량을 확인함.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목질바닥재 중 강화마루가 전체 수입 유통량의 49.1%로 11,922㎥로 나타나는 등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14> 용도별 목질바닥재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4 (N=16)			2015 (N=15)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합판마루	–	–	–	–	–	–
강화마루	–	–	–	–	–	–
강마루	–	–	–	–	–	–
기타	16	54,991 (100.0)	–	15	44,214 (100.0)	45,985
합 계	–	54,991 (100.0)	–	–	44,214 (100.0)	45,985

<표 215> 용도별 목질바닥재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 %, 복수응답

분 류	2016 (N=25)			2017 (N=28)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합판마루	4	6,224 (1.4)	–	2	5,300 (1.4)	–
강화마루	8	413,080 (89.9)	–	6	182,180 (49.1)	–
강마루	4	471 (0.1)	–	3	2,317 (0.6)	–
기타	12	39,897 (8.7)	–	18	181,124 (48.8)	–
합 계	–	459,672 (100.0)	–	–	370,921 (100.0)	–

30) 합판마루판과 강화마루판의 각각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수집된 수입통계물량이 실제 수입 유통되고 있는 물량보다 작기 때문에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를 전체량으로 산출함. HS코드 기준으로 잡히지 않는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수입업체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결과가 목질바닥재 전체 수입 유통량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10) 목재펠릿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목재펠릿 수입물량(HS코드 4401.31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31,165톤으로 조사됨. 본 조사에서는 63개 목재펠릿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목재펠릿 수입 유통량이 1,322,050톤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목재펠릿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31]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목재펠릿 중 발전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73.4%로 1,785,634톤으로 추정되며,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16> 용도별 목재펠릿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4 (N=44)			2015 (N=24)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농가주택용	7	5,500 (0.3)	5,786	4	7,901 (1.8)	25,953
산업용	29	136,980 (7.9)	144,100	15	132,017 (29.5)	433,649
발전용	17	1,587,350 (0.2)	1,669,864	7	300,587 (67.1)	987,366
기타	1	100 (91.8)	105	2	7,220 (1.6)	23,716
합 계	–	1,729,930 (100.0)	1,819,855	–	447,725 (100.0)	1,470,684

<표 217> 용도별 목재펠릿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6 (N=61)			2017 (N=63)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농가주택용	10	8,086 (0.8)	14,452	7	25,417 (1.9)	46,740
산업용	36	243,372 (25.3)	434,974	26	319,308 (24.2)	587,187
발전용	16	706,650 (73.6)	1,262,981	19	971,015 (73.4)	1,785,634
기타	6	2,369 (0.3)	4,234	8	6,310 (0.5)	11,604
합 계	–	960,477 (100.0)	1,716,641	–	1,322,050 (100.0)	2,431,165

31) 조사된 결과 비중을 환산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용도별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양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목재펠릿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의 등급별 판매(자체소비) 비중으로는 2급 펠릿이 4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급 펠릿 27.2%, 1급 펠릿 24.4%, 4급 펠릿 1.5%의 순으로 판매되고 있었음.

<표 218> 등급별 목재펠릿 판매 비중

N=61(전체), 단위 : 톤, %

분 류	1급 펠릿	2급 펠릿	3급 펠릿	4급 펠릿
판매량	322,979	602,195	359,436	19,441
판매 비중	(24.4)	(45.6)	(27.2)	(1.5)

11) 목재칩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펄프용칩 수입물량(HS코드 4401.22.1000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45,719톤, 보드용칩 수입물량(HS코드 4401.22.9000 기준)은 29,609톤으로 목재칩 총 수입물량은 875,328톤으로 조사됨. 본 조사에서는 11개 목재칩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목재칩 수입 유통량이 1,259,247톤이었기 때문에 추정[32]을 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 기준으로 용도별 유통량을 확인함.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목재칩 중 펄프용 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67.2%(845,719톤)로 나타나는 등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19> 용도별 목재칩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4 (N=2)			2015 (N=2)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펄프용(활엽수)	-	50,025 (4.7)	50,025	-	935,099 (99.2)	935,099
보드용(침엽수)	-	1,017,384 (95.3)	1,017,384	-	7,470 (0.8)	7,470
연료용	-	-	-	-	-	-
합 계[33]	**-**	**1,067,409 (100.0)**	**1,067,409**	**-**	**935,099 (100.0)**	**935,099**

32) 펄프용칩과 보드용칩의 각각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수집된 수입통계물량이 실제 수입 유통되고 있는 물량보다 작기 때문에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를 전체량으로 산출함. HS코드 기준으로 잡히지 않는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수입업체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결과가 목재칩 전체 수입 유통량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33) 2014, 2015년 목재칩 수입업체는 각각 2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나, 그 양이 매우 적어 수입통계에서 조사된 양을 유통량으로 해석함

<표 220> 용도별 목재칩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6 (N=11)			2017 (N=11)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펄프용(활엽수)	1	860,000 (45.0)	-	1	845,719 (67.2)	-
보드용(침엽수)	1	5,000 (0.2)	-	1	9,000 (0.7)	-
연료용	9	1,046,930 (54.8)	-	9	404,528 (32.1)	-
합 계[34]	-	1,911,930 (100.0)	-	-	1,259,247 (100.0)	-

12) 목재브리켓

□ 목재브리켓의 경우 수입통계(HS코드 4401.30.9000 기준)에서 잡히는 물량이 2013년 이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본 조사에서는 4개 목재브리켓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목재브리켓 수입 유통량이 535톤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추정[35]을 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 기준으로 용도별 유통량을 확인함.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목재브리켓 중 주거캠핑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100.0%(535톤)로 나타나는 등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21> 용도별 목재브리켓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4 (N=4)			2015 (N=1)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주거캠핑용	3	646 (74.6)	-	1	70 (35.0)	-
산업연료용	1	200 (23.1)	-	1	130 (65.0)	-
기타	1	20 (2.3)	-	-	-	-
합 계	-	866 (100.0)	-	-	200 (100.0)	-

34) 2014, 2015년 목재칩 수입업체는 각각 2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나, 그 양이 매우 적어 수입통계에서 조사된 양을 유통량으로 해석함
35) 목재브리켓의 경우 해당 HS코드로 수입되지 않고, 다른 HS코드로 일부 수입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업체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결과가 목재브리켓 전체 수입 유통량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222> 용도별 목재브리켓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6 (N=1)			2017 (N=4)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주거캠핑용	1	1 (100.0)	0	4	535 (100.0)	535
산업연료용	-	-	-	-	-	-
기타	-	-	-	-	-	-
합 계	-	1 (100.0)	0	-	535 (100.0)	535

□ 목재브리켓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모두 A1등급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23> 등급별 목재브리켓 판매 비중

N=1(전체), 단위 : 톤, %

분 류	A1등급	A2등급	B등급
판매량	535	-	-
판매 비중	(100.0)	-	-

13) 성형목탄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성형목탄 수입물량(HS코드 4402.10.1000 등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7,294톤으로 조사됨. 본 조사에서는 16개 성형목탄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성형목탄 수입 유통량이 34,832톤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성형목탄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36]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성형목탄 중 기타가 전체 수입 유통량의 51.4%로 17,910톤으로 추정되며, 주거/캠핑용이 전체 수입 유통량의 31.9%로 11,095톤으로 추정되는 등 세부 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24> 용도별 성형목탄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4 (N=3)			2015 (N=2)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산업연료용	–	–	–	1	8,400 (98.6)	37,155
주거/캠핑용	–	–	–	–	–	–
기타	3	3,280 (100.0)	52,592	1	120 (1.4)	531
합 계	–	3,280 (100.0)	52,592	–	8,520 (100.0)	37,685

<표 225> 용도별 성형목탄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6 (N=9)			2017 (N=16)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산업연료용	4	1,720 (10.6)	3,910	3	5,827 (16.7)	6,239
주거/캠핑용	2	178 (1.1)	404	11	11,095 (31.9)	11,879
기타	6	14,265 (88.3)	32,429	3	17,910 (51.4)	19,176
합 계	–	16,163 (100.0)	36,744	–	34,832 (100.0)	37,294

36) 수입업체로부터 응답받은 물량이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물량보다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추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

14) 목탄

□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2017년 목탄 수입물량(HS코드 4402.10.9000 등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241톤으로 조사됨. 본 조사는 49개 목탄 수입업체로부터 2017년 목탄 수입 유통량이 50,798톤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수입통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 목탄의 용도별 유통량을 추정[37]할 수 있음.

□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목탄의 대부분이 연료용으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됨.

<표 226> 용도별 목탄 수입유통량(1/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4 (N=5)			2015 (N=10)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연료용	5	910 (100.0)	119,941	10	9,547 (100.0)	121,016
기타	-	-	-	-	-	-
합 계	-	910 (100.0)	119,941	-	9,547 (100.0)	121,016

<표 227> 용도별 목탄 수입유통량(2/2)

단위 : 개, 톤, %, 복수응답

분 류	2016 (N=20)			2017 (N=49)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응답 업체 수 (개)	응답 업체 수 (개)	수입 유통량 (비중)	추정량
연료용	12	36,171 (57.8)	72,965	42	42,401 (83.5)	76,993
기타	9	26,393 (42.2)	53,241	7	8,397 (16.5)	15,248
합 계	-	62,564 (100.0)	126,206	-	50,798 (100.0)	92,241

37) 수입업체로부터 응답받은 물량이 수입통계에서 잡히는 물량보다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추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

제4장 목재분야 지원제도 및 품질관리 현황

제4장 목재분야 지원제도 및 품질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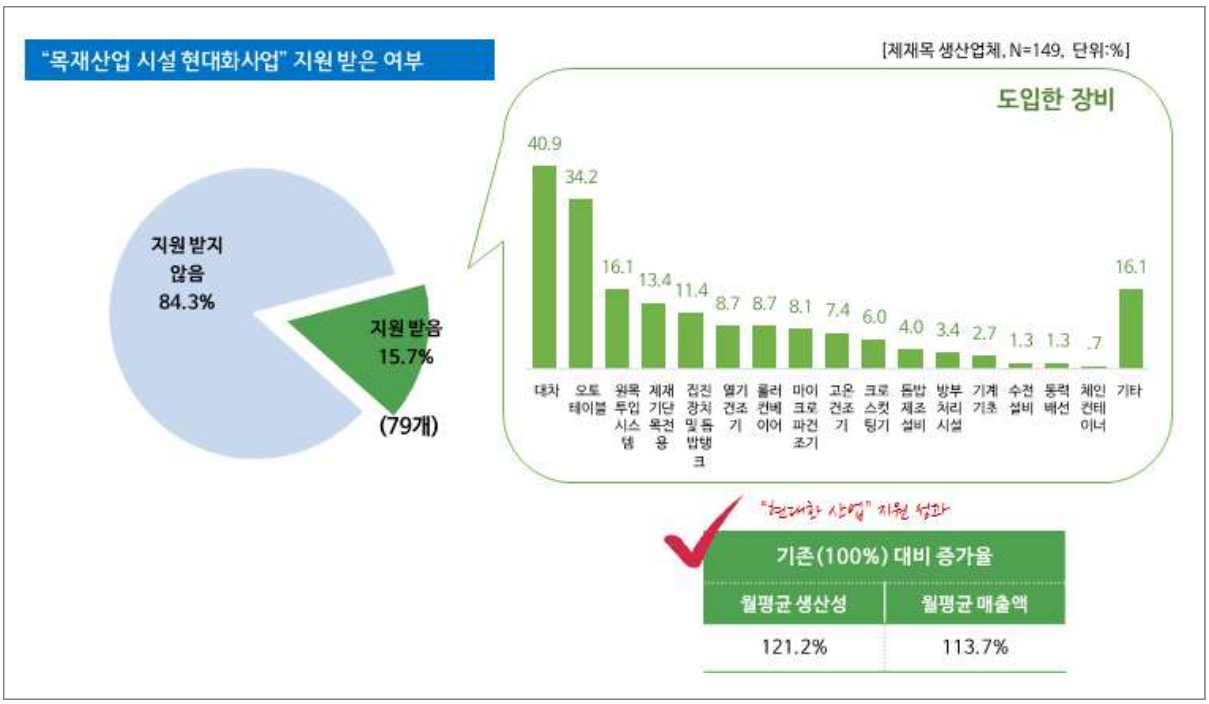
제1절 목재분야 장비현대화 지원 효과 분석

1. 제재목

□ 제재목 생산업체(502개) 중 2017년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는 79개(15.7%)로 조사됨.

□ 현대화 사업을 위해 도입한 장비는 '대차'가 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토테이블'이 34.2%, '원목투입시스템' 16.1%, '제재기단목 전용' 13.4%, '집진장치 및 톱밥탱크' 11.4%, '열기 건조기' 8.7% 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음.

□ 월 평균 생산성은 기존(100%) 대비 도입 후 평균 121.2%로 변화되어 6.9% 가량 증가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출액은 기존(100%) 대비 도입 후 평균 113.7%로 5.8% 가량 매출액이 증가함.



[그림 15] 제재목 현대화사업 지원 성과

□ 향후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제재목 생산업체(502개) 중 149개(29.7%)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도입을 희망하는 장비로는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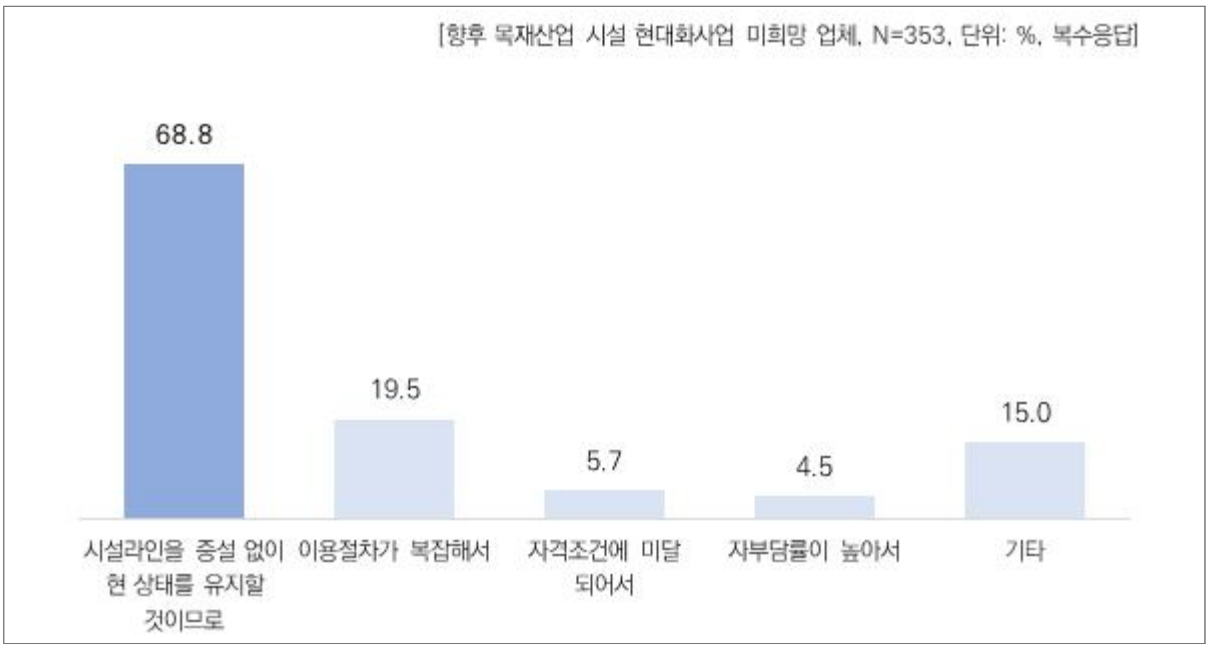
<표 228> 현대화 사업으로 도입 희망 장비_제재목

N=149(향후 현대화사업 지원 희망 업체), 단위 : %

제재기단목 전용	대차	오토 테이블	원목투입 시스템	롤러컨 베이어	체인 컨테이너	집진장치 및 톱밥탱크	크로스 컷팅기	톱밥제조 설비
13.4	40.9	34.2	16.1	8.7	0.7	11.4	6.0	4.0
기계기초	**수전설비 (300kw)**	**동력배선**	**열기 건조기**	**고온 건조기**	**마이크로파 건조기**	**방부 처리시설**	**기타**	
2.7	1.3	1.3	8.7	7.4	8.1	3.4	16.1	

□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시설라인을 증설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절차가 복잡해서(서류가 많아서)'(19.5%), '자격조건에 미달 되어서'(5.7%), '자부담률이 높아서(비용이 부담 되어서)'(4.5%) 등의 이유로 현대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경기 부진', '경기 하락,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유통이 안되서 필요성을 못 느낌', '설치 시 제재가 안 되는 기간이 있어서', '소비처가 줄어드는 상황', '신청 시 원하는 기계를 선정할 수 없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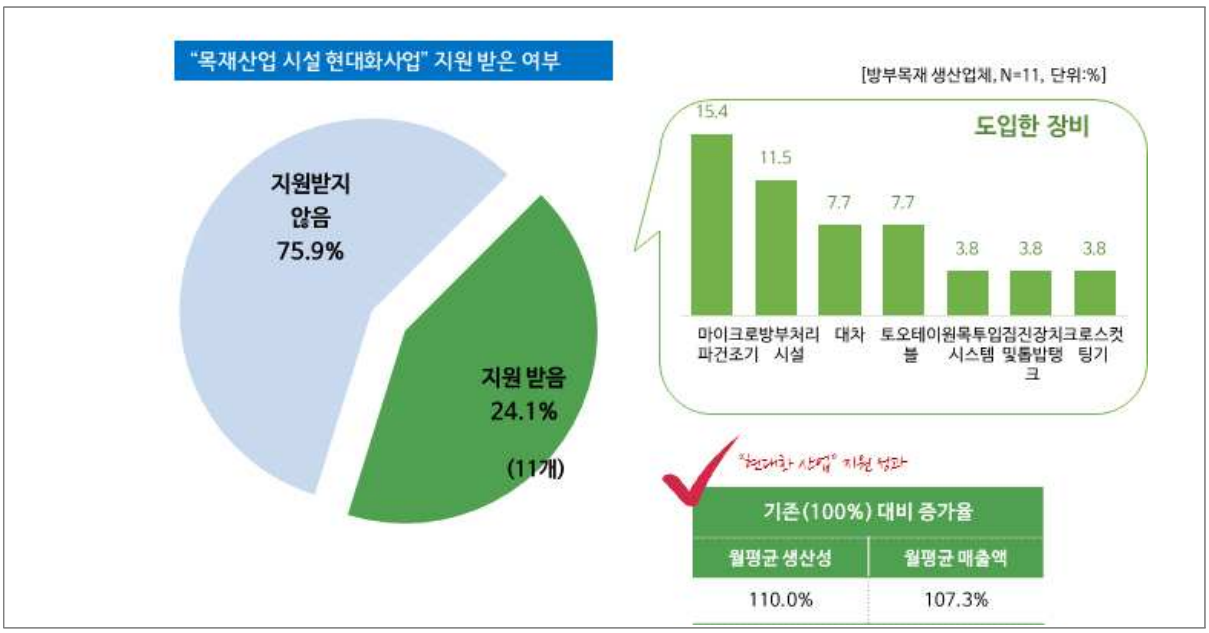


[그림 16]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제재목)

2. 방부목재

□ 방부목재 생산업체(26개) 중 2017년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는 11개(42.3%)로 조사됨.

□ 현대화 사업을 위해 도입한 장비는 '마이크로파 건조기' 1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부처리시설' 11.5%, '대차'와 '오토테이블'이 각각 7.7%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음.



[그림 17] 방부목재 현대화사업 지원 성과

□ 향후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여부로는 방부목재 생산업체(26개) 중 11개(42.3%)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도입을 희망하는 장비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29> 현대화 사업으로 도입 희망 장비_방부목재

N=11(향후 현대화사업 지원 희망 업체), 단위 : %

제재기단목 전용	대차	오토 테이블	원목투입 시스템	롤러컨 베이어	체인 컨테이너	집진장치 및 톱밥탱크	크로스 컷팅기	톱밥 제조설비
–	7.7	7.7	3.8	–	–	3.8	3.8	–
기계기초	수전설비 (300kw)	동력배선	열기 건조기	고온 건조기	마이크로파 건조기	방부처리 시설	기타	
–	–	–	–	–	15.4	11.5	–	

□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시설라인을 증설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절차가 복잡해서(서류가 많아서)'(13.3%), '자격조건에 미달 되어서'(13.3%), '자부담률이 높아서(비용이 부담 되어서)'(6.7%) 등의 이유로 현대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기타 의견으로는 '현행 제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림 18]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방부목재)

제2절 목재산업육성 방안

1. 시설 증설 의향

□ 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회사의 잉여자금이 있을 경우, 시설 증설 의향 여부로는 현 상태 유지가 82.3%, 제조라인 증설 10.4%, 노후설비 개체 7.3%로 나타남.

□ 모든 업종의 업체가 현 상태 유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제조라인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진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표 230> 시설 증설 의향 여부

단위 : %

구분	업체 수	제조라인 증설	노후설비 개체	현 상태 유지
전체	**711**	**10.4**	**7.3**	**82.3**
제재목	502	11.0	8.8	80.3
방부목재	26	11.5	19.2	69.2
난연목재	2	-	-	100.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	16.7	83.3
집성재	6	-	-	100.0
합판	4	-	-	100.0
파티클보드	3	-	33.3	66.7
섬유판	5	-	20.0	80.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목질바닥재	10	-	-	100.0
목재 펠릿	19	26.3	-	73.7
목재칩	55	9.1	-	90.9
목재브리켓	-	-	-	-
성형목탄	2	-	-	100.0
목탄	71	8.5	-	91.5

2.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

□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자금 지원이 66.0%로 모든 업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급(35.4%)과 유통구조 개선(23.8%)으로 나타남.

<표 231>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1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업체 수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급 (물량지원)	유통구조 개선
전체	703	66.0	14.4	35.4	23.8
제재목	502	67.3	13.1	32.1	21.5
방부목재	26	80.8	30.8	42.3	50.0
난연목재	2	100.0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100.0	16.7	16.7	-
집성재	6	66.7	-	100.0	-
합판	4	-	-	-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목질바닥재	10	-	-	-	-
목재 펠릿	19	68.4	26.3	52.6	47.4
목재칩	55	65.5	14.5	49.1	27.3
목재브리켓	-	-	-	-	-
성형목탄	2	100.0	50.0	50.0	-
목탄	71	70.0	16.9	45.1	31.0

<표 232>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2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업체 수	품질관리 강화	구격(기준) 정비 및 용도개발	친환경 및 내수성 접착제 기술개발	국산재 공급 도모	설비개체	기타
전체	703	1.1	0.4	0.3	0.4	0.4	27.5
제재목	502	-	-	-	-	-	29.9
방부목재	26	-	-	-	-	-	15.4
난연목재	2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	-	-	-	-	-
집성재	6	-	-	-	-	-	33.3
합판	4	50.0	75.0	50.0	50.0	50.0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
목질바닥재	10	60.0	0.0	0.0	10.0	10.0	20.0
목재 펠릿	19	-	-	-	-	-	26.3
목재칩	55	-	-	-	-	-	23.6
목재브리켓	-	-	-	-	-	-	-
성형목탄	2	-	-	-	-	-	-
목탄	71	-	-	-	-	-	23.9

□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업계에서는 수요발굴 지원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강화 50.0%, 물질 재활용 우선 등 폐목재 재활용제도 개선과 원자재 수급 안정 각각 37.5%로 나타남.

<표 233>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3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업체 수	품질 관리 강화	수요 발굴	친환경 및 내수성 접착제 기술 개발	물질 재활용 우선 등 폐목재 재활용 제도 개선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시장 조사 강화	원자재 수급 안정	기타
전체	8	37.5	62.5	25.0	37.5	50.0	37.5	-
파티클보드	3	-	100.0	33.3	33.3	-	66.7	-
섬유판	5	60.0	40.0	20.0	40.0	80.0	20.0	-

□ 또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원자재 공급확대 및 물질 재활용 우선 등 폐목재 재활용 제도개선이 지원되길 희망함.

<표 234> 산림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4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업체 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원자재 공급확대	유통구조 개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화	물질 재활용 우선 등 폐목재 재활용 제도개선	기타
전체	8	37.5	62.5	25.0	37.5	62.5	
파티클보드	3	-	33.3	-	33.3	100.0	-
섬유판	5	60.0	80.0	40.0	40.0	-	-

3. 산림청 정책자금 이용 경험 및 미활용 이유

□ 산림청의 정책자금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있다'는 업체가 전체 8.6%, '경험없다'는 업체가 91.4%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파티클보드, 목재펠릿의 정책 자금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5> 산림청 정책자금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업체 수	있음	없음
전체	**711**	**8.6**	**91.4**
제재목	502	9.6	90.4
방부목재	26	7.7	92.3
난연목재	2	-	100.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	100.0
집성재	6	-	100.0
합판	4	-	100.0
파티클보드	3	33.3	66.7
섬유판	5	-	100.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목질바닥재	10	-	100.0
목재 펠릿	19	15.8	84.2
목재칩	55	3.6	96.4
목재브리켓	-	-	-
성형목탄	2	-	100.0
목탄	71	4.2	95.8

□ 산림청 지원 자금 제도에 대해 불만족 하는 이유는 제재목 업체의 경우 '새로 설치된 기계 운영의 회사 지원이 미흡해서', '몰딩공급 업체의 무성의한 A/S대처, 몰딩 제품 수용 감소', '지원받은 후 금융을 세금으로 환원하라는 통보를 받음, 현재 각 지자체 세무서, 산림청과 조율중'등의 의견이 나타남.

□ 산림청 지원 자금 제도에 대해 응답업체 기준 '대체로 만족'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우만족', '보통'은 각각 21.3%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6> 산림청 정책자금 제도 만족도

N=산림청 정책자금 이용한 업체, 단위 : %, 점

구분	업체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61	1.6	3.3	21.3	52.5	21.3	3.89	77.7
제재목	48	2.1	4.2	12.5	60.4	20.8	3.94	78.8
방부목재	4	0.0	0.0	50.0	25.0	25.0	3.75	75.0
난연목재	-	-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	-	-	-	-	-	-
집성재	-	-	-	-	-	-	-	-
합판	-	-	-	-	-	-	-	-
파티클보드	1	-	-	100.0	-	-	1.50	30.0
섬유판	-	-	-	-	-	-	-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	-
목질바닥재	-	-	-	-	-	-	-	-
목재 펠릿	3	-	-	66.7	-	33.3	3.67	73.3
목재칩	2	-	-	50.0	-	50.0	4.00	80.0
목재브리켓	-	-	-	-	-	-	-	-
성형목탄	-	-	-	-	-	-	-	-
목탄	3	-	-	33.3	66.7	-	3.67	73.3

□ 한편, 산림청 지원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설라인을 증설 없이 현 상태를 유지 할 것이므로' 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절차가 복잡하여 지원 포기' 16.5%, '담보 설정으로 인해 지원받기가 부담스러워서' 13.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신청했으나 탈락', '지원대상 제외', '경기부진', '2018년 지원예정' 등이 있었음.

<표 237> 산림청 정책자금 이용 경험 여부(1/2)

N=산림청 정책자금 미용한 업체 단위 : %

구분	업체 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지 몰라서	경영정상화 등으로 정책자금이 필요 없어서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시중 금융권 이용	담보 설정으로 인해 지원 받기가 부담스러우서
전체	650	10.2	4.5	4.2	13.8
제재목	454	9.9	3.7	4.8	13.9
방부목재	22	13.6	4.5	4.5	13.6
난연목재	2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33.3	-	-	-
집성재	6	-	-	-	-
합판	4	25.0	50.0	-	-
파티클보드	2	-	100.0	-	-
섬유판	5	-	80.0	-	-
목질바닥재	10	-	-	-	-
목재 펠릿	16	12.5	-	6.3	12.5
목재칩	53	7.5	5.7	3.8	9.4
성형목탄	2	-	-	-	-
목탄	68	13.2	-	1.5	25.0

<표 238> 산림청 정책자금 이용 경험 여부(2/2)

N=산림청 정책자금 미용한 업체 단위 : %

구분	업체 수	이용절차가 복잡하여 지원포기	시설라인을 증설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므로	과거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등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기타
전체	650	16.5	47.5	4.9	18.5
제재목	454	15.4	51.5	4.0	17.2
방부목재	22	18.2	31.8	13.6	13.6
난연목재	2	-	-	-	100.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	16.7	16.7	33.3
집성재	6	-	-	-	100.0
합판	4	-	25.0	25.0	-
파티클보드	2	-	-	-	-
섬유판	5	-	20.0	-	-
목질바닥재	10	-	40.0	-	60.0
목재 펠릿	16	25.0	31.3	31.3	-
목재칩	53	18.9	43.4	5.7	24.5
성형목탄	2	-	-	-	100.0
목탄	68	27.9	48.5	1.5	11.8

제3절 목재분야 규격품질표시 현황

1. 생산업체 규격·품질표시 인지 및 품질표시량

□ 현재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목재이용법 20조 기준)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 중 제재목과 목탄 및 방부목 생산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규격·품질 표시를 인지함.

□ 전반적으로 90%의 인지율을 보였으며, 목탄 생산업체의 규격·품질 표시 인지 비율이 97.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품질표시량은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탄 생산업체는 생산되는 물량의 90% 이상을 품질 표시함.

<표 239> 생산업체 규격·품질표시 인지 및 품질표시량

단위 : 개, ㎥, 톤, %

구 분	규격·품질표시 인지			품질표시 생산량			
	응답 업체 수	인지 업체 수	비율(%)	단위	전체 생산량	품질표시량	비율(%)
제재목	502	491	97.8	㎥	2,188,187	33,991	1.6%
방부목재	26	25	96.2	㎥	160,746	136,500	84.9%
난연목재	2	2	100.0	㎥	26,160	26,000	99.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6	100.0	톤	4,110	4,110	100.0%
집성재(집성판포함)	6	6	100.0	톤	3,046	2,732	89.7%
합판	4	4	100.0	㎥	425,279	425,279	100.0%
파티클보드	3	3	100.0	㎥	865,241	865,241	100.0%
섬유판	5	5	100.0	㎥	1,835,251	1,835,251	100.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	0.0%
목질바닥재(마루판)	10	10	100.0	톤	179,632	144,111	80.2%
목재펠릿	19	19	100.0	톤	118,126	105,102	89.0%
목재칩	55	55	100.0	톤	1,988,387	1,720,769	86.5%
목재브리켓	–	–	–	–	–	–	0.0%
성형목탄	2	2	100.0	톤	4,977	4,063	81.6%
목탄	70	68	97.1	톤	8,789	8,611	98.0%

2. 수입업체 규격·품질표시 인지 및 품질표시량

□ 현재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준)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 중 방부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용칩, 보드용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의 경우 100.0% 규격·품질 표시를 인지함.

- 제재목(96.2%), 합판(96.2%), 목탄(95.8%), 집성재(93.1%), 목재펠릿(92.6%), 목질바닥재(91.7%) 등은 90% 이상의 인지율을 보임.
- 연료용칩(57.1%), 배향성스트랜드보드(75.0%)의 경우 품질표시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펄프용칩, 보드용칩, 목재브리켓 수입업체는 판매 제품 모두 품질표시를 하고 있음.

- 목재플라스틱복합재는 전체 판매량 중 90.0%, 파티클보드 88.0% 성형목탄은 85.4%, 목탄 82.6%, 목재펠릿 66.6%, 방부목재 65.3%, 집성재 55.8%로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0> 수입업체 규격·품질표시 인지 및 품질표시량

단위 : 개, ㎥, 톤, %

구 분		규격·품질표시 인지			규격·품질표시 수입 및 판매량				
		응답 업체 수	인지 업체 수	비율(%)	단위	수입량	판매량	품질 표시량	비율(%)
제재목		131	126	96.2	㎥	1,569,082	1,513,243	434,295	27.7%
방부목재		1	1	100.0	㎥	51,339	50,709	33,500	65.3%
난연목재		-	-	-	㎥	-	-	-	0.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2	100.0	톤	400	360	360	90.0%
집성재(집성판포함)		29	27	93.1	톤	98,672	90,191	55,083	55.8%
합판		78	75	96.2	㎥	1,324,786	1,240,548	794,871	60.0%
파티클보드		8	8	100.0	㎥	835,375	803,652	735,130	88.0%
섬유판		7	7	100.0	㎥	137,174	134,353	87,506	63.8%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3	75.0	톤	61,329	58,741	41,771	68.1%
목질바닥재(마루판)		24	22	91.7	㎥	386,094	370,921	232,189	60.1%
목재펠릿		54	50	92.6	톤	1,324,324	1,322,050	882,341	66.6%
목재칩	펄프용	1	1	100.0	톤	845,719	845,719	845,719	100.0%
	보드용	1	1	100.0	톤	9,000	9,000	9,000	100.0%
	연료용	7	4	57.1	톤	404,528	404,528	194,300	48.0%
목재브리켓		3	3	100.0	톤	535.2	535.2	535.2	100.0%
성형목탄		13	13	100.0	톤	35,353	34,832	30,206	85.4%
목탄		48	46	95.8	톤	50,815	50,798	41,958	82.6%

※ 규격·품질표시 수입 및 판매량은 본 조사에 의해 산출된 결과임

3. 품질표시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

□ 품질표시제도에 대해 생산업체가 생각하는 보완사항은, '규격표시 간소화'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업체규모별 차별적 시행' 30.9%, '규격표시 관련 비용 지원 확대'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1> 품질표시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생산업체 의견)

단위 : 개, %

품목별	사례수	검사 소요기간 단축	업체규모별 차별적 시행	규격표시 간소화	규격표시 관련 비용 지원 확대 (인건비지원)	세분화된 규격화 (표준화)	수입제품 단속강화	기타
전체	710	3.2	30.9	32.4	19.4	2.7	4.5	6.8
제재목	502	0.8	39.2	35.5	17.7	2.6	1.6	2.6
방부목재	26	15.4	3.8	34.6	23.1	–	7.7	15.4
난연목재	2	–	50.0	–	50.0	–	–	–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6	66.7	16.71	–	–	–	–	16.7
집성재	6	50.0	–	33.32	–	–	–	16.71
합판	4	–	–	25.0	–	–	50.0	25.0
파티클보드	3	–	–	–	–	–	100.0	–
섬유판	5	–	20.0	20.0	20.0	–	40.0	–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	–	–	–	–	–	–
목질바닥재	10	30.0	20.0	40.0	–	–	–	10.0
목재펠릿	19	10.5	–	36.8	42.1	–	5.3	5.3
목재칩	55	5.5	23.6	27.3	18.2	1.8	1.8	21.8
목재브리켓	–	–	–	–	–	–	–	–
성형목탄	2	–	–	–	–	–	50.0	50.0
목탄	70	–	5.7	18.6	32.9	7.1	17.1	18.6

□ 수입업체의 품질 표시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검사 소요기간 단축'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규격표시 간소화' 30.2%, '규격표시 관련 비용 지원확대' 14.6%, '업체 규모별 차별적 시행' 7.7%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242> 품질 표시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수입업체 의견)

단위 : 개, %

품목별	사례수	검사 소요기간 단축	업체규모별 차별적 시행	규격표시 간소화	규격표시 관련 비용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	세분화된 규격화 (표준화)	수입제품 단속 강화	기타
전체	418	30.4	7.7	30.2	14.6	1.2	0.5	15.5
제재목	131	14.5	15.3	35.1	13.7	0.8	-	20.6
방부목재	1	100.0	-	-	-	-	-	-
난연목재	-	-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50.0	-	-	-	-	-	50.0
집성재	29	17.2	3.4	41.4	27.6	-	3.4	6.9
합판	78	25.6	6.4	38.5	15.4	2.6	-	11.5
파티클보드	8	50.0	12.5	12.5	12.5	-	-	12.5
섬유판	7	14.3	-	42.9	14.3	-	14.3	14.3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25.0	-	50.0	-	-	-	25.0
목질바닥재	24	20.8	4.2	41.7	4.2	-	-	29.2
목재펠릿	53	49.1	1.9	20.8	15.1	-	-	13.2
펄프용칩	1	-	-	100.0	-	-	-	-
보드용칩	1	-	-	100.0	-	-	-	-
연료용칩	7	42.9	-	14.3	14.3	-	-	28.6
목재브리켓	3	66.7	-	-	-	-	-	33.31
성형목탄	13	69.2	-	-	7.7	15.4	-	7.7
목탄	48	58.3	2.1	12.5	18.8	-	-	8.3
기타	8	25.0	25.0	25.0	12.5	-	-	12.5

제4절 목재분야 인증 취득 현황 분석

1. 목재제품 인증제품 보유 현황

1) 제재목

<표 243>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제재목

전체,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
KWood	2	2015	4,154
KS	1	2013	1,916
	1	2014	57
	1	2017	500
친환경	1	2016	100
GR	-	-	-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2) 방부목재

<표 244>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방부목재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
KWood	4	2015	8,741
	1	2016	160
	1	2017	439
KS	1	2014	542
	1	2016	300
	1	2017	500
친환경	1	2016	100
GR	1	2012	330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3) 난연목재

<표 245>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난연목재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
KWood	-	-	-
KS	1	2009	26,000
친환경	-	-	-
GR	-	-	-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4) 목재플라스틱

<표 246>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목재플라스틱복합재

단위 : 개, 톤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톤)
KWood	-	-	-
KS	1	2006	1,130
	2	2012	1,510
	1	2013	1,300
	1	2018	120
친환경	1	2015	710
	1	2018	125
GR	2	2012	2,100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5) 집성재

<표 247>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집성재

단위 : 개, 톤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톤)
KWood	-	-	-
KS	1	2010	200
	1	2012	500
친환경	-	-	-
GR	-	-	-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6) 합판

<표 248>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합판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
KWood	-	-	-
KS	1	1971	142,800
	1	1982	130,094
	1	2016	18,091
친환경	-	-	-
GR	-	-	-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7) 파티클보드

<표 249>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파티클보드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
KWood	2	2015	577,241
KS	1	1974	281,661
	1	1999	288,000
	1	2010	295,580
친환경	1	2006	295,580
	2	2010	269,661
GR	1	2005	251,661
	1	2011	295,580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8) 섬유판

<표 250>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섬유판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
KWood	1	2004	330,000
	1	2005	546,085
KS	1	1991	546,085
	1	1999	330,000
	2	2005	629,160
	1	-	327,697
친환경	1	2006	546,085
	1	2009	134,045
	1	2010	11,286
	1	-	321,179
GR	-	-	-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1	-	327,697

9) 목질바닥재

<표 251>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목질바닥재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
KWood	-	-	-
KS	1	1998	63,000
	8	-	109,672
친환경	1	1998	63,000
	5	-	80,522
GR	-	-	-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10) 목재펠릿

<표 252>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목재펠릿

단위 : 개, 톤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톤)
KWood	1	2015	6,697
KS	-	-	-
친환경	-	-	-
GR	-	-	-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11) 목재칩

□ 성형목탄 생산업체의 경우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품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 성형목탄

□ 성형목탄 생산업체의 경우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품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목탄

<표 253> 목재제품 품질인증 외 취득한 인증_목탄

단위 : 개, 톤

구분	업체 수	인증년도	생산량(톤)
KWood	2	2012	1,170
KS	-	-	-
친환경	-	-	-
GR	-	-	-
산림인증	-	-	-
신기술(NET)	-	-	-
기타	-	-	-

□ 해외인증(FSC, CoC 등)을 받은 업체의 최다 취급 품목별로는 제재목이 51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합판(25개), 목재펠릿(18개) 등이 비교적 높았음.

□ 제품 형태로는 파티클보드 반제품 100.0%이고, 방부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 대부분 완제품이 100.0%인 것으로 조사됨.

□ 수입 형태는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를 제외하고 100.0% 모두 직접 수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4> 해외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 및 수입형태

N=51(해외인증 받은 업체), 단위 : %, 1+2+3순위

구분	업체 수	제품형태			수입형태		
		반제품	완제품	반제품+완제품	직접	간접	직접+간접
제재목	51	52.9	47.1	-	84.3	7.8	-
방부목재	2	-	100.0	-	50.0	50.0	-
난연목재	-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1	-	100.0	-	100.0	-	-
집성재	12	33.3	58.3	8.3	83.3	16.7	-
합판	25	32.0	68.0	-	88.0	12.0	-
파티클보드	2	100.0	-	-	100.0	-	-
섬유판	2	50.0	50.0	-	100.0	-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6	-	100.0	-	83.3	16.7	-
목질바닥재	14	-	100.0	-	100.0	-	-
목재펠릿	18	-	100.0	-	100.0	-	-
펄프용칩	1	-	100.0	-	100.0	-	-
보드용칩	-	-	-	-	-	-	-
연료용칩	-	-	-	-	-	-	-
목재브리켓	1	-	100.0	-	100.0	-	-
성형목탄	1	-	100.0	-	100.0	-	-
목탄	-	-	-	-	-	-	-
기타	1	100.0	-	-	-	-	-

2. 목재제품 수입 시 확인 서류

<표 255> 목재제품 수입 시 확인 서류

N=131, 단위 : %, 1+2+3순위

품목별	사례수	INVOICE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식물검역 증명서	Packing List	열처리 증명서	보험 증명서	시험 성적서	기타수입 요건 확인서	하법성 증빙서류	관세사 대행으로 잘 모름	기타
제재목	131	90.1	89.3	85.5	57.3	31.3	90.1	25.2	25.2	16.8	7.6	6.1	9.9	-
방부목재	1	100.0	100.0	100.0	-	-	100.0	-	-	100.0	-	-	-	-
난연목재	-	-	-	-	-	-	-	-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	50.0	50.0	50.0	50.0	-	-
집성재	29	96.6	93.1	96.6	65.5	24.1	93.1	24.1	20.7	17.2	13.8	6.9	3.4	-
합판	78	91.0	91.0	87.2	53.8	20.5	85.9	15.4	21.8	23.1	2.6	5.1	10.3	1.3
파티클보드	8	87.5	87.5	87.5	62.5	12.5	87.5	12.5	12.5	75.0	12.5	37.5	12.5	-
섬유판	7	85.7	85.7	71.4	42.9	14.3	85.7	14.3	-	14.3	-	-	14.3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75.0	75.0	75.0	25.0	25.0	75.0	25.0	25.0	25.0	-	-	25.0	-
목질바닥재	24	91.7	91.7	91.7	58.3	12.5	91.7	12.5	16.7	33.3	4.2	-	8.3	4.2
목재펠릿	53	84.9	83.0	81.1	28.3	30.2	77.4	9.4	9.4	50.9	7.5	3.8	9.4	5.7
펄프용칩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보드용칩	1	-	-	-	-	-	-	-	-	-	-	-	-	100.0
연료용칩	7	100.0	100.0	100.0	28.6	14.3	100.0	28.6	14.3	42.9	14.3	-	-	-
목재브리켓	3	33.3	33.3	33.3	-	-	33.3	-	-	33.3	-	-	66.7	-
성형목탄	13	76.9	76.9	76.9	23.1	7.7	76.9	7.7	7.7	61.5	-	-	15.4	7.7
목탄	48	77.1	75.0	75.0	12.5	2.1	72.9	4.2	-	56.3	-	-	25.0	2.1
기타	8	100.0	100.0	100.0	37.5	25.0	87.5	12.5	-	-	-	-	-	12.5

제5절 목재생산업 등록 및 법정교육 이수 현황

□ 생산업체의 법정교육 이수 현황은 교육을 수료하고 목재생산업에 등록한 업체가 79.5%로 가장 많았고, 임산가공기사를 소지하여 목재생산업에 등록한 업체는 15.9%,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응답이 2.4%, 등록하지 않음 2.1%의 순으로 나타남.

□ 생산업체 중 난연목재와 집성재, 성형목탄 생산업체는 교육을 수료하여 생산업 등록을 하였다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났고, 목탄과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생산업체도 각각 90.1%, 90.0%, 84.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256> 법정교육 이수 현황

단위 : %,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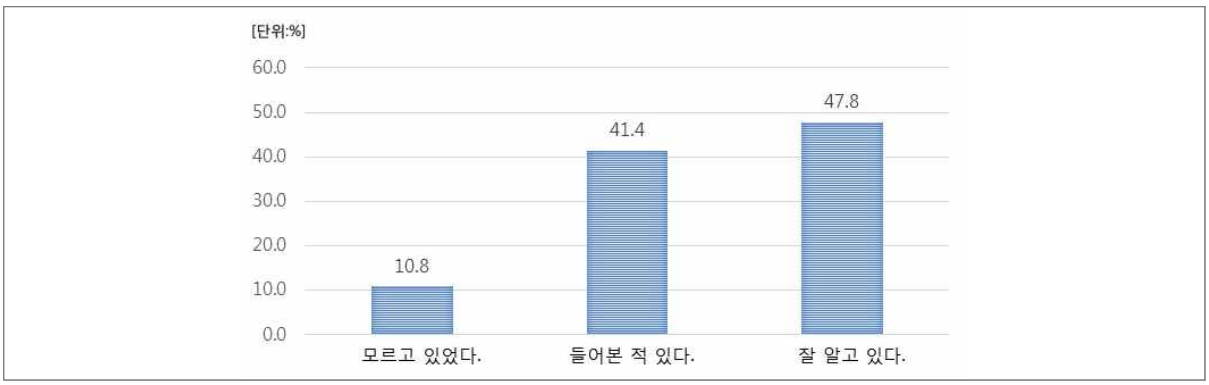
구분	업체 수	등록하지 않음	등록 대상 아님	등록함 (자격증 소지)	등록함 (교육 수료)
전체	**699**	**2.1**	**2.4**	**15.9**	**79.5**
제재목	502	1.4	0.2	18.5	79.9
방부목재	26	–	–	23.1	76.9
난연목재	2	–	–	–	100.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6	–	50.0	–	50.0
집성재	6	–	–	–	100.0
합판	–	–	–	–	–
파티클보드	–	–	–	–	–
섬유판	–	–	–	–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	–	–
목질바닥재	10	–	10.0	–	90.0
목재 펠릿	19	5.3	–	10.5	84.2
목재칩	55	5.5	20.0	14.5	60.0
목재브리켓	–	–	–	–	–
성형목탄	2	–	–	–	100.0
목탄	71	5.6	1.4	2.8	90.1

제6절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지도

□ 목재제품 수입·유통업체를 대상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응답 업체 기준 89.2%('들어본적 있다' 41.4% + '잘 알고 있다' 47.8%)였으며, 미 인지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10.8%로 조사됨.

□ 주요 수입 품목별 인지도(들어본 적 있다+잘 알고 있다)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수입업체의 인지도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목재칩(77.7%), 성형목탄(77.0%), 목탄 및 목초액(79.2%) 품목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19]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지도

<표 257>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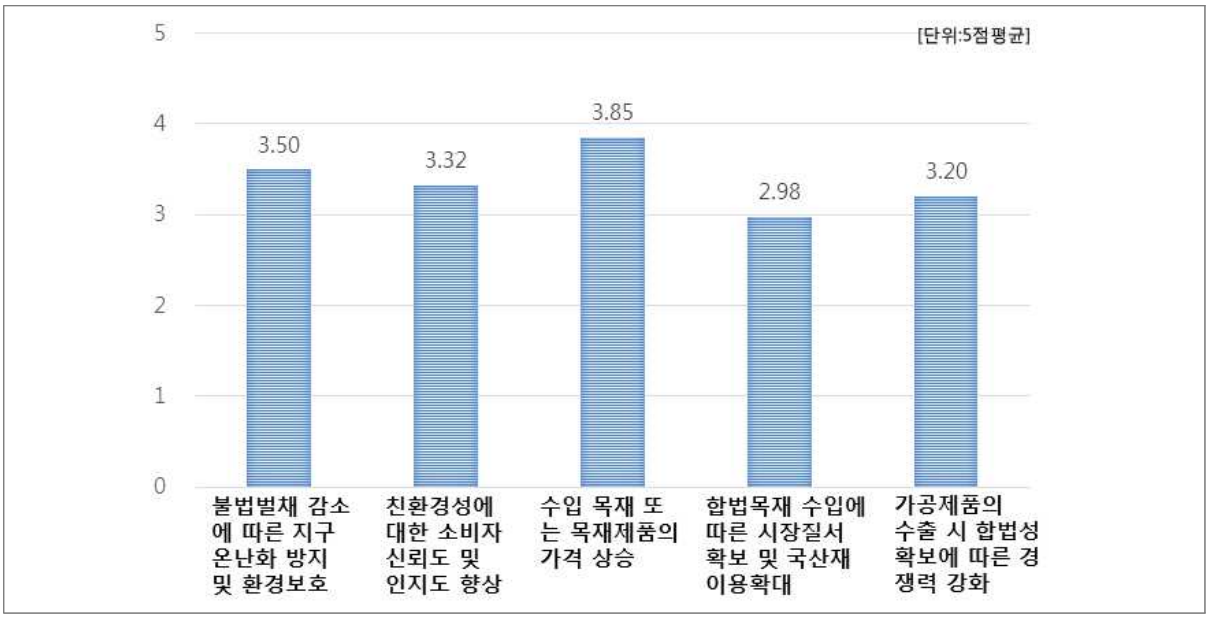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모르고 있었다	들어본적 있다	잘 알고 있다.
소계		418	10.8	41.4	47.8
주요 취급 품목	제재목	131	6.1	42.7	51.1
	방부목재	1	0.0	100.0	0.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0.0	50.0	50.0
	집성재	29	17.2	31.0	51.7
	합판	78	5.1	41.0	53.8
	파티클보드	8	12.5	12.5	75.0
	섬유판	7	0.0	100.0	0.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0.0	75.0	25.0
	목질바닥재	24	16.7	50.0	33.3
	목재펠릿	53	11.3	37.7	50.9
	목재칩	9	22.2	44.4	33.3
	목재브리켓	3	0.0	0.0	100.0
	성형목탄	13	23.1	38.5	38.5
	목탄 및 목초액	48	20.8	39.6	39.6
	기타	8	25.0	37.5	37.5

※ 난연목재는 응답업체가 없어 제외

2.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의한 영향력 인식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가격 상승'이 3.85점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법벌채 감소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호'(3.50점),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3.32점), '가공제품의 수출 시 합법성 확보에 따른 경쟁력 강화'(3.20점), '합법목재 수입에 따른 시장질서 확보 및 국산재 이용확대'(2.98점)의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함.



[그림 20]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의한 영향력 인식

<표 258>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의한 영향력 인식

단위 : 개, %

구분		업체 수	불법벌채 감소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고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수입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가격상승	합법목재 수입에 따른 시장질서 확보 및 국산재 이용확대	가공제품의 수출 시 합법성 확보에 따른 경쟁력 강화
소계		418	3.50	3.32	3.85	2.98	3.25
주요 취급 품목	제재목	131	3.54	3.31	3.95	3.06	3.25
	방부목재	1	4.00	4.00	4.00	4.00	4.00
	난연목재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	4.50	4.50	4.50	4.50	4.50
	집성재	29	3.50	4.00	4.00	3.04	3.27
	합판	78	.347	3.75	3.75	2.83	3.02
	파티클보드	8	3.29	3.88	3.88	2.88	3.00
	섬유판	7	4.14	4.17	4.17	4.00	3.83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	4.25	4.25	4.25	4.33	4.33
	목질바닥재	24	3.70	3.95	3.95	3.13	3.74
	목재펠릿	53	3.17	3.49	3.49	2.71	2.94
	목재칩	9	3.56	4.00	4.00	3.00	3.13
	목재브리켓	3	2.33	4.00	4.00	2.00	2.67
	성형목탄	13	3.42	3.54	3.54	3.00	3.33
	목탄 및 목초액	48	3.60	3.91	3.91	2.95	3.15
	기타	8	3.50	3.75	3.75	3.00	3.20

3.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관련 제안사항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행을 하더라고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19.4%, '사전 홍보 교육 필요' 9.7%, '품질표시 재검토 필요함', '절차 간소화'는 각각 6.5%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가짜 서류 유통이 문제 될 수 있음', '불법 목재 근절 필요', '불편사항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수입신고 문의 대응팀 가동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259>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대한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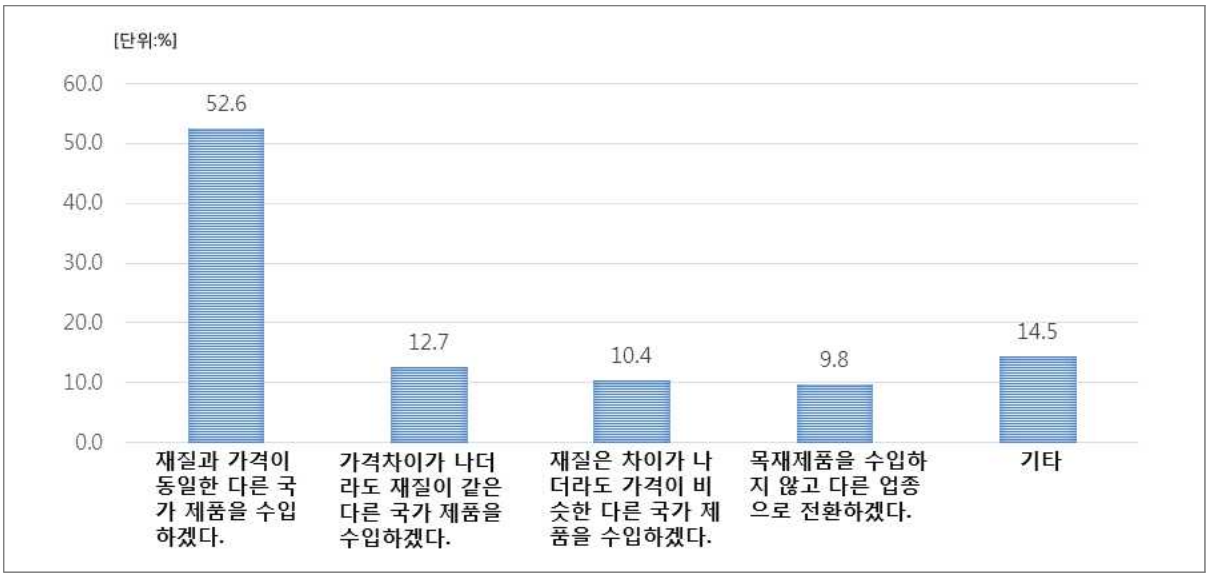
N=62, 단위 : %

	구분	세부의견	빈도	비율
1	미시행 요구	취지는 좋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지 업체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시행되길 바람	26	41.9
		규제가 심해서 1인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움		
		수입을 국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며 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함		
		수입국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수출국가만 적용 요망		
		이러한 제도 증가로 업체만 힘들어짐		
		국내와 해외 간 중복된 인증이 많음		
2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타 국가의 정부 행정 미비 등으로 서류 완비하기 어려워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12	19.4
		열악한 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함		
		정착되기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함		
3	사전 홍보 교육 필요	사전 홍보 기간도 없이 너무 급하게 한다는 건 무리임	6	9.7
		방안에 대한 홍보 부족		
4	품질표시제 재검토 필요함	먼저 유해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4	6.5
5	절차 간소화	수출국 증빙서류의 간소화	4	6.5
6	추가비용 보전(부담)	번역비 등 추가비용 보전	3	4.8
		새로운 제도에 따른 비용이 부담됨		
7	기타	가짜 서류 유통이 문제 될 수 있음	7	11.6
		불법 목재 근절 필요		
		불편사항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수입신고 문의 대응팀 가동 필요		

4.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로 인한 수입 형태 변화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로 시행으로 인해 타 국가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 '재질과 가격이 동일한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 하겠다'가 5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재질이 같은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겠다'(12.7%), '재질은 차이가 나더라도 가격이 비슷한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겠다'(10.4%), '목재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9.8%) 순으로 나타남.

□ 목재제품 품목별로는 '재질과 가격이 동일한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겠다'의 응답기준 방부목재, 섬유판 각각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목재플라스틱복합재 72.7%, 합판, 66.7%, 목질바닥재 62.5%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인한 수입형태 변화

<표 260>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인한 수입형태 변화

단위 : %

구분		업체 수	재질과 가격이 동일한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겠다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재질이 같은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겠다	재질은 차이가 나더라도 가격이 비슷한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겠다	목재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	기타
수입업체 소계		173	52.6	12.7	10.4	9.8	14.5
주요 취급 품목	제재목	60	50.0	10.0	10.0	13.3	16.7
	방부목재	1	100.0	0.0	0.0	0.0	0.0
	난연목재	–	–	–	–	–	–
	목재플라스틱복합재	11	72.7	0.0	9.1	9.1	9.1
	집성재	33	54.5	15.2	12.0	9.1	9.1
	합판	3	66.7	0.0	0.0	0.0	33.3
	파티클보드	2	50.0	50.0	0.0	0.0	0.0
	섬유판	2	100.0	0.0	0.0	0.0	0.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10	50.0	10.0	20.0	0.0	20.0
	목질바닥재	16	62.5	6.3	12.5	6.3	12.5
	목재펠릿	2	0.0	50.0	0.0	0.0	50.0
	목재칩	–	–	–	–	–	–
	목재브리켓	7	28.6	28.6	14.3	14.3	14.3
	성형목탄	20	50.0	25.0	5.0	10.0	10.0
	목탄 및 목초액	6	33.3	0.0	16.7	16.7	33.3

제5장 제지산업 현황

제5장 제지산업 현황

제1절 제지산업 현황

□ 제지업은 크게 목재칩을 이용하여 펄프를 생산하는 펄프제조업과 생산된 펄프 및 폐지를 원료로 각종 종이 및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종이 및 판지제조업으로 구분됨. 제지의 용도에 따라 인쇄용지산업, 신문용지산업, 포장용지산업 등으로 분류됨.

□ 제지업은 지종간 대체 생산이 어렵고, 지종별 원재료 투입 비중이 다르며, 최종 수요 산업 등에 차이가 있음. 반면, 주원료가 펄프 및 고지이고, 제조원가에서 원료비의 비중이 높으며, 일부 지종을 제외하고는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음.

□ 제지업은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높은 경쟁 강도로 진입장벽이 높으며, 내수시장은 상위 3~4개 회사가 총 생산량의 70~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구조임.

□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신문용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261> 제지업 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업체 현황(2017년)

단위 : 만 M/T, %

구분		생산량	비중
판지		6,915,316	62.9
종이	인쇄용지	2,742,161	25.0
	신문용지	1,120,486	10.2
	포장용지	12,423	0.1
	기타	195,943	1.8
합 계		10,986,329	100.0

※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제2절 제지산업 생산량 및 소비량

□ 제지업 생산량 중 59.6%(2017년 기준)은 판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온라인 유통구조 확대로 인한 택배산업 성장 등의 이유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쇄용지 및 포장지, 신문용지의 경우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연간 국내 제지 생산량은 2017년 기준 1,160만 톤이며, 최근 6개년 동안 0.5% 증가함.

<표 262> 제지업 분류에 따른 생산량

단위 :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판지	5,769,479	6,174,512	6,287,149	6,476,059	6,639,391	6,915,316	3.7
인쇄용지	3,207,348	3,242,573	3,042,702	2,919,882	2,779,479	2,742,161	△3.1
신문용지	1,523,288	1,514,734	1,422,523	1,333,796	1,389,563	1,120,486	△6.0
포장용지	190,442	204,124	195,373	185,868	186,835	175,745	△1.6
기타	641,413	665,221	714,532	653,336	656,794	648,270	0.2
합계	**11,331,970**	**11,801,164**	**11,662,279**	**11,568,941**	**11,652,062**	**11,601,978**	**0.5**

※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 제지업은 1990년대 설비 증설에 집중하였으며, 공급이 과잉되면서 내수 초과 물량을 수출시장을 통해 해소하고 있음.

- 전년 대비 전체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나, 스마트기기 이용의 증가로 여전히 인쇄용지와 신문용지의 내수 소비량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표 263> 제지업 분류에 따른 소비량

단위 :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판지	5,136,469	5,481,176	5,670,537	5,845,359	6,111,556	6,204,858	3.9
인쇄용지	2,091,333	2,052,557	2,033,585	1,969,354	1,907,101	1,857,706	△2.3
신문용지	790,893	694,212	649,779	602,550	603,411	612,085	△5.0
포장용지	227,429	217,945	228,637	224,371	242,886	244,634	1.5
기타	920,539	919,058	960,269	1,007,291	993,729	992,620	1.5
합계	**9,166,663**	**9,364,948**	**9,542,807**	**9,648,925**	**9,858,683**	**9,911,903**	**1.6**

※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 내수 초과 물량을 수출 시장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내수 시장에 비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출 시장은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어렵고, 환율 변동 및 수출 관련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 보다 수익성이 낮음.

□ 인쇄용지(48.2%)와 신문용지(48.0%)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5년 전과 비교해서 수출 비중이 각각 10%p 정도 증가하고 있어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임.

<표 264> 제지업 분류에 따른 수출량

단위 :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판지	941,690	1,043,651	971,991	1,002,744	1,062,090	1,085,288	2.9
인쇄용지	1,353,830	1,362,030	1,366,577	1,216,910	1,195,561	1,321,090	△0.5
신문용지	728,874	820,725	768,517	747,756	780,375	538,177	△5.9
포장용지	18,506	22,675	28,873	26,953	22,381	12,423	△7.7
기타	7,004	10,345	14,585	9,074	36,629	195,943	94.7
합계	**3,049,904**	**3,259,426**	**3,150,543**	**3,003,437**	**3,097,036**	**3,152,921**	**0.7**

※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표 265> 제지업 분류에 따른 수출비중

단위 : %

구분[3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판지	16.3	16.9	15.5	15.5	16.0	15.7
인쇄용지	42.2	42.0	44.9	41.7	43.0	48.2
신문용지	47.8	54.2	54.0	56.1	56.2	48.0
포장용지	9.7	11.1	14.8	14.5	12.0	7.1
기타	1.1	1.6	2.0	1.4	5.6	30.2
합계	26.9	27.6	27.0	26.0	26.6	27.2

※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 한편, 연간 수입되는 물량은 2017년 기준 126만 톤으로 연평균 8.0%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비량의 15%가 수입 물량으로 충당되고 있음.

<표 266> 제지업 분류에 따른 수입량

단위 :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판지	310,675	326,152	360,315	353,560	506,830	459,375	8.1
인쇄용지	210,430	280,036	300,518	297,854	304,264	314,554	8.4
신문용지	92	–	5	3	–	–	△100.0
포장용지	51,891	42,475	55,031	64,865	72,069	81,673	9.5
기타	285,308	302,309	344,947	363,578	375,841	404,634	7.2
합계	**858,396**	**950,972**	**1,060,816**	**1,079,860**	**1,259,004**	**1,260,236**	**8.0**

※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38) 수출비중은 전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을 의미함

제3절 제지산업 원재료 사용 현황

□ 제지는 폐지와 펄프를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폐지는 O.N.P, O.C.C, 기타로 구분되며, 펄프는 기계펄프와 화학펄프로 구분됨.

□ 연간 제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는 1,276만 톤으로 2016년 대비 전체 사용량은 소폭 증가함.

□ 2017년 기준 전체 원재료 중 국산폐지가 69.3%, 수입 펄프 17.8%, 수입 폐지 9.2%, 국산 펄프 3.7%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국산폐지 사용 비중이 소폭 증가함.

<표 267> 제지 원재료 사용량

단위 :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국산 폐지	8,044,016	8,646,300	8,722,766	8,332,512	8,340,048	8,844,000	1.9
O.N.P	1,257,665	1,181,423	1,110,348	1,178,213	1,141,241	973,385	△5.0
O.C.C	5,612,950	6,269,343	6,411,097	6,135,389	6,260,733	6,917,591	4.3
Others	1,173,401	1,195,534	1,201,321	1,018,910	938,074	953,840	△4.1
수입 폐지	1,448,837	1,510,910	1,410,727	1,318,409	1,390,796	1,179,862	△4.0
O.N.P	979,016	1,031,503	928,673	926,463	969,238	773,229	△4.6
O.C.C	236,013	257,544	198,377	153,388	148,223	179,049	△5.4
Others	233,808	221,863	283,677	238,558	273,335	227,584	△0.5
국산 펄프	489,634	541,162	532,091	464,214	442,647	472,278	△0.7
기계펄프	112,466	102,700	84,642	58,677	70,904	67,782	△9.6
화학펄프	377,168	438,462	447,449	405,537	371,743	404,496	1.4
수입 펄프	2,360,111	2,356,246	2,182,658	2,255,825	2,251,236	2,265,901	△0.8
기계펄프	300,600	342,473	293,997	272,737	303,180	306,567	0.4
화학펄프	2,059,511	2,013,773	1,888,661	1,983,088	1,948,056	1,959,334	△1.0
합 계	12,342,598	13,054,618	12,848,242	12,370,960	12,424,727	12,762,041	0.7

※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표 268> 제지 원재료 사용 비중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산 폐지	65.2	66.2	67.9	67.4	67.1	69.3
수입 폐지	11.7	11.6	11.0	10.7	11.2	9.2
국산 펄프	4.0	4.1	4.1	3.8	3.6	3.7
수입 펄프	19.1	18.0	17.0	18.2	18.1	17.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제6장 업체 의견 및 제언

제6장 업체 의견 및 제언

제1절 조사의 한계점 및 제언사항

1. 목재제품의 전체 시장규모 산출

□ 본 조사는 2017년 기준 15개 목재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조사 모집단을 정교화해가고 있음.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생산업체 조사 회수율은 94.0%였음. 각 제품별 주요 생산업체는 모두 조사하였으며, 미회수된 일부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로 목재제품의 시장규모를 추정할 경우 95% 이상의 정확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제재목, 합판보드류, 펄프용칩, 목탄 및 목초액 등 모집단 정보가 정확한 제품이 있는 반면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성형목탄 등은 비교적 모집단 정보가 아직은 불확실 하고, 회수율이 낮은 제품의 경우 제품별 시장규모를 합산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수입업체의 경우 시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그 변화가 심하여 모집단의 정확도가 결여되고, 영세한 업체의 경우 조사가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의 무역월보와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집계에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2. 수입통계 HS코드 개선

□ HS코드 기준의 수입통계 자료 중 현재 집성재 등 목재이용법 기준의 15개 목재제품의 HS코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업체가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다른 HS코드로 수입이 되고 있어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목재제품 HS코드 개선 과정이 필요함.

3.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

□ 목재산업 통계를 매년 구축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함. 목재산업 정책 입안자와 목재사업계 모두 목재사업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의 설계 및 분석단계에 이르기까지 신뢰성 있는 자료가 산출되어야 함. 매년 자료가 축적될수록 그 정확도는 자연스레 높아지겠지만, 향후 과업에서는 제품별 주요업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재산업계의 이야기를 반영한 설문 설계 및 조사가 이뤄지는 노력이 필요함.

제2절 목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1. 생산업체

1) 제재목

□ 제재목 생산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는, 금융 지원에 대한 답변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책(제도적) 지원' 20건, '인력 지원' 12건, '원목 수급 지원'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금융 지원의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정책(제도적) 지원의 세부 내용으로는 인공목재 사용 규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표 269>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1/2)-제재목

N=79(제재목 생산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금융 지원	1. 금융 지원	8
	2. 정책 제도	3
	①영세 제재소 지원방안 고려	
	②원목 및 제재목 수입 관세 인하 및 면제	
	3. 원자재 가격 인하	4
	①원자재 가격 인하	
	4. 경기 부양	14
	①경기 부양	
정책 (제도적) 지원	1. 품질표시제	3
	①품질표시제도 규격표시 간소화	
	②품질표시제도 제품 표기	
	③실제 제재소에서는 규격 표시가 불가능	
	2. 천연재 사용 의무화	6
	①인공목재 사용 규제	
	3. 정책적 지원	3
	①목재 사용 장려정책	
	4. 수입재 규제	2
	①수입제재목의 수입규제 또는 보호관세 정책 필요	
	5. 지원정책 기준 완화	3
	①지원정책 기준 완화	
	6. 기타	3
	①제재소와 벌채업자 일원화	
	②행정처리가 신속하지 않고 규제 심함	
	③천연목 사용 의무화 법안	

<표 270>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2/2)-제재목

N=79(제재목 생산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기술 지원	1. 기술지원 ① 현실적인 교육만 필요	1
인력 지원	1. 인력지원 ① 인력 지원 요망 ② 인건비 지원 ③ 젊은 인재 양성	12
장비, 시설물 지원	1. 장비, 시설물 지원 ① 문화재, 한옥 건설 물량 감소 ② 문화재청 물량 확대	4
원목 수급 지원	1. 원목 수급 지원 ① 국산원목 구입이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② 친환경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넓히는 정책 필요	9
기타	1. 국산원목 세금 발행 필요 2. 목재 표준 지침서를 만들어 줄것	2
합계		79

2) 방부목재

□ 방부목재 생산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는, '금융 지원', '목재법 규제 완화', '국산재 이용 의무제도 도입', '기술 분야 지원'의 의견이 있었음.

<표 271>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방부목재

N=4(방부목재 생산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금융 지원	1. 금융 지원	1
정책 지원	1. 목재법 규제 완화	1
	2. 국산재 이용 의무제도 도입	1
기술 지원	1. 기술 분야 지원	1
합계		4

3) 합판

□ 합판 생산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합판에 대해서 관세를 국내 합판 가격 이상으로 부과하길 희망한다고 응답함.

4)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 생산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품질 부적격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응답함.

5) 목재펠릿

□ 펠릿 생산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는, '생산 규격을 구분하는 생산기술 교육 필요', 'Rec 가중치 적용 정책 결정 필요', '국산재 우선 구매 촉진 제도', '정책 이용 및 촉진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 필요', '인력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272>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재펠릿

N=5(펠릿 생산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기술 지원	1. 생산 규격을 구분하는 생산기술 교육 필요	1
정책(제도적) 지원	1. Rec 가중치 적용 정책 결정 필요	1
	2. 국산재 우선 구매 촉진 제도	1
	3. 정책 이용 및 촉진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 필요	1
인력 지원	1. 인력 지원	1
합계		5

6) 목재칩

□ 목재칩 생산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는, 금융 지원에 대한 응답이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책 지원', '원목 수급 지원'의 답변이 있었음.
- 세부 내용으로는 '자금 지원 확대', '원재료 수급 곤란'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273>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재칩

N=6(목재칩 생산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금융 지원	1. 금융 지원 요망	2
	2. 자금 지원 확대	1
정책(제도적) 지원	1. 지나친 환경규제 감소화	1
원목 수급 지원	1. 원자재 수급 곤란	1
합계		5

7)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는, '금융 지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 지원'과 '인력 지원'이 각각 5건, '산업 활성화 및 경기 활성화 방안 수립' 2건 등이 있었음.

–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원', '인력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표 274>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탄 및 목초액

N=25(목탄 생산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금융 지원	1. 금융 지원 요망	3
	1. 경기 부양	3
	1. 인건비 지원	6
정책(제도적) 지원	1. 수입재 규제 ① 외국산 숯 무분별한 유통 규제 ② 동남아 등 외국 숯에 대한 철저한 규제 강화	2
	2. 지나친 환경 규제 완화	3
인력 지원	1. 인력 지원	5
산업 활성화 및 경기 활성화 수립	1. 숯 부산물(숯가루, 목초액)의 판로 개척	2
기타	1. 경기 침체로 인한 숯 소비 급감 해결방안 마련	1
합계		25

2. 수입업체

1) 제재목

□ 제재목 수입업체가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표시제' 4건, '금융 지원' 3건, '기타' 2건 등이 있었음.

- 세부 내용으로는 '제도의 현장 상황 반영 희망',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 필요', '표시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길 요망', '수축경기 부양'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표 275>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제재목

N=18(제재목 수입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품질표시제	1. 검사 소요기간 및 비용 단축	4
	2.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 필요	
	3. 표시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길 요망	
	4. 인증 간소화	
금융 지원	1. 수축경기 부양	3
제도 개선	1. 규제 완화	9
	2. 제도의 현장 상황 반영 희망	
	3.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내용 요망	
기타	1. 밴드로 묶어서 표시 바람	2
	2. 국외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입 불안 우려	
합계		18

*주요 취급 품목 기준

2) 집성재

□ 집성재 수입업체가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표시제'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세부 내용으로는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과 품질표시제의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 필요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표 276>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집성재

N=9(집성재 수입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품질표시제	1. 표시의 어려움 해결	1
	2.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 필요	2
제도 개선	1. 규제 완화	4
	2.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하길 희망	1
	3. 제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홍보 필요	1
합계		9

*주요 취급 품목 기준

3) 합판

□ 합판 수입업체가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는,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표시제', '인력지원 및 교육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세부 내용으로는 '검사 소요기간 및 비용 단축', '목재 품질표시 기준 변경시마다 간부급 교육 필요', '수입 시 반덤핑 관세 철폐' 등의 내용이 있었음.

<표 277>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합판

N=8(합판 수입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품질표시제	1. 검사 소요기간 및 비용 단축	1
	2.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 필요	1
제도 개선	1. 규제 완화	3
	2. 소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3. 수입 시 반덤핑 관세 철폐	
금융 지원	1. 경기 부양	1
인력지원 및 교육지원	1. 인력 및 교육 지원 필요	2
	2. 목재 품질표시 기준 변경시마다 간부급 교육 필요	
합계		8

*주요 취급 품목 기준

4) 배향성스트렌드보드

□ 배향성스트렌드보드 수입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제도 적용이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 '건설경기 부양' 등의 의견이 있었음.

5) 목질 바닥재

□ 목질바닥재 수입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관 기관만 다르고 요구하는 인증이 너무 많음', '바뀐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음.

6) 목재펠릿

□ 목재펠릿 수입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품질표시제',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및 교육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
- 세부 내용으로는, '검사 소요기간 및 비용단축 필요', '펠릿 검사 간소화',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 우려', '환경 문제 관련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표 278>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재펠릿

N=10(목재펠릿 수입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품질표시제	1. 검사 소요기간 및 비용 단축	1
제도 개선	1. 펠릿 검사 간소화	2
금융지원	1.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 우려	1
	2. 경기 부양	1
인력지원 및 교육지원	1. 교육 지원	1
기타	1. 수입국의 가격, 품질 이상	1
	2. 환경 문제 관련 우려	3
합계		10

*주요 취급 품목 기준

7) 성형목탄

□ 성형목탄 수입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 지원으로는, '제도 개선'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표시제', '금융 지원'의 내용이 있었음.

– 세부 내용으로는,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관세 지원', '기준 없고 근거 없는 단속 중단 희망'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표 279>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성형목탄

N=6(성형목탄 수입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품질표시제	1.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1
금융 지원	1. 관세 지원	1
제도 개선	1. 규제 완화	2
	2. 기준 없고 근거 없는 단속 중단 희망	1
	3. 정밀검사 개선	1
합계		6

8) 목탄 및 목초액

□ 목탄 및 목초액 수입업체가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는,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표시제' 내용이 있었음.

– 세부 내용으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규제 완화', '검사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음.

<표 280> 목재 산업을 위한 필요 지원–목탄 및 목초액

N=18(목재펠릿 수입업체), 단위 : 건(복수응답)

분류	세부내용	건수
품질표시제	1. 검사 소요기간 및 비용 단축	4
	① 검사 기간 단축 필요, 비싼 금액	
	② 시험 성적서 발급이 빨라질 필요가 있음	
	2.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 필요	1
	①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사 기준의 현실화	
제도 개선 필요	1. 규제 완화	4
	2. 명확한 제도 명시 필요	1
	3. 통관절차의 간소화	7
	4. 밀수입 숯 철저 단속	1
합계		18

*주요 취급 품목 기준

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림청에서 시행한 목재이용법 이행기반 구축사업의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에서 시행한 목재이용법 이행기반 구축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